

河南省史料集
④

人物篇

河南文化院



민 영 휘 영정



荷汀閔柱國降生遺墟紀念碑



▲ 민영휘 생가 기념비의 현재 모습



▲ 민영휘 생가 터(이성산성 아래 선산동)

하남시 사료집 4

인물편

金世民 編
申東珪

河南文化院

발간사

매년 하남의 역사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책자로 발간해온 우리 하남문화원은 금년도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인물에 관한 자료수집을 김세민 박사에게 의뢰한 결과 우선 첫 번째로 휘문고등학교 설립자인 민영휘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흔히들 거울이라고들 하며 또한 역사발전의 주체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는 그 해당 인물에 관한 개인적인 발자취 뿐 아니라 그 인물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주변의 인물들을 함께 조망하여 봄으로써 그 시대의 사건과 사회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역사적 평가를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정립의 거울로 삼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사료집이 간행되기까지 자료수집 등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세민 박사님과 신동규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12월 31일

하남문화원장 이 용 우

서 문

하남문화원은 이미 3차례에 걸쳐서 『河南市史料集』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출간되는 사료집은 하남시와 관련된 인물로 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 첫번째로 민영휘로 하였다. 그 이유는 민영휘가 하남시와도 관련 있는 인물이나 『하남시사』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민영휘는 여러 자료에서 서울 출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의 생가가 성산동 이성산 아래에 있었다고 전하며, 현재 그의 「강생유허기념비」가 부근 밭에 넘어져 있다. 그 일대는 주로 민씨 소유의 땅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에도 민씨들 묘가 여러 기 남아 있다.

민영휘는 탐관오리, 친일파 등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료집을 발간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역사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고,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의 역사임에 틀림없으므로 기록을 남긴다는 입장에서 순수하게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자료는 주로 일제강점기 발간되었던 『잡지』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예외로 『매천야록』 같은 문집도 일부 수록하였다. 이 자료에는 민영휘 뿐 아니라 당대의 이름있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그 당시의 사회상이 적나라하게 쓰여 있으므로 당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2001년 12월 31일
문학박사 김 세 민

범례

1. 이 사료집에서 사용된 연도는 원본 그대로를 표기하며, 괄호 안에 서력을 기입하였다. 예) 大正 5년(1916).

2. 당시의 잡지 내용이 한문투 또는 구어체이고, 사투리도 섞여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을 현대어로 고쳤다..

예) 원문 → 子爵 閔泳徽氏는 今春에 定州 五山學校 校舍를 建築
하야 准다고 同校 關係者 李昇薰氏에게 明言하고…秘密에 附
하라고까지 附托하였다.

수정 → 子爵 민영휘씨는 금년 봄에 定州 五山學校 校舍를 건
축하여 准다고 同校 관계자 李昇薰씨에게 明言하고…비밀에
부치라고까지 부탁하였다.

3. 본문 중에 나오는 일본어 표기나, 한글로 표기된 일본어 음독은 각
주에 일본어 원문과 번역을 달아 이해에 편리를 도모하였다.

예) 원문 → “イツタイキミタチハナンスルカ…”

각주 → “いったい、君たちは、何をしているか”이며 “도대체
너희들은 뭘하고 있느냐?” 라는 의미.

4. 목차에 보이는 제목들은 해당 본문 내용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
으로 줄여 표기하고, 원제목은 해당 본문 앞에 표기하였다.

목 차

발간사

서문

범례

목차

민영휘약사	2
▷ 『매천야록(梅泉野錄)』 제5권, 광무 9년 을사(1905)	5
* 민영환 장례	
▷ 『매천야록(梅泉野錄)』 제5권, 광무 11년 정미(1907)	5
* 前注書 羅寅永 등의 謀誅五賊	
▷ 『매천야록(梅泉野錄)』 제6권, 융희 3년 기유(1909)	8
* 민영휘의 民財탈취	
▷ 『개벽』 제12호, 1921년 6월 1일.	8
* 流星	
▷ 『개벽』 제17호, 1921년 11월 1일.	11
* 모름이 美로부터(感想)	
▷ 『개벽』 제37호, 1923년 7월 1일.	30
* 교활한 부호의 常習	

▷ 『개벽』 제39호, 1923년 9월 1일.	31
* 사상과 경향	
▷ 『개벽』 제43호, 1924년 1월 1일.	32
*...동맹휴학중에 있는 徽文高普의 내막...	
▷ 『개벽』 제43호, 1924년 1월 1일.	38
* 최근 一年中の 사회상	
▷ 『개벽』 제48호, 1924년 6월 1일.	39
* 京城의 人物百態	
▷ 『개벽』 제57호, 1925년 3월 1일.	47
* 죽을 사람의 생활과 살 사람의 생활	
▷ 『개벽』 제58호, 1925년 4월 1일.	54
* 형형색색의 경성 學生相	
▷ 『개벽』 58호, 1925년 4월 1일.	58
* 和洋並出의 불순한 졸업식...	
▷ 『개벽』 제61호, 1925년 7월 1일.	61
* 八道代表의 八道자랑	
▷ 『개벽』 제69호, 1926년 5월 1일.	62
* 京城雜話	
▷ 『개벽』 제70호, 1926년 6월 1일.	65
* 京城雜話.	
▷ 『동광』 제19호, 1931년 3월 1일.	69
* 甲申政變回顧談, 朴泳孝氏를 만난 이야기	
▷ 『동광』 제29호, 1931년 12월 27일.	71

	* 東西古今人物座談會	
▷ 『삼천리』 제2호, 1929년 9월 1일.		76
	* 自畫像, 波瀾重疊五十年間	
▷ 『삼천리』 제5호, 1930년 4월 1일.		79
	* 全盛時代(畿湖學會 前後十年)	
▷ 『삼천리』 제9호, 1930년 10월 1일.		83
	* 아하, 아버지 李甲, 그의 따님 李正熙女史 訪問記	
▷ 『삼천리』 제11호, 1931년 1월 1일.		89
	* 조선최대재벌해부(二), 閔泳徽氏系一千萬圓…	
▷ 『삼천리』 제14호, 1931년 4월 1일.		95
	* 조선최대재벌 해부(四), 2백만원의 은행왕 박영철씨…	
▷ 『삼천리』 제3권 제10호, 1931년 10월 1일.		98
	* 朝鮮日報 東亞日報 社長公薦 結果發表.	
▷ 『삼천리』 제4권 제2호, 1932년 2월 1일.		101
	* 三千里 「壁新聞」	
▷ 『삼천리』 제4권 제3호, 1932년 3월 1일.		102
	* 有名人士 三兄弟 行進曲, 閔木植씨 三兄弟…	
▷ 『삼천리』 제4권 제4호, 1932년 4월 1일.		105
	* 萬目注視하는 三大爭霸戰…	
▷ 『삼천리』 제5권 제9호, 1933년 9월 1일.		119
	* 鬪志滿腹의 歷代巨頭	
▷ 『삼천리』 제5권 제10호, 1933년 10월 1일.		127
	* 三大金鑛王 成功	

▷ 『삼천리』 제6권 제9호, 1934년 9월 1일.	132
* 『運命과 死生觀』 座談會	
▷ 『삼천리』 제8권 제2호, 1936년 2월 1일.	135
* 銀行사장 인물평, 東銀사장 민대식씨.	
▷ 『삼천리』 제8권 제2호, 1936년 2월 1일.	142
* 通俗觀相講座, 어떤 사람이 돈 모으고 사나	
▷ 『삼천리』 제8권 제6호, 1936년 6월 1일.	149
* 一千二百萬圓이라는 閔泳徽 財産은 어디로 가나?	
▷ 『삼천리』 제8권 제6호, 1936년 6월 1일.	157
* 談話室(閔大植씨와 菓子)	
▷ 『삼천리』 제8권 제12호, 1936년 12월 1일.	158
* 三千里機密室, 長安甲富 秋收 調査	
▷ 『삼천리』 제10권 제10호, 1938년 10월 1일.	162
* 機密室(우리社會의 諸內幕).	
▷ 『삼천리』 제10권 제10호, 1938년 10월 1일.	163
* 閔씨家 悲劇, 一千萬圓 骨肉訴...	
▷ 『별건곤』 제3호, 1927년 1월 1일.	172
* 朝鮮에서 活動하는 海外에서 돌아온 人物評判記...	
▷ 『별건곤』 제3호, 1930년 3월 1일.	179
* 春季特輯附錄, 朝鮮最近十三史講座	
▷ 『별건곤』 제39호, 1931년 4월 1일.	182
* ...今日의 問題 조선 사람은 왜 가난해지나	
▷ 『별건곤』 제46호, 1931년 12월 1일.	188

- * 私設檢事局大探查錄, 新幹京支會館은 어찌 되었나
 ▷ 『별건곤』 제57호, 1932년 11월 1일. 193
 - * 空手로 一攫千萬金, 벼락 富者傳
- ▷ 『별건곤』 제62호, 1933년 4월 1일. 195
 - * 朝鮮高官 盛衰記, 沒落에 悲泣하는 朝鮮三府院君家…
- ▷ 『별건곤』 제63호, 1933년 5월 1일. 198
 - * 朝鮮高官 盛衰記, 半島天地를 흔들던 閔씨 三家의 今昔
- ▷ 『별건곤』 제64호, 1933년 6월 1일. 204
 - * 朝鮮高官 盛衰期, 半島天地를 흔들던 閔씨 後裔의 今日…
- ▷ 『별건곤』 제64호, 1933년 6월 1일. 210
 - * 朝鮮兩班의 꽃타령.
- ▷ 『별건곤』 제69호, 1934년 1월 1일. 215
 - * 秘中秘話, 百人百話集
- ▷ 『별건곤』 제73호, 1934년 6월 1일. 216
 - * 萬華鏡.

하남시 사료집 4

인물편-민영휘

민영휘 약사

1852년(철종3)~1935년.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초명은 영준(泳駿), 자는 군팔(君八), 호는 하정(荷汀)이며, 유수 두호(斗鎬)의 아들이다. 1877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에 제수된 뒤 주서(注書), 겸설서(兼說書), 정언(正言), 부수찬(副修撰)을 거쳐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승진하면서 당시의 민씨 척족의 세력을 배경으로 정계에 등장하였다.

민씨 척당의 중심적인 인물로 1882년 임오군란 때에는 난군의 습격을 받고 가옥이 파괴당하기도 하였다. 1884년에 김옥균 등의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1886년에는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 도승지(都承旨)가 되었다. 1887년 5월 청국의 간섭 아래 수교, 체결한 외국에 외교사절을 파견했을 때에 주일변리대신으로 일본에 파견되었고, 귀국 후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 1889년 강화부유수로 전직하였다가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에 오르고 이어 형조, 예조, 공조의 관서를 차례로 역임하고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다. 이 무렵 청국을 비롯한 외교관계에 민영익의 역할을 대신 맡으면서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영합하였다. 1891년 경리사와 이조판서를 거쳐 연무공원관리(鍊武公院辦理)가 되었다.

그뒤 민씨 세력의 수령으로 당대에 으뜸가는 탐관오리로 꼽히면서 1893년에는 내무부독판(內務府督辦)·통영사(統營使)·경리사·선혜아문당상(宣惠衙門堂上)을 겸직하고 이듬해에는 친군경리사(親軍經理使)가 되었다.

민영휘 약사

탐학(負國貪虐)하여 이치민원(以致民怨)한 죄목으로 전라남도 영광군 임자도에 천배되었으나, 탈출하여 평양으로 잠행하여 벽동의 청군부대에 은신하고 있다가 중국으로 도망하였다. 이듬해에 일본측의 농간으로 대원군측의 이준용과 교환조건 형식으로 대사령으로 귀국하여 중추원의장, 시종원경(侍從院卿), 헌병대사령관, 표훈원총재(表勳院總裁)를 역임하고, 정부로부터 훈일등팔괘장, 태극장, 태극이화대수장 등을 받았다.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 후 일본정부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았고, 거액을 투자하여 천일은행과 1906년 휘문학교를 설립하였다.

▷ 『매천야록(梅泉野錄)』 제5권, 광무 9년 을사(1905)

〈閔泳煥의 장례〉

21일, 閔泳煥을 용인에 예장하였다. 이때 고종은 친히 뜨락에 내려 멀리 떠날 때까지 전송하며 경의를 표하였고, 또 각국 공사 및 영사들도 모두 와서 조문을 하며 관을 어루만지고 애통해 하였다. 위로는 摺紳으로부터 밑으로 坊曲의 조예(■隸), 부유(婦■), 걸인, 각 사찰의 승도들도 거리가 뻑뻑하게 모여 곡을 하면서 전송하였으므로 그 곡성은 산야를 뒤덮었다. 이때 典洞에서 한강에 이르기까지 인파가 칩칩으로 쌓여 진을 친 듯 하였다. 喪輿를 전송할 때 이렇게 인파가 많은 것은 近古에 없는 일이었다. 이때 鄉兵 韓某라는 사람이 장례지에서 閔泳徽를 보고 “당신도 護喪을 하러 왔습니까? 당신의 성이 민씨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민씨는 죽고 어떤 민씨는 죽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나라가 망하였지만 한 번 죽어 속죄를 하지 않고 忠正公의 영구를 따라 여기까지 왔으니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속히 이곳을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뾰족한 내 군화에 치여 죽을 테니까!”라고 하자 민영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났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통쾌하게 생각하였다.

▷ 『매천야록(梅泉野錄)』 제5권, 광무 11년 정미(1907)

〈前注書 羅寅永 등의 謀誅五賊〉

前主書 나인영, 前主事 吳基鎬와 金寅植 등이 5적을 살해하려다가 미수

매천야록(梅泉野錄)

에 그쳐 평리원에 자수하였다. 이때 나인영 등은 폭약 2櫃를 은밀히 가지고 있었다. 그 기구는 자물쇠를 설치하여 그것을 잡아당기면 화약이 폭발하였다. 그들은 그 폭약을 李址容과 朴齊純 등에게 보내며 “이것은 미국인 모씨가 보낸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들의 가족은 그 폭약에 접근하여 열어 보려고 하였으나 박제순은 열지 못하게 하고, 날카로운 칼로 그 틈 사이를 넣어 힘을 가하자 그 폭약케는 열리었다. 그 가족들은 모두 놀랐다. 그리고 이지용도 다행히 열지 않고 있다가 박제순의 소식을 듣고 서로 놀라며 그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인영 등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장정 康元相, 黃華瑞 등 18명을 모집하여 3명이 1명을 대적하게 하였다. 그것은 상대가 朴鏞和 등 6명이기 때문이다. 이때 강상원은 權重顯을 맡기로 하고 그를 寺洞까지 추적하여 그를 향해 세 번이나 육혈포를 쏘았으나 명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체포되었고, 그 후 얼마 안되어 박용화는 자객을 만나 사망하였다. 이지용 등은 크게 놀라 그들의 소굴을 추적하여 여러 날 동안 몸이 달아 있었다. 그리고 이때 나인영 등이 다시 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럴 기회가 없으므로 그들은 5 적의 斬姦狀 및 통감부와 각국 영사관의 통첩, 마을의 광고문, 自新會의 취지서, 애국동맹가, 그 姦賊을 살해한 후의 자수문 등 증거가 될 만한 문서에다가 연명하여 自省文을 적어 자수하였다. 이때 나인영 등은 李沂와 친하게 지냈으므로 法司에서는 이기도 그들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도 하옥시켰다. 이때 이등박문은 옥관에게 말하기를, “지금 나인영과 오기호를 석방하면 그 다음 사람들을 징계할 수 없으므로 그들을 엄하게 수감하라”고 하므로 사람들은 그들을 매우 위태롭게 여기고 있었다. 이때부터 이지용 등은 출입을 할 때마다 경비병이 따라붙었고, 또 일본 순사들을 그들

의 집으로 파견하여 밤이면 5·6명을 파견하였으나 사람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李容泰와 閔衡植 등도 체포하였다. 그들도 나인영, 오기호 등에게 포섭된 후 거액을 투자하여 그들의 운동을 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용태의 집에서는 私鑄한 병기와 화폐가 발견되어 그것이 罪案에 첨가되었으나 민형식은 입을 다물고 굴복하지 않고 있다가 酷刑을 당하였고, 이기는 그 삼엄한 분위기를 보고 사실을 실토하여 모든 문서가 그의 손에서 나왔으므로 그 죄상이 명백히 밝혀졌다. 박용화를 처형한 것은 다른 사유가 있었던 것이며 나인영과 오기호 등의 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법사에서 처음에는 그들에게 살인을 음모한 죄로 처형하려 하였으나 민영휘의 양자이므로 민영휘는 많은 돈을 뿌리며 안팎으로 주선하여 그 사건이 조금 풀리었다.

그 후 얼마 안되어 朴泳孝가 귀국하자 그들을 국사범으로 바꾸어 그들은 모두 처형되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에 李沂는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떨어진 상복을 입고 서울을 왔었다. 이때 이지용이 그를 추천하여 그가 사범 교관이 된 후에도 그를 위해 봉급과 식비를 도와주었으며, 나인영은 날마다 박제순의 집에 가서 관직 한자리를 제수해 달라고 하였으나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논하면서 매우 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은 尹柱瓚, 李光秀 이하 10여 명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쳤다. 그들은 모두 호남 사람으로 주모자인 이기 및 나인영 등과 한 고향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개벽(開闢)

▷ 『매천야록(梅泉野錄)』 제6권, 응희 3년 기유(1909)

〈閔泳徽의 民財탈취〉

민영휘가 전제정권을 펼치고 있을 때 그는 국민의 재산을 탈취하여 전 후에 걸쳐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다. 이때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모여들어 혹 재판소에 호소하기도 하고 혹은 그의 집으로 달려가 칼을 빼어들고 재산을 되찾아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또 각 신문에다가 그의 악행을 게재하여 날마다 공개하므로 민영휘는 매우 걱정을 한 나머지 변호사에게 후한 뇌물을 주어 재산을 빼앗긴 민간인들의 소송을 받지 말도록 하였다. 또 신문사에 애걸하여 자신의 악행을 은폐해 달라고 하였으나 신문사에서도 그가 애걸하면서 악행을 은폐해 달라는 말까지 보도하자 민영휘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가족을 모두 상해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그리고 민영휘의 양자 閔衡植은 선비이므로 그는 의리를 숭상하여 금전을 잘 쓰고 다녔으나 민영휘는 급하지 못하여 거의 윤리를 상하는 상태에 까지 이르렀고, 또 그의 庶子 閔大植은 방탕하고 간사하여 날마다 많은 돈을 썼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 『개벽』 제12호, 1921년 6월 1일.

기사제목 : 流星

某都 「마름」의 정산에 의하면 경성 민영휘씨의 년 수입은 白米로만 25

만석이라 한다. 이외에 잡곡의 수입이 있다. 또 굉장한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실로 조선역사 이래 처음 있는 재력이라 하겠다. 병적 사회제가 지어놓은 흙도 이만하면 꽤 큰 셈이다. 백미 25만석의 年收! 과연 무서운 말이 아닌가. 이것을 25인이 나누어 가진다 할지라도 거부의 1인이 됨은 자명한 것이다. 작년 중 閔씨가 경영하는 徽文高普에서 재단문제가 일어나 직원과 생도가 눈물을 흘리며 야단이 날 때에 학생측 대표 교섭원이 민씨에 대한 유일한 懇願은 “대감님이시어 대감님 현재 수입의 3일 분만을 배풀어주십시오. 그것이면 휘문고보는 영원히 훌륭하겠나이다.”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3일분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총독부 警務 當 국자의 말에 의하면 “조선 내에서 구독되는 잡지의 수는 일본과 조선 발행의 것을 통해 약 6백여 종이 있으며, 구독자의 총 인원수는 일본인이 약 16만명, 조선인이 약 7만명인데 이를 조선의 전 인구수에 대비해보면 일본인은 2명 중에 1종, 조선인은 2백명 중에서 겨우 1종의 신문잡지를 구독하는 셈인데, 조선인의 독서력은 아직까지 그만큼 빈약하다.” 한다. 물론 이 통계의 정확여부가 의문이다. 또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조선인은 지방에서 1개의 신문이나 1개의 잡지를 한 마을 혹은 한 단체가 돌려가며 보는 것이 보통인데, 2백명 중에 1명 만 일리는 없겠지만, 여하튼 조선인의 독서열이 일본인보다 낮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현재 조선에 있는 순사 1명의 평균 담당영역은 면적 상으로 일본 순사 1명이 1方里 77의 구역을 맡았고, 또 戶數로는 일본인 순사가 313호, 조선인 순사가 369호이며, 1인당 인구는 일본인 순사가 1,645인, 조선인 순사가 2,102인이라는 계산이다. 옛 사람의 말에 方이 100리면 족히 王도 하리라는 말이 있거니와 금일 일본인 순사 1인당 구역이 1방리 77이면 방 100리는 채 못 되지

개벽(開闢)

만 방 20리는 되는 썸이다. 따라서 王 노릇까지는 못하나 그 구역으로써 범 노릇은 하는 썸이다. (지방에 가서) 兪星濬씨의 집으로 찾아가면 갈 때마다 翫字를 하고 있고, 金性洙씨를 대하면 대할 때마다 노끈 꼬기를 하고 있다. 兪씨는 말하기를 "이 翫字야 말로 꼭 좋은 일이지요. 일체의 번뇌를 없애줍니다." 김씨는 말하기를 "노끈 꼬는 것이 꼭 재미가 나요. 그리고 담배를 덜 피게 됩니다."라고 한다. 과연 그렇겠구나. 비록 일시라도 적적하게 보내는 것은 紳士의 치욕. 최근 돌아온 사람의 말을 들으면 북간도에서는 조쌀 한 말에 30전~1원이고, 50전이면 1개월을 숙박할 수 있다고 한다. 비록 어느 정도 물가가 떨어진 금일이라 할지라도 별 세계가 되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전에 富寧郡守 北靑郡守요, 현 瑋春 조선민족 대표라는 이 근양은 지난 5일 일본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함북청진을 들었다. 그때 마침 城津 시민 주최의 강연회가 있었는데, 그는 만취의 몸으로써 회의장에 난입하여 팔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며 "イツタイキミタチハナンスルカ..."¹⁾ 하는 등의 暴語-아니 狂語를 연발하여 말할 수 없는 지랄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그곳에 日夜長醉로 술집을 돌아다니며 말할 수 없는 별 별 추태를 보였는데, 그의 본색을 조사해보면 이전에 一進會 회원의 昇級者라는 말이 있다. 물론 많은 사람 중에는 술주정뱅이도 있을 것이다. 개보다 더 추한 人性을 가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까지 출장한 瑋春 조선민족의 대표자가 그따위 사람이라 한다면 혼춘 동포, 아니 조선민족의 체면은 어찌할까. 무엇보다도 혼춘 동포를 생각한다면 한심하다.

1 "いったい、君たちは何をしているか" 라는 표현이며, 의미는 "도대체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다.

▷ 『개벽』 제17호, 1921년 11월 1일.

필 자 : 曉鍾

기사제목 : 모름이²⁾ 美로부터(感想)

우리 조선 사람들도 최근 수 년 내에 여러 가지 새로운 운동이 많이 생긴 것 같다. 남과 한가지로 개조이니, 개량이니, 개선이니, 개혁이니 하는 말이 개인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의 잠꼬대하기까지 선포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누르고 짜고 보면 부자연스런 세태를 自然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구태여 지구상에 출현하는 여러 가지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모든 美를 뽑어내는 근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조선의 현상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 모든 美가 고갈하여 있다. 따라서 우리 조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온 세상이 다 그러한 것 같다. 또한 모든 美가 이 지구상에서 그 형상을 감추고 만 것 같다. 이것은 가장 고통스런 살풍경이다. 인류에는 생존의 美가 없으며, 人情에는 인정의 美가 없고 社交에는 사교의 美가 없다. 交友에는 교우의 美가 없고 國交에는 국교의 美도 또한 없는 것 같다. 그 뿐만 아니라 부자형제와 姻婭 친척간에도 美가 없다. 이러한 인류로 조직된 가정에 무슨 美가 있겠는가. 더구나 美를 지어내는 예술까지도 美를 찾기가 어렵게 된 것이 지금의 우리 인류계의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재미스럽지 못한 세상이다. 곤궁한 사람이나 失意한

2 "모름지기".

개벽(開闢)

사람은 다시 말할 것이 없거니와 소위 귀족이니 재산가이니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결코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것이 없을 줄 안다. 만일에 이러한 것이 인생의 至高한 낙이요, 최선의 행복이라고 하면 인생의 해결은 가장 용이한 것이다. 누구나 다 고리대금을 하던지 약간의 돈푼이나 혹은 지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아부나 하고 무조건으로 복종하고 환심이나 사서 돈푼을 모으던지, 무엇이든 어떻게 하면 곧 될 것이다. 멀리 남의 나라 사람은 말할 것 없고 가까이 우리 조선 사람의 현상을 보라. 아무리 過渡時代요 모든 것이 草創時代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모순되는 일이 많고 너무도 반대되는 일이 많은 것 같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美를 찾아야 하겠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볼 일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불완전하나마 또는 형식적이거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살풍경이고 참담한 일이 한 둘이 아니다. 소위 官民이 그러하며 공익사회가 그러하며 공공단체가 또한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단체와 단체사이에 서로 섞이지 못할 무슨 막이 있고 官이니 民이니 하는 그 사이에도 무슨 막이 있으며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무슨 막이 가려있다. 그 중에는 서로 막이 적다고 할만한 것은 겨우 세력자가 세력자를 돕는 것과 부자가 부자를 도우며 아전인수의 利慾的 行동을 제외하면 그 가운데는 아무 것도 없다. 眞도 없으며 善도 없고 美도 없다. 여기에 한 순수한 청년이 있다고 하자. 그 청년이 오직 그의 純소한 白玉 같은 그 마음에는 민족을 위하며 사회를 위하고 公衆을 위하여 일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그를 이해치 못하고, 아니 이해만 못할 뿐 아니라, 이해만 안중에 두는 사회사람들은 그 청년이 돈이 없다고 하여 배척

하며, 지방이 다르다 하여 배척하고, 지위가 빼앗길까 하여 배척한다. 俗談에 이른 바와 같이 저 먹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까워서 그 청년을 돕기는커녕 그 일에 暗暗히 방해를 하는 것이 우리 현사회의 청년! 아니 자칭 소장 신사들의 사교법이 아닌가. 엇그제까지도 너니 내니 하며 한 가지 落望失意로 지내다가도 어찌하여 조금 무슨 지위라도 얻게 되면 기고만장하여 별안간 무슨 雄才大畧이나 품은 것 같이 안하무인하는 교태만 뽐고, 이것이 곧 자기가 최상 지위에나 오른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대인관계 아닌가?

어떤 신문이나 잡지사를 가보라. 소위 편집국장이라 하면 그 아래에 있는 편집부원이나 일반사원에게 이맛살이나 찌푸리고 눈이나 크게 뜨고 말이나 통명스럽게 하면, 곧 국장의 자격이나 찾은 것 같이 아는 그네들도 붓을 들던지 입을 벌리면 평등이니 자유니 四海之內가 동포이니 하지 않는가? 1면을 맡아 편집을 하는 사람이면 1면에다 권력을 쓰라고 하고, 2면을 맡아보는 사람은 2면에 기사를 請求하던지 무슨 청이나 좀 하는 것 같으면 길길이 뛰며 배를 내밀고 있지 아니한가?

관청을 가보라. 백성이 무슨 수속을 하러 가서 무슨 말을 하면 곧 죄인이나 심문하는 것 같이, 온순히 하고 순조롭게 가르쳐 준다고 무슨 관청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 아닌데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말하기를 “빠가이니, 조센진시호가나이니”³⁾ 하는 그네들도 뻔뻔하면 官民이 협동해야 하느니 관민이 일치되어야 하느니 하지 않는가? 여기에 한 의사가 있다. 환자에게 “나는 너의 병을 고치려고 한다, 그렇지만 너는 입을 열어 病勢를 말하면 안 된다. 네가 아프고 쓰린 그 곳은 어떠하던지 내가 주는 약만 먹어라.

3 "바보라든가, 조선인은 어쩔 수가 없어 라든가"의 의미.

개벽(開闢)

만일에 내가 아픈 곳을 아프다고 하였다가는 내 곧 너에게 별을 주리라.” 고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과연 환자는 그 의사를 신용하고 복종하겠는가? 진실로 성의를 다하여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면 먼저 그 환자에게 병난 원인과 아픈 곳을 자세히 물어 하고 싶은 말을 다 시켜서 상세히 들은 뒤에 투약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治者나 被治者의 관계도 또한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우리는 금융기관인 은행이 있다. 생활이 풍족하고 재력이 많이 있는 사람이 手形을 振出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모든 은행은 總動令을 만난 듯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惟恐不及하여 行員이 돈을 메고 그 집에게까지 가져다 바치지만 그렇지 못한 빈곤자가 무엇이라도 하여 糊口나 해결할까 하고 전당물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서 대금을 구걸하면 상당히 가치가 있고 어디로 보던지 무슨 일이 생기던지 은행에서 손해는 보지 아니할 것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어렵게 말을 붙여 거만을 피우며 별별 까다로운 짓을 다 시키며 이상한 수단으로 놀려보는 것이 그네들의 취미로 알고 소일거리로 여기면서도 어디서 공산주의를 선전하느니 사유재산의 불가함을 부르짖으면 곧 큰일이나 날 것 같이 자기의 조그마한 私財나마 없어질까 야단법석을 친다. 한 가지 단체에 들어가 문화사업에 손을 뻗친다. 부회장은 회장에게 이유 없이 굽실거리지 않으면 신용을 하지 아니하고 총무는 그 밑 사람이 아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그 단체에 좋은 의견을 발표하고 사무처리를 잘하더라도 그것을 배척하고 비방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은 보지 않고 그 아침만 보아 그 사람의 일까지 방해가 되게 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그 사람이 이에 낙담하고 실망하여 風打竹浪打竹으로 되어 가는 데로 저 이들의 하는 일만 보고 있으면 그때는 다시 테뵈

게 들고 마나니 냉정하니 하여 수근거리는 것이 이 우리들의 여러 단체의 현상이 아닌가?

여기에 학교 生徒가 있다. 그 어떠한 생도가 제일 교사에게 신임을 얻는가? 물론 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방정하면 곧 그 학교에 서는 제일 좋고 신임하는 학생이다. 그러나 학생의 성적은 임시적 모략으로 선생의 성질을 알아서 시험문제에 날만한 것만 기억하여 문제나 마치고, 선생 앞에서 장난이나 덜하면 곧 그 학생이 제일 그 학교에서 좋은 학생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학과나 공부하고 자기가 즐겨하는 장난을 하여 선생에게 아첨을 못하고 비위를 맞추지 못한 까닭에 나는 이번 졸업시험에 낙제를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생 헤어지지 못할 불행의 길에 빠졌습니다. 학교는 나의 兩親사이에 애정을 없이 하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出路를 막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면 감옥에 가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학교가 나를 감옥에 넣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선생은 나를 아무쪼록 공부를 잘하여 후일 사회에 활동할 인물이 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대로 자기가 후에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자 하는 그것만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성적은 평균점이 부족하다고 낙제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마음에도 없고 후일에 그 방면으로 가지 아니할 것을 시험의 평균점만 바라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학교는 사회에서 활동할 인물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고 시험점수만 바라는 곳입니까? 교육자는 인재를 바라지 아니하고 아부만 바라는 곳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일어나면 교육 당국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사회나 또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가 자연의 사람을 부자연의 계급과 等分으로 구분지어 이 세상에서 낙오자를 만들며

개벽(開闢)

인정의 美點을 저해하고 사람의 天分을 말살하여 不自然한 세태에 살아가기 적당한 부자연의 인물을 이 사회가 만들고 학교가 양성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으로 가장 이상인 체 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자제를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부자연한 인류가 이 지구상에 생존하여 있는 동안 영원히 저버리지 못할 사실이라고 할까? 일찍이 부자연의 교육을 받고 또 부자연한 사회에서 성장한 우리들이 불자연한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부자연한 後生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또한 가장 순리이고 당연하며, 진실한 교육가이고 적절한 社會客이라고 할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사회! 이러한 인류의 생활상태가 과연 진실한 사회이며 진실한 인류라고 할 수가 있을까? 만일 이것이 진실한 사회가 아니고 진실한 인류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단속하라고 부르짖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단속이라고 하면 요사이 유행하는 경찰서에서 不逞鮮人이나 위험 사상가로 미리 짐작하고 포승줄을 풍문이 차고 거미줄치듯이 벌여 설는지도 모르지마는 지금 내가 단속해야 하겠다는 것은 그러한 단속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들이 이제 단속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하되 가장 非危險思想, 가장 溫順的, 忠勤的, 慈善的이라고 자임하는 그네들을 단속하여야 하겠다는 말이다. 그러하므로 이 단속을 의뢰할 곳은 경찰서도 아니요 경무국도 아니다. 오직 자연의 그것이며 美일 뿐이다. 그러하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회, 이러한 인류를 단속하는 데는 美라는 그것을 토대로 삼지 않으면 안되겠다.

만일 인류라는 그 집성체 중에 美라는 것이 있고 사회라는 그 바닥에 美라는 그것이 깔렸다면 이 사회에 무슨 불평이 있으며 이 인류에 무슨

올분이 있겠는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것처럼 美라는 그 物件, 무슨 힘도 없고 무슨 신통한 점도 없는 것 같지마는 과연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怪異치 않은 것이다. 근대의 물질 문명상으로 보면 네가 부르짖는 美를 몰각한 이 현상에도 그 어떠한 장애를 느끼지 못하겠다. 그렇지만 인류 공존의 의의를 보면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여기에 가장 다수 人衆의 처지를 대표할만한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이 조그만 지위를 얻었다는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과의 사이에는 自慢이라는 것과 階級이라는 것이 있을 뿐이요, 美라는 것은 조금도 없다. 상당한 典當을 가지고도 금융가라는 사람을 대하면 거기에는 오직 내가 부유하지 못한 것만 보이고 美라는 것은 볼 수가 없다. 이제 아픈 곳이 있다. 그것을 하소연하러 의사에게 가면 다만 管理의 위대한 세력만 볼 수가 있고 美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다. 俗談에 이르기를 목숨이 포도청이라고 하였다. 입에 풀칠하기 위하여 근근이 애걸복걸하여 신문이나 잡지사에 末席 기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駭 눈도 뜨지 아니하고 자기가 맡은 일만 부지런히 한다. 정직한 마음에 나는 일하러 왔으니 내 맡은 일이나 잘하면 그만이지 구태여 남에게 꾸벅거리며 아부할 것이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사장도 있다. 편집국장도 있다. 각부 부장도 있다. 비로소 거기에 “쾌썸한 놈, 고약한 놈”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지만 美라는 것은 볼 수가 없다. 어떠한 단체에 참가하여 공공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 순박한 청년이 있다. 거기에는 당파도 있고, 지방열도 있으며,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다. 그러나 회장, 총무는 회장, 총무이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진행에 유익한 일에 최선의 노력만 다 하였으면 그만이지 회장이면 어떠한, 총무이면 어떠한, 당파이면 어떠한, 지방열이면 상관있다. 나

개벽(開闢)

할 일이나 하자 하고 열심히는 그 사람에게도 회장의 권리, 총무의 위력, 당파의 세력, 지방의 膂力으로 투기, 질시, 배척만 받을 뿐이요 美라는 것은 볼 수가 없다. 출신의 길을 얻고 지식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여 학교에 입학하였다. 공부하고 열 몇 과목을 공부하며 마음에 愉快한 장난을 하였다. 그것이 선생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장난이기 때문에 품행점수가 없다. 出身할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였지마는 그것이 선생의 마음에 들지도 않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에게 합당치도 않은 공부까지도 선생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졸업시험에 낙제를 하였다. 거기에서 비로소 부자연스런 것이나 선생에게 마음에도 없는 아침을 못한 것이 누우쳐진다. 거기에 무슨 美라는 것을 구경하겠는가? 이제 학교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으며 모든 사회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였는가? 현재에 모든 방면이 美와 반대되는 우리의 이 세계는 물질문명으로 증미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누구나 다 “돈만 있으면”, “은 세상을 다...” 이렇게까지 우리들이 부르짖게 되었다. 아아! 참으로 그러할까? 그 정신계는 과연 아무 것도 없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보라, 이 정신계의 맹렬한 잠재력을! 그 동요함이 얼마나 큰가? 불평, 불안, 공포, 분노, 반역, 혁명이라는 것이 모든 물질문명의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아니한가? 깔려만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방면에서는 이미 폭발되어 소위 문명인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뿔어내지 않는가? 보라, 과거의 歐洲大戰과 露西亞(러시아)의 혁명이 이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그러나 만일 이러한 전쟁과 혁명을 대포나 총검으로 制定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것처럼 두려울 것이 없다. 동시에 이 같은 일이 결코 인간의 眞·善·美의 정신을 자격할 큰 物件은 아닌 줄 알 것

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병력으로 제어할 불평은 것처럼 두려울 것이 없다 하기 때문에 일부의 방관자는 한갓 구경거리로만 알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을 생기게 한 것은 불평 그것이 아니며 불안 그것이 아니고 공포 그것이 아니며 분노 그것이 아니고, 또한 반역과 혁명 그것이 아니다. 사실은 물질문명의 반동으로 일어나는 자연의 충동이다. 바닥에 잠재해 있는 醜態의 반발이다. 인생의 본능적 발동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가벼운 감정에 지나지 못한 것이다. 憂國者나 治者가 이것을 중대시하고 우려하는 것도 또한 이러한 충동을 일으키는 자와 동일한 인격자요, 한 테두리 안에 넣을 물건이다. 물론 균중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파괴할 힘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그 균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단이 되어 어떠한 것을 파괴는 하지만, 그 균중이 파괴할 때마다 그것이 善인지? 惡인지? 美인지? 醜인지? 그것은 분명치 않다. 이것을 균중심리의 응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균중심리는 一部人의 이용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평과 분노는 두어 張紙錢만 가지면 곧 그 마음도 살 수가 있고 제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불평과 공포는 비밀과 범죄라는 것으로 항상 물질에 一貫하여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위를 주어 보지? 어려움 없이 그 사람을 좌우할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금전이나 이러한 지위로 좌우할 수 있는 그네들의 불평과 분노는 인류를 위한 불평도 아니고 사회를 위한 분노도 아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눈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례를 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네들의 부르짖는 모든 것이 저보다 적어 영리한 불평자를 이용하여 자기의 불만스런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는 우

개벽(開闢)

리 이 사회에 모든 청년 신사! 민족을 위하여 일한다는 그 사람보다도 제일 믿음성 있고 착실한 사람은 천치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싶다. 이러한 불평가, 분노자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어떠한 방법을 취하던지 또는 어떠한 형식에 의하던지 모두가 다 추태이요 美가 아니다.

이렇게 美가 없고 동정이 없는 이 사회는 전날 사람들이 훗날 사람들을 그러한 典型에다 挿入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乙도 甲에게 이러한 냉정을 받고 아부를 하고서 요만한 지위와 요만한 금전의 소유자가 되었으니 나도 丙을 대할 때에는 그러한 軌道를 밟으리라 하는 것이 모든 이 사회의 현상이요 이 인류의 행동이다. 우리는 영구히 이러한 사회를 계속하며 이러한 인류를 教養하고 말 것인가? 이러한 상태-이러한 추태가-無限히 대대로 이어가는 날은 우리 인류에게 다시 견잡을 수 없는 爆發이 생길 것이다. 그때는 지위를 주어도 구할 수가 없을 것이요 금전으로도 제어치 못할 것이며 그외에 법률, 감옥, 경찰서 같은 것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만일에 이러한 행동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근본적 결함이 무엇인가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美의 고갈이다. 이러한 고갈 하에서 처량한 생활을 겪어온 우리 인류는 멀지 않아 서로서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내부의 사업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때에 그 發育을 저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는 용서없이 격파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언뜻 보면 한낱 반항 같지마는 이러한 반항이야말로 인간본래의 자유를 구하는 정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美의 발동이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본의는 아니지만 자식이 애비를 단속하고 학생이 교사를 단속하며 하급자가 상급자를 단속하는 가장 순리에 어긋난 현상까지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모든 美를 보전하는 자는 현상의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는 그 사람이 아니 될 수가 없다. 만일에 자식이 부친을 단속하고 生徒가 교사를 단속하며 하급자가 상급자를 단속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누구나 다 부자연의 짓이라고 하겠지? 어디로 보던지 아버지가 자식을 단속하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단속하며 교사가 학생을 단속하는 것이 자연의 짓이고 순리의 노릇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가장 자연적이고 순리적인 짓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자연적이고 순리적이라고 하는 거기에 믿음을 둘 수가 없다.

생각해 보라.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사회나 어떠한 곳을 물론하고 무슨 일을 종사할 때에 처음에는 자기의 자신도 있고 자기의 신조도 있어 그대로 착수해보면 거기에는 위가 있고 상급자가 있다. 일이야 좋던 그르던 상급자의 명령이 아니고 복종이 아니라고 이것을 못하게 한다. 한번, 그리고 두번, 세번, 네번 이러는 동안에 차차로 자기의 신조나 이상이 사라져 버리고 오직 그 상급자의 비위만 맞추기에 눈코 뜰 사이가 없어지고 만다. 여기에서 소위 상급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리한 체하며 모든 부하나 하급자를 자기가 부러먹기 좋은 사람,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을 만들고 만다. 다시 말하면 我慾的, 기계적 인물을 만들고 만다. 거기에 무슨 자신이 있으며 신조가 있겠는가? 이러한 가운데 서로 깨달음이 있다하면 상급자는 하급자를 단속하는데 압제로써 할 것이요 하급자는 상급자를 단속하는데 반항으로서 할 것이다. 이러한 압제와 반항은 서로 적대행위와 같으나 兩者의 사이에는 背進的 間隔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압제가 진리라고 하자, 거기에는 我利的 욕망이 있을 것이고 반항이 진리라고 하자, 거기에는 희생적 의협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벽(開闢)

압박과 반항이 어디서 기인되었나! 무슨 까닭으로 반목, 질시, 원망과 탄식, 저주를 생기게 하는가? 거기에는 美가 없는 까닭이다.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라. 적으나마, 빈약하나마, 넉넉치 못하나마, 변변치 못하나마, 그래도 여러가지로, 각 방면으로 시설이 있고 排置가 있다. 종교가도 있고, 사회 개량가도 있으며, 부호도 있고, 실업가도 있으며, 교육가도 있고, 操觚界도 있다. 그러나 그네들이 과연 우리를 참으로 구제할 무슨 방책이 있는가? 종교가가 있어서 천당을 說하며 극락을 가르친다.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기도나 잘하고 찬미가나 잘 부르면 곧 천당을 갈 수가 있다고 한다. 부처님에게 불공이나 자주하고 염불이나 부지런히 하면 극락을 갈 수가 있다고 한다. 그것이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하지만 이런 말을 가르치는 그네들도 그 몸뚱이나 이 몸뚱이에는 영혼 뿐 아니고 육체도 있을 것이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너는 종교가이니까 굶고라도 벗고라도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옳을까? 내일 아침 밥거리가 없다. 병든 처자와 어린 자식이 울고 부르짖는 소리는 차마 보고 들을 수가 없다. 죽어 천당에 가는 것보다도 살아 지옥은 면해야 하겠다. 그것을 면하려고 밥거리를 변통하기 위하여 저녁 기도에 참여를 하지 못하였다. 곧 목사는 그를 지목하여 신심이 약하다 종교계에서 믿을 수 없다고 배척을 받게 된다. 이승에서 하도 고생이 많았으니 내세에나 좀 편할 마음으로 열심히 염불을 공부한다. 될 수만 있으면 하루가 멀다고 불공들여 정성을 다하고 싶다. 그러나 넉넉지 못한 그의 처지에서는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가 염동설한에 군불을 많이 때고 煖爐가 녹도록 석탄을 지퍼도 오히려 춥다고 하는 이때에 아직도 배웃을 벗지 못하였다. 仝禮에 仝參佛

供이라도 할 수가 있을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벌써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신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절에 가도 주지라는 사람 코도 들쳐보지 않게 된다. 나는 眞·善·美를 표방하는 종교계에서도 먼저 美라는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 사회 개량가가 있다고 하자. 모든 아름다운 文句를 지어내어 풍속개량, 허례폐지, 근협저축, 절식장려, 이러한 것을 만들어 모든 인류를 操束하고자 한다. 결코 이러한 것이 그른 것은 아니오,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사회를 토대로 한 이 자리에서 풍속을 개량한다고 젊은 아내를 옆에다 바구니를 끼어 시장가에 내어 보내 보라. 그 동네에서 소위 행세한다는 사람이 누가 입이나 섞으며 상종을 하겠는가? 허례를 폐지한다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마음에 없는 거짓이나마 고개를 굽신거리지 아니하여 보라. 그날이 다 못 가서 곧 그 사람에게 배척을 아니 받을 것인가? 勤儉貯蓄을 한다고 弊衣破笠에 남을 대해 보라. 곧 그 사람에게 下待를 받지 아니하나. 그리고 하대만 받으면 오히려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이 방문한 목적까지도 수포로 돌아가고 한마디 이익이나 신용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절식을 장려한다고 밥 대신에 비지를 먹고 반찬대신에 손가락을 빨아 보라. 온 세상은 그 사람을 무엇이라 하는가? 좀팽이 놈 더러운 놈하고 지나는 친구도 인사를 잘하지 않으려고 하겠지? 민영휘가 무병 옷을 입으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검소하다고 칭찬을 하겠지? 韓相龍이가 그 은행원을 보고 「합쇼」를 하면 아마도 껍 평민적이라고 그 은행사람들은 껍도 감사히 생각하고 남이 들으면 매우 가상히 여기겠지? 사회개량도 상급자의 그네들에게나 있는 사람 그네들에게나 할 소리지 하급자나 貧寒者가 개량할 거리는 무엇이 있으며 개량할 힘은 무엇이겠는가?

개벽(開闢)

나는 인간을 평등히 본다느니 개인은 자유가 있다느니 사람은 다 갔다느니 하고 것만 가지고 枝葉만 보고 떠드는 그네들에게 사회를 개량함에는 풍속을 개량함보다도 허례를 폐지함보다도 勤儉을 힘쓰는 것보다도 절식장려를 시킴보다도 먼저 근본적으로 토대로 모름지기 美를 발동시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富豪가 있다. 그네의 안중에는 국가도 없고 사회도 없으며 동포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다. 오직 있는 것은 금전 뿐이다. 자식도 없으며 조상도 없다. 될 수만 있으면 남의 피를 빨아서 다만 한 푼이라도 있는 그 돈에다 보태고자 하는 것뿐이다. 돈밖에는 눈물도 없고 피도 없는 동물들이다. 어쩌다가 그 자식이 돈푼이나 없애면 눈이 뒤집혀서 곧 신문지에다 광고를 낸다. “本人의 子 ○○가 性本 浮浪하여 무리배를 결탁하여 得債코자 하오니 내외국인은 切勿見欺하시오”라고 한다. 그러다가 그 자식이 반항을 하며 祖先부터 전해오던 재산이니 나도 그 자손된 이상에는 당연히 좀 쓸 권리가 있다는 의미의 말을 하면 천길이나 만길이나 뛰면서 인륜을 모르는 놈이라고 한다. 아비는 자식을 길어 性本 浮浪이라고 신문에다 광고를 하여도 그것은 인륜에 떳떳한 일이고 자식은 아비에게 視先의 遺來財産 좀 쓰자는 의미의 말만 하여도 그것이 인륜에 悖戾한 것이라고 될 수 있을까? 나는 이 부호에게도 美想을 鼓吹시키고 싶다.

여기에 실업가가 있다. 대개는 다 소장파이다. 그네의 명함을 보면 ○○회사 사장이니 그렇지 않으면 전무, 取締役이니 지배인이니 하는 전대미문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장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어려운 친구가 찾아가서 생활이 곤란하니 사원이나 한자리 얻어달라고 하면 길길이 態를 뽐고 돌아서게 해놓고, 변변치 못한 사람 지금 세상에 사내자식이 무슨 활동

을 못하여서 친구에게 돌아다니며 그따위 사원 같은 것을 求하고 있어. 다른 사람은 그 나이에 다 사장이니 전무이니 지배인이니 하고 있는데! 사람이 못생기면 할 수 없어. 어떠한 친구를 보고 "자네 요사이 무엇을 하나 어찌 그리 만날 수가 없는가?" "자연이 糊口하기에 奔走하여 눈코를 뜨지 못하네!" "무어 糊口하기에 奔走하다! 사내자식이 먹고 입는데 몸을 매어서야 무엇을 하나"하며 大驚小怪한다. 과연 그 말이 옳다. 남아가 糊口에 몸을 매고야 무슨 일을 하겠나! 그네들은 실업계에 상당한 지위를 얻고 주야로 경향으로 돌아다니며 무슨 회사를 할 터인데! 그 株를 모으러 돌아다니기에 분주하다. 그런 사람이 어떠한 친구를 보고 糊口하기에 분주하다는 말을 들으면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 무리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장이니 전무, 取締役이니 지배인이니 하는 그이들과 사원을 求하려고 하는 그이들이나 糊口에 몸이 매어 분주히 돌아다니는 그이들이나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인격이 못한 까닭인지? 지식이 못한가? 그것도 아니다. 다만 다른 것은 그 아비나 그 할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물려준 것과 현 빚자루 하나 물려주지 못한 것이지, 다른 차이는 아무 것도 없다. 있는 돈 쓰기는 하필 그 사람들이리요 아무리 天痴나 바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제 돈 내어 제 회사를 만들고 제가 사장이니, 전무이니, 지배인이니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능히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남보다 똑똑하여 그런 것도 아니요, 수단이 있어 그러한 것도 아니며, 그 배후에는 오직 조부모의 유산이라는 光彩가 비취었을 뿐이다.

다시 묻노니, 그네 실업가가 어떠한 福利를 우리 사회에 끼쳤으며 어떤 산업을 발전시켰나? 그네들의 하는 짓이 貸金會社가 아니면 貿易商이다. 선물 거래가 아니면 중개업이다. 그네의 하는 짓은 저물도록 은행에 다니

개벽(開闢)

며 어음 교환에 눈코를 못 뜬다. 1년에 수백만원 씩 주단포목을 외국사람에게 가져다가 두 손이나 세 손을 길러 겨우 畧少한 口文을 얻어먹으면서 어떻게 하여 우리 조선에도 이것을 織造하도록 하여 볼까 하는 생각은 꿈에도 없다.

하루에도 수 만석 조선 쌀을 외국사람의 손에다 넣고 口文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農産業을 개량하여 “조선마이와 요꾸나이”⁴⁾란 말을 듣지 않을까 하는 계획은 염두에도 없다. 돈 있는 놈은 속아도 돈 있는 놈에게 속는다. 향촌으로 돌아다니며 돈푼 있다는 그 힘과 회사의 중역이라는 光彩로 잔돈푼 있는 사람을 피여 虛慾이 많은 놈은 米豆場이나 주식거래소로 인도하고 그렇지 않은 놈은 자기의 수중에 넣고 우물거려 다 없앤다. 그네의 힘으로 우리 日用事物에 무엇이 하나 우리 조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쓰게 되었나? 그네의 바람에 어떤 것을 하나 輸入防止를 시켰나? 어려운 친구가 친신만고하여 작기는 하지만 발명한 것이 있어 그네들에게 자금을 대어 달라고 한다. 그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수 천원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네들은 곧 이해를 타산하여 성패를 米豆거래나 주식거래에다 비교한다. 그것을 가지고 米豆나 주식을 거래하면 하루에 수만원 수 천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줍스럽게 그것을 하고 있어 곧 거절한다. 그네의 뇌리에는 이 물건이 우리 조선 사람의 손으로 되니 참 가당한 일이다.

아무튼 좀 도와서 성공을 시켜보자! 그리고 또 자금도 손해는 보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 사회에 직접으로 간접으로 유익하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남이야 어찌 되던지, 사회야 어찌 되던지 안중에는 조금도 민족의

4 "朝鮮米は良くない"이며, "조선 쌀은 좋지 않다"라는 의미이다.

장래라는 것이 없다. 나는 이런 사람에게도 美의 枯渴을 蘇復시키고 싶다. 여기에 교육가가 있다. 모든 과학을 가르치며 처세술을 일러주고 形而上, 形而下的 모든 훌륭한 것을 가르치게 된다. 그러나 그 개체의 本能을 발휘시키는 것은 가르칠 줄 모른다.

시험적 應急記憶을 잘하는 生徒는 가장 선생에게 귀움을 받는 학생이며 신임을 얻는 생도이다. XX선생이 돌아갔을 때에 눈물을 흘린 사람은 나 혼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修身點數가 부족하여 낙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서 어린 생도가 물에 빠졌을 때에 나는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 물에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선생의 말대로 하지 않는다고 제일 불신임을 받습니다. 아무리 선생의 말이라도 내 마음에 없는 것을 어떻게 그대로 합니까? 내 양심을 속여 가면서 어떻게 고개만 숙이고 있겠습니까? 아아, 교육가는 인간의 본능을 무시하고도 이 사회의 아첨하는 인물만 만들기에 힘쓴다. 나는 이 교육자에게도 모름지기 美를 토대로 한 교육을 원하는 바이다.

여기에 操觚界가 있다. 신문이면 제1면으로 제4면까지 잡지이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 남의 신문의 번역이 아니면 자료 하나가 없다. 일본서 비행기가 만주를 가는 길에 여의도에 도착하였기로서니 그것이 무슨 중대사건이라고 3면 半面に 넘도록 대서특필할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우리 사회가 파란이 적다하더라도 3면 한 장을 채울 기사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신문에 번역을 기재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イロハ”⁵⁾나 알고 토만 붙일 줄 알면 어떠한 문제이던지 번역에 착수한다. 내용이야 알건 말건 뜻이야 무엇이던지 「シテ」를 「

5 이로하(いろは-[伊呂波])는 일본의 기초문자인 히라가나 47자를 말함.

개벽(開闢)

하여」로 고치고 「ハ」를 「은」으로 고치기만 하면 곳 훌륭한 번역가가 된다. 이것이 제삼자 되는 독자에게 무슨 共鳴이 있겠는가? 잡지를 보라. 제목만 보면 무엇 무엇 훌륭한 것이 나열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 문제 밑에는 불과 2면이나 3면에 지나지 못한 것이다. 긴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짧은 것이 반드시 내용이 없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너무도 空名뿐이다. 남의 고생하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哀話라 하여「로망스」의 대가로 자처한다. 무슨 일을 첫 번부터 끝까지 죽 적어놓고 소설이라고 하여 소설 대가로 자처한다. 문답을 늘어놓고 각본이라는 제목을 붙여 놓으면 극작 대가라 자처한다. 「로망스」면 「로망스」 六範에 있을 것이요, 소설이면 소설의 자료와 사건취급이 있을 것이요, 각본이면 각본의 형식과 기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도 美의 枯渴이 그 양심을 가린 까닭이다.

여러분! 여기에 공산주의를 선전한다고 하면 上級の 인사 유산계급의 모든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벌벌 떨겠지? 사회주의를 강연한다고 하면 軍刀를 늘이고 에워싸겠지? 나는 이런 감상을 무엇보다도 좀더 順次로 쓰려고 하였으나 너무도 길겠기에 이만 붓을 놓으려고 한다. 우리 사회에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나 美가 고갈된 이 현상으로는 모든 것이 살풍경이다. 이러한 살풍경에서 영원히 우리 인류가 이대로 이 현상대로 平穩無事하게 잘 살아갈까 하는 것이 의문이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너나할 것 없이 사람과 사람에는 外部로는 가까워지면서도 外部로는 멀어지는 것 같다. 입으로 仁義禮智 孝悌忠信을 부르짖지만 아마도 그것이 참으로 양심에서 우리나라오는 것 같지 않다. 이 세상의 현 상태를 맞추기 위하여 수단을 쓰는 것 같다.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매우 먼 거리에서 서로

서식하는 것 같다. 그네들의 행위에 인간 본래의 純眞性이 추호도 없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현재의 이러한 민족이 집합하여 생활하는 이 사회에서는 대포도 필요하겠지? 압박도 필요하겠지? 억울한 것을 참는 것도 필요하겠지? 우리 인류는 될 수 있는 데로 治者가 미덕이라고 자인하는 그 습관 하에서 가장 온건하게 생의 행복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어느 때까지 계속할지 그것이 의문이다. 만일에 현재의 이것이 생존적 本望이 아닌 줄 알게 되어 거기에 부자연을 감각하고 압박을 의식할 때에는 참으로 반항적 改造가 일어날 것이다. 이럴 때에는 대포도 쓸데없을 것이요, 금전도 그 효용이 없을 것이요, 지위도 그들을 달래지 못할 것이다. 만일에 백년의 대계를 세우는 위정자가 있다 하면 미연에 이것을 막을 방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무엇으로 그네들의 심령을 불리 주어야 하겠는가? 이것을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예술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술이라 하면 서화를 벽에 붙이며 소설을 耽讀하고 연극을 날마다 구경한다는 말이 아니다. 예술이 인생에 대한 사명을 이해시키는 그것이다. 예술은 인류생존의 美를 窺知케 하는 수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큰 예술은 큰 인생을, 작은 예술은 작은 인생을 美化케 하는 힘을 가진 것이다. 일반이 생각하는 無用의 것, 사치의 것, 그 이상에 무슨 필요한 물건을 감추어 있다. 인생이 어떠한 계급에 있던지 무슨 사업에 종사하던지 인간특유의 美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 본래의 행동에는 禽獸와 다른 美가 자연적으로 노출하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작고 아름다운 순(芽)을 싸고 있는 肉體의 출현이다. 그 아름다운 순을 생명이라고 한다. 그 발육과 동작은 우리들의 인간미를 감지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세상과 같이 하급자가 상급자를

개벽(開闢)

대하던지, 무식자가 유식자를 대하던지, 無產者가 有產者를 대하던지, 평민이 귀족을 대하던지, 信者가 教主를 대하던지, 학생이 선생을 대하던지, 자식이 애비를 대하던지, 아우가 형을 대하던지, 백성이 관리를 대하던지, 거기에는 美가 없고 추태뿐이다. 互相扶助의 미덕이 없다. 서로 반목하지 않으면 배척하고 서로 멸시하지 아니하면 妬忌나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지금의 인류들은 생존경쟁이라고 한다. 과연 우리 인류가 이러한 생존경쟁을 목표삼아야 하겠는가?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아니 인류사회에는 모름지기 「美로부터」라는 말을 부르짖지 아니할 수가 없다.(完)

▷『개벽』 제37호, 1923년 7월 1일.

기사제목 : 隨聞隨見.

〈교활한 부호의 常習〉

子爵 민영휘씨는 금년 봄에 定州 五山學校 校舍를 건축하여 준다고 同校 관계자 李昇薰氏에게 明言하고 또한 이 사실이 세상에 발표되면 각지의 기부청구가 답지할 터이니 비밀에 부치라고까지 부탁하였다. 李氏는 閔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定州에 내려가서 그 학교 건축 설계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閔子를 방문한 즉 閔子는 某親友와 같이 바둑만 두고 본 척도 았다가 30분 이후에야 비로소 丁丁한 落子聲을 멈추고 입을 열어 말하기를 말이 校舍문제에 이르렀는데, 결국 閔子는 전에 승낙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거절하였다 한다. 아, 이것이 부호의 교활한 상습이 아닌가.

▷ 『개벽』 제39호, 1923년 9월 1일.

필 자 : 小春

기사제목 : 사상과 경향

〈西조선의 수해와 閔大監〉

평양의 수해가 한번 신문지상으로 전하매, 閔泳徽 대감의 小米 100석, 金 1,000원 惠贈의 소식이 이어서 신문상으로 전해졌다. 뜻내기의 세상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민영휘, 돈 잘 쓴다. 모으기야 어떻게 모았든, 쓰기만 잘하니 좋다고 하여, 민대감의 성루는 또 한번 굳어지는 감이 있었다.

민씨의 오늘의 그 富가 한때의 평양감사로, 惠堂大監으로 있을 그 때에 民財(주로 평안도 사람의 것) 國財를 橫取해서 이뤄졌다는 것은 神들이 공히 다 알고 있는 바로 重言할 바도 아닌바, 그가 행한 것을 말하자면, 자기의 전 재산 전 생명을 희생하여서 國家民人의 앞에 伏罪할지라도, 오히려 부족함이 있겠거늘, 西鮮의 民人에게 대해서는 더구나 그러함이 있겠거늘 이제 몇 섬의 五穀과 몇 원의 金으로써 자기의 체면을 칠한다는 것은 아무리 민대감의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 야비하지 않은가. 차라리 그 조와 그 金을 환수하여 자기의 이기주의에나 철저함이 옳지 않을까. 남의 소유를 白晝에 橫取도 하였거든, 자기가 준 것쯤이야 도로 찾아오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 아닐까.

▷ 『개벽』 제43호, 1924년 1월 1일.

필 자 : 一記者.

기사제목 : 문제의 중심은 제도의 개혁에, 동맹휴학중에 있는 徽文
高普의 내막, 교육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저들의 陰邪

徽文高等普通學校의 동맹휴학사건은 本紙 제42호(癸亥 12월호)에 이미 약간 보도하였다. 나는 이 사건이 1일이라도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衰心으로 갈망하였다. 그러나 사건은 이것과 반대로 漸益擴大되야, 1·2·3·4학년은 전부 정학을 당하고 소위 주모자인 13인은 馘首의 비운을 당하게 되었다.

물론 학교당국자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고심하고 신중히 처리하였을 것이다. 또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던지 이번 학기 개학 초(1월 7일云)에는 일단락되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휘문고등보통학교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번에 비록 표면상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영구한 장래에 또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여 무고한 학생 및 직원의 다수 희생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희생이라 함은 물론 생명의 희생은 아님)

이렇게 말하면 혹은 나를 오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실로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위하고 同校 직원을 위하고 또는 조선의 교육계를 위하여 이와 같은 불상사가 영구히 絶滅하기를 절망하므로 꼭 말하고자 함이다. 이번 휘문고등보통학교 학생의 동맹휴학은 표면상으로 보면 단순한 교장

배척운동이나 이면을 자세히 보면 현 제도의 개혁운동이다. 즉 任 교장의 부정선수 가입사건은 일개 도화선에 불과하고, 평소에 학생이 同校 제도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많은 까닭이다.

원래 휘문고등보통학교는 민영휘씨의 단독경영이다. 閔씨가 同校에 대하여 다년간 막대한 금전과 幾分の 誠力을 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본래 세력자인 동시에 有産者이다. 또 구식 頑固派중에서도 老獪人物이다. 그가 학교를 설립한 것은 일반의 공익을 위함보다도 자기의 명예를 위함이 많고, 청년의 교육을 위함보다도 자기를 옹호하는 책략이 많다. 학교를 신성하게 교육하는 사회의 公器로 생각지 않고, 영리를 목적하는 무슨 농장이나 회사로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의 직원을 자기의 傭倖이나 門客과 같이 보고, 학생을 一玩弄物로 생각한다.

우선 그 학교의 명칭부터 신성하게 짓지 못해 근일 소위 효자열녀를 포창하는데 李烈徽 贈이니 金孝徽 賞이니 하는 추태와 같이, 자기의 이름을 표방하기 위하여 徽文이라 하였다.(勅命으로 命名한 것이나 사실은 其時運動한 것) 기본 재산을 내놓는데도 당당히 내놓지 못하고 자기의 望八壽年紀念名義下에 내놓고 (壬戌 6월에 자기 望八壽年紀念으로 현금 15만원, 韓一銀行 株券 5만원, 平原 安州 兩地 토지 140여만평을 기부함) 校舍를 증축하는데도 자기를 기념하기 위하여 사무실 門額에다 稀重堂이라 하였다. (閔씨가 70에 重建하였다는 의미)

또 그의 소위 학생 諭告文을 보면 구역(질)날 구절이 많다. 그는 먼저 학생에게 진정한 偉人이 되자면 實德. 즉 논리 도덕을 행함에 있다하고, 또 자기가 後生을 교육함에 20여 년간 誠力을 殫竭하여 학생의 一善을 들으면 喜不成眼하고 一惡을 들으면 食不甘味라 云云하였다. 물론 윤리와 도

개벽(開闢)

덕은 학생뿐 아니라, 누구에게든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闕씨로서 윤리도 덕(어찌되었든 재래의 倫綱이나마)을 주창한다는 것은 얼마나 해괴한 일일까, 마치 醉漢이 금주연설을 하고 매춘부가 정조를 논함과 같다. 氏는 과연 재래 동양 윤리 중 제일 중요한 君臣有義를 실행하였으며 사회민중에 대하여 어떠한 公道公德을 행하였는가. 학생의 一善一惡을 들으면 참으로 食不甘味하고 寢不安席하였는가. 옳지, 그의 주장하는 도덕윤리는 즉 자기에게 복종을 잘하고 절제를 잘 받으란 말이다. 학생이든지 직원이든지 또는 일반 無產者가 다 굴복하란 뜻이다.

좀더 솔직히 말하면, 그의 도덕은 진정한 도덕이 아니라 盜德이요, 윤리는 진정한 윤리가 아니라 綸利다. 食不甘味라 하는 것도 食前方丈이 너무 배가 불러 못 먹는단 말이요, 寢不安席이라는 것도 侍女美妾이 너무 괴로이 굴어 잘 못 잔다는 말인 듯 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不神聖하고 허위의 덩어리로 생긴 휘문고등보통학교가 어찌 제도인들 완전하랴. 즉 闕씨는 학생의 총장 명의를 대신하고 재정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사무를 다 간섭하며, 심지어 교원 黜陟까지도 임의로 한다. 그러므로 任 교장은 비록 명이는 교장이라도 실권은 총장에게 있다. 그나마 任 교장이 과단성이 풍부하고 자립심이 特有한 이 같다면, 비록 교장의 직을 관두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직접적으로 총장 또는 全 闕族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당연히 직권을 행사하여 학교행사와 闕씨 가사를 엄연히 구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任 교장은 원래 寬厚仁慈하고 충실 근면할 뿐, 극히 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지금까지 이르렀다. 물론 任 교장도 그 사이에 고뇌와 번민이 많았을 것이다. 그에 대해 世人은 비평하기를 無骨虫

이니 木偶人이니 하지마는 그는 결코 교장의 지위와 영예를 탐하여 금일에 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 굴복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만 인내하고 교육만 하면 효과가 있을 줄로만 생각한 것이다. 마치 농부가 똥내를 맡더라도 施肥만 하면 농사가 잘될 줄로 믿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학교에는 소위 간부제도가 있다. 즉 교장 任璟宰씨, 학감 張膺震씨, 교감 閔廣植씨로 조직한 삼두정치비슷한 제도가 있어서, 교내 一般事務를 모두 이 三巨頭만으로 처리하고, 기타 직원은 (專任教員 24, 囑托教員 6人) 교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다. 그러므로 교무가 항상 통일이 되지 못하고 학생의 훈련방법이 또한 일치하지 못하여 교육상 폐해가 많다. 이와 같이 휘문고등보통학교가 일개 세력단체로 변하였기 때문에 무세력자는 자연 양심에 不許하는 굴복, 아침, 附隨의 추대를 연출하게 되었다. 즉 간부는 총장 또는 총장가족, 문객에 까지 아침, 굴복, 附隨를 하고, 교원은 학교 간부와 총장가에 2중의 迎畱의 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하여 閔 總長이나 그 가족이 일차적으로 학교에 오면 귀중한 教授시간을 全廢하고 일반직원, 아니 학생까지도 出迎, 접대에 奔走不暇하고 심지어 소풍이나 여행할 때에 노중에서 閔씨의 祖先墳墓를 볼지라도 경례를 시키고 야구나 축구경쟁에 우승기를 취득하면 학생을 인솔하고 열광적으로 閔氏家에 가서 慶雲洞 천지가 떠나가도록 만세를 불러 閔氏 全 家族의 호기심과 환심을 샀다. 어떤 때는 閔氏의 부인이 불공하려고 가있는 永道寺에 까지 가서 만세를 다 불렀다. 그리고 그 학교는 근래 우승기 획득에 열중하여 학과에는 별로 힘을 쓰지 아니하고 운동에만 전력하였다. 물론 운동은 체육상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적당하게 장려치 아니하

개벽(開闢)

고 일시적 허영심이나 호기심으로 우승기 획득에만 주안을 두면 이것은 교육상 체육이 아니요 一個 賭博的 鬪技術이다. 학교 당국자는 이점을 생각지 않고 학생이 어떠한 행동을 하던지 운동만 잘하는 선수면 특별대우를 하였다(퇴학처분을 당하게 된 학생도 선수의 관계로 容許한 일이 있음).

또 閔氏家에서는 운동선수라 하면 칩사 아니 力士와 같이 대우하여 경쟁할 臨時에는 自家에서 숙식케 하고 갈비찜, 계란, 우유 등 滋養品을 배가 터지도록 먹이며, 우승기를 취득한 때에는 학생을 신분에 당치않게 자동차에다 막 싣고 明月館, 國一館으로 함부로 몰고 다녔다. 이것은 표면으로 보면 선수를 특별 대우함과 같지마는 실상은 마치 鬪牛나 鬪鷄를 좋아하는 俠兒가 자기가 승리하기 위하여 牛와 鷄를 잘 아는 것과 같다. 그나마 그 대우는 선수만에 그치며 다른 학생은 학과도 못하고 목이 쉬고 팔이 부러지도록 응원만 하여 선수(실은 선수를 養하는 者)가 배만 부르게 하였을 뿐이었다. 또한 同校는 시설이 불완전하다. 즉 허다한 경비는 운동비에만 지출하고 학과에 필요한 도서 실험기구 등의 구입은 등한시한다. (작년도 운동비는 8,000여원, 도서 기구 등은 불과 3,000여원).

형식상으로는 校舎의 광대와 운동장의 광활은 경성내 사립학교 중 제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내부의 시설은 不完不備하다. 마치 嘶腸한 乞人이 狐白裘를 입고 나체의 군인이 長刀를 찬 것과 같다. 이로 인하여 학생의 학과성적도 다른 학교보다 비교적 양호하지 못하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점이 평소 일반 학생의 불평과 불만이다. 古來로 文을 숭상한 나라는 文으로 弱하고, 武를 崇하는 나라는 武로 强하나니 국가도 또한 이와 같거늘 어찌하여 미숙한 학생을 교육함이리오. 즉, 휘문고등보통학교는 운동으로 학계

의 패권을 잡으려다 반대로 운동에 실패를 당했다. 2·3개년 연습한 「배트 방망이」는 유용하게 쓰지 못하고, 5학년 학생이 시험 보는데 위협하는 기구가 되고, (퇴학생 또는 정학생이 5학년 학생이 시험 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교문에서 棒으로 亂打한다고 위협한 일이 있음) 다른 학교와 경쟁하기 위하여 조직한 응원대는 조직적인 동맹휴학 단체를 성하게 만들었다. 이번 축구대회 때에도 당해 校의 당국자가 만일 우승기 취득에만 眩惑치 않았다면, 부정선수를 가입하는 추태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요. 또는 일반 학생이 평소에 任 교장을 불신임하였다 할지라도 배척운동이 그렇게 突發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참 同校를 위하여 애석한 일이다.

그러면 이번 사건, 그 죄가 운동에 있다 할까, 또는 학생의 망동이라 할까, 교장의 失態라 할까, 물론 교장의 실패도 학생의 망동도 망동이요, 운동만 장려한 폐해도 폐해다. 그러나 그 죄는 全然 上述한 제도의 불완전에 있다. 배척을 당한 교장과 퇴학 정학을 당한 학생은 당초 그 제도의 불완전한 결과로 희생에 이바지 한 것뿐이다.

나는 同校의 설립자가 충분히 猛省하여 학교를 自家 사유물로 생각지 말고, 절대 神聖한 公器로 생각하여 萬般의 일을 학교 당국자에 전임하고 간섭치 말며 또는 학교 당국자도 일시적 수단이나 交際로 설립자의 의사에만 부응할 것이 아니라 엄연히 자립하여 교육상 체면을 유지하고, 좀더 성심성의를 다하여 일반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학생이 비록 오해 망동이 있을지라도, 부질없이 校規에 의하여 퇴학이나 정학 처분하는 것을 직권으로 생각지 말고, 自求自省하여 일인, 또는 수명의 체면관계로 전도양양한 학생의 일생을 그릇되지 않게 하길 바란다.

개벽(開闢)

▷ 『개벽』 제43호, 1924년 1월 1일.

기사제목 : 皆自新乎-최근 一年中の 사회상.

〈多樣的 문화운동〉

이와 같이 폭력을 부르짖는 일면에는, 春風麗日과 같은 기개를 가진 듯한 문화운동이 또한 그 틈새를 彌縫하였다. 조선기독교 중 北감리교에서는 12,000원의 예산으로써 裴亨湜목사 이외 남녀 선교사 10인을 平壤장로교회에서는 장로 高鎭翰씨를 西伯利 연해주지방에 委送하여 贖罪救靈의 하나님 일에 몰두하려 하였으며(결과는 실패였다고 한다).

9일에는 청년연합회 안에 조선 물산장려발기준비총회(後 20일 발기회)가 열려, 土產獎勵, 禁酒斷煙의 첫 기세를 보였으며, 조선 一富 민영휘씨는 예의 有産家다운 老獐의 수단을 마음대로 다루어 년 10만석 이상의 賭租를 바치는 소작백성들에게 올해부터는 추수의 半分(여태까지는 물론 반 이상)만 바치게 하되, 종래의 숨쁨을 勤農이라 하여 크게 무마책을 발휘하는 척 하였으며, 총독부에서는 신년 초 인사로 각 도의 경찰과장 회의를 열어 특히 새로 발발하는 사회주의의 사상 취체에 관한 논의를 행하였으며, 13일에는 조선 수산의 개량 발달을 옹한다는 이름 아래 조선 水産會를 발포하여, 水産會로서 水産 當業者의 자활기관 공공단체를 인정하여 해당 業에 대한 지배력의 조직적 발휘를 책략하고, 18일에는 30본산 住持會를 총독부 내에 열어, 각 寺의 사유재산 10분의 1씩을 지출하여, 교무원 중심의 재단법인을 조직케 하여 불교에 대한 간섭을 좀더 착실히 하였

으며, 지방 각 도에 대하여는 국유림 1만 정보 내외를 양여하고 도 지방 비로서의 造林을 함양케 하여 지방관청의 충실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개벽』 제48호, 1924년 6월 1일.

필 자 : 觀相者

기사제목 : 京城의 人物百態

경성은 인구가 많은 만큼 그 모양도形形色색이다. 짧은 시간에 일일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강 말해보자. 첫째, 醫師界로 말하면 「곰보」가 많은 것이 특색이었다. 安商浩, 池成允, 姜元永, 朴啓陽, 세브란스병원의 洪錫孝 諸氏는 곰보 중에서도 곰보였다. 元惠常씨도 準곰보는 되고, 요새는 北間島에 가서 있지만 金益南씨도 한목 빠지면 서러워 할 것이요, 劉秉泌씨도 행세할만하다.

참 경성의 의사는 곰보가 아니면 자격이 없다고 할 만하다. 그러면 新醫師 金容■, 劉洪鍾, 李潤載 諸氏는 어찌한가, 그 대신에 金君은 키가 커서 電線柱의 칭호를 듣고 劉君은 키가 짧고도 통통함으로 발발이 別名을 듣고 李君은 뚱뚱한 몸에 黑眼鏡만 밤낮 써서 올빼미 같다 한다. 울지 또 잊었다. 近日에 소식이 묘연하지만 朴宗桓씨의 난장이 키도 한 奇觀이다.

醫師界는 그만 두고 教育界를 보자. 휘문고보 교장 任環宰씨의 긴 얼굴과 6·7월 장마에 알갱이 다 떨어지고 우뚝하게 선 밀집대 같은 키도 볼 만하다. 학교 선생님을 姦生에 비(교)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先生이나 姦生이나 生은 一般인 즉 비해 말해도 무관할 듯하다. 그로 만일 기생의 婁竹

개벽(開闢)

葉, 金桂月, 昌寧 富豪 河在鳩의 愛妾된 金翠紅, 요새 또 기생이 되려고 들먹들먹한다는 尹玉葉 등과 一席에 회합하여 춤을 한번 춘다 하면 그들의 兩袖은 南山, 北岳의 소나무 가지를 툭툭 치고 그림자는 한강철교에까지 비칠 것 같다. 이것은 좀 (허)풍장이 말 같다. 그리고 普專 교장 許憲씨의 허울은 꽤 좋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作態의 애교를 부리지 말고 천연하게 행동을 하였으면 좋겠다. 그가 학교의 무슨 禮式을 할 때에 유창치 못한 일본말로 흉내 내어 “다다이마식기오하지마리마스”⁶⁾하고 살짝 웃는 것은 마치 素人劇을 할 때에 변장 여자의 목소리 같다. 그것은 그의 체격과 너무 不適合하는 일이다. 또 식사를 왼손으로 하는 것도 특성이었다.

말이 났으니까 말이다. 현 조선총독부 중추원 新 참의 前 교장 高元勳씨가 하이칼라 하려고 하는 것도 특성이었다. 그가 비단옷에 뒤발 막을 신고, 카이젤 수염과 同 方向으로 두발을 정리한 것이 좌우에 짝 갈려 붙이고 손에 반짝반짝하는 금반지를 끼고 清進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아무라도 純實한 교육자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하이칼라를 하려 하여도 머리에 망건자국이 현 城터 모양으로 잔뜩 난 데야 어찌하리오. 요사이에는 그의 「이바루」⁷⁾하던 수염을 깎고 純 東京 사람이 되었다. 또 보성고보 교장 鄭大鉉씨의 머리 빼들음과 여성적으로 말하는 것도 귀염성스럽거니와 「다루마」⁸⁾의 別名을 듣는 幹事 趙男熙씨도 똥똥하기로는 경성에 名物男이다. 그가 洪泰潤 생전에는 일개 徒弟에 불과하였지만 지금은

6 현대일본어로 “ただいま, 式が始まります”이며, “곧 식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이다.

7 현대일본어로 “威張る”이며, “뽐내다”라는 의미이다.

8 현대일본어로 [だるま]이며, [오뎅이] 또는 [달마처럼 손발이 없고 둥근 것]을 의미한다.

可謂 독보적이다. 논산 수학여행을 갔을 때에 은진미륵을 보고는 그도 자기 생각이 났던지 혼자 픽 웃었다.

그리고 연구성 많은 中央學校長 玄相允씨의 舊式 학구과 같은 노란 얼굴과 中東學校長 崔奎東씨의 살살거리는 것과 養正高普 校長 嚴柱益씨의 양복자세 좋은 것도 특색이거니와 敝新學校長 君芮彬씨의 아래턱 없고 코만 빼죽한 것도 一奇觀이오, 普成初等 교장 鄭道俊씨의 연령에 비하여 허리 굽은 것도 체격상 欠節이다. 同德女學校長 趙東植씨는 크기도 전에 늙기부터 하여 얼굴이 憔悴해 뵈고 눈이 항상 때꾼하다. 그러나 목소리는 비교적 크다. 학교 이야기를 하니 또 한 가지 생각이 난다. 전에 普成中學校長 시대에 일(本)순사의 별명을 듣던 朴重華씨는 무엇을 하는지 소식도 잘 들을 수 없고 소고집의 칭호가 있던 舊 普成專門學校長 尹益善씨는 宋秉峻伯의 小作人相助會 이사도 그만 두고 高飛遠鳥의 격으로 北間島에 가서 東興中學校長이 되었다.

그 다음에 언론계 인물을 보자. 東亞의 신임사장 李昇薰씨는 아직 無所聞 無所觀이거니와 전 사장 宋鎮禹씨는 하얗고 말쑥한 얼굴에 수염도 하나 없는 것은 마치 전에 宮中常侍郎과 같고, 李相協 君의 조금만 뭐하면 안색이 赤變하는 것은 너무도 신경질인 것 같으며, 朝鮮日報 대리사장(宋秉峻 代理) 南宮薰씨의 잔소리도 어지간하단다. 그는 노인이지만 픽 부지런하여 오전 8시경부터 저녁때까지 뻗뻗한 흰 수염과 헬긋 헬긋하는 매밀 눈이 모진 눈으로 편집실과 공장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無用의 잔소리를 하는 것은 일반사원이니 직공이 다 골머리를 흔든단다. 그래서 그를 늙은 고양이이라고 별명까지 지었다 한다. 그런데 그는 근래에 또 同民會 받기인이 되었다나. 고양이가 회를 좋아하기도 無怪하지마는 너무 먹으면 빠가

개벽(開闢)

걸릴 염려도 없지 않다. 時代日報 사장 崔南善씨는 근래에 變節을 하여 그의 특색인 미투리도 벗어 던지고 經濟靴, 흑 고무신을 곧잘 신으며, 쇠뿔 모자도 벗어버리고 중절모자를 쓴다고 한다.

신문 사장이 晝生시대보다는 물론 頭足도 좀 달라질 것이다. 아무리 순한 척 하여도 눈부터 심술궂다. 보기에는 「每申」의 洪木春 君이요 美男子로는 「東亞」의 韓基岳 君과 「每申」의 前 記者 趙岡熙 君과 「時代」의 玄鎮健 君이란다. 그런데 趙君은 얼굴이 조금 길어 江戸式 美人 같고, 玄君은 눈이 좀 암상스러워 활동사진의 毒婦 같다고 한다. 그는 요즘 時代日報에 가서 소설자료를 얼마나 장만하는지 모르겠다. 朝鮮日報에 있을 시대에 첫출신으로 茶洞 某기생과 한번 佳緣을 맺고 明月館 지점에서 뉘 초대연에 가서 못 먹는 술에 주정 한번 하고는 그것을 말뼉 울귀 먹듯이, 「타락자」니, 「술 권하는 사회」니, 「지새는 안개」니 하고 동일한 자료로 단편이지만 2·3편의 소설을 썼다. 사회에 경험이 적은 순결한 미남자로 그것도 容或 無怪다. 또 그 社에 있는 稻香 나빈 군의 허리 짤룩한 먹통참외 같은 얼굴도 하나의 異彩였다. 그가 몇 년 전에 安東 어떤 사립학교 교원으로 가는 길에 大邱에 들렀었는데, 그 지방 친구가 畚을 어떤 기생집으로 안내하였는데 주인 기생은 京客이라 하니까 어떤 하이칼라로 알았다가 급기야 상대하고 보니 稻香 君의 얼굴이 그다지 눈에 잘 들지 아니하였던지 동모기생에게 컷속말로 저러니까 무엇하러 大邱까지 와서 기생을 방문하누 하고 속살거리다가 그의 독특한 長技 泗泚水曲 부르는 것과 某某 소설의 작자라는 말을 듣고는 沈鬱하였던 기생의 얼굴이 점차 도화색을 띄웠다 한다. 이것도 한 웃음거리이거니와 開闢社에 金起瀝 君의 코 잘 흘리는 것과 方小波 君의 똥똥한 것과 李敦化씨의 서투르게 매는 양복 「넥타이」도 볼

만하다. 또 「天道教月報」社長 李鍾麟씨의 여기저기 덩석대는 것도 특성이 다. 좀 신중히 하였으면 좋겠다. 「新天地」주간으로 있던 白大鎭 君은 仁川에 가서 「新家庭」인가 무슨 잡지를 朴昌漢 君과 같이 경영한다더니 그것도 여의치 못하고 또 경성으로 왔다고 한다. 그의 姓은 白이지만 얼굴은 죽은 깨가 잔뜩 끼어서 대면할 때에 눈이 반들거리지 않으면 머린지 얼굴인지 구별할 수 없게 검다. 그리고 일본사람 같이 보이던 鮮于日씨는 「北滿申報」인가 어디로 가고 소식을 알 수 없다. 「東亞報社」에 입사 퇴사가 다 자세치 못한 李光洙 씨의 碧眼紫顏과 안장걸음 뒤뚱뒤뚱 다니는 것은 아무라도 알기 쉽다.

빼빼마른 언론계 사람의 말을 많이 하였으니 이제는 배부르고 기름진 실업계 인물은 어떠한가 좀 보자. 韓一銀行 頭取(은행장) 閔大植 君은 입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그의 愛妾도 가끔 상을 쟁그리고 妓生界에서도 「쿠사이」⁹⁾ 閔이라고 별명이 나서 아무리 금전을 많이 준다 하여도 모두 접근하기를 싫어한다. 그 동생 閔奎植 君은 얼병아리 같지마는 돈 많고 미국 갔다 온 덕에 화류계에서는 舶來閔이라고 명성이 자자하고 漢城銀行 전무 韓相龍 君은 똥똥하기도 하거니와 얽기도 꽤 얽었다. 그가 李完用 伯의 甥姪인 관계로 貴族銀行에서 전권을 행하여 지금은 상당한 지위도 얻고 상당한 신용도 얻어서 은행계에서는 名字와 같이 龍의 행세를 한다. 만일에 그 얼굴로 貧乏한 생활을 한다 하면 韓相豚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海東銀行 頭取 高啓河씨는 鐵原에서 이미 돼지 별명을 얻었으니 또 말할 것도 없거니와 商業銀行 理事 張斗鉉씨의 잘 떠드는 것과 쾌사도 어지간하다. 머리 생긴 것과 같이 둥글둥글한 호인이다. 그런데 속담에 사람이 좋

9 현대일본어로 [臭い]이며,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의미이다.

개벽(開闢)

으면 洞里 시아비가 열둘이라고 이번에 남이 원하는 바람에 멋도 모르고 同民會 받기인이 되었다고 한다. 은행가를 말하는 중에 有產家 몇 분도 말 좀 해보자. 지난 일기기는 하지만 韓圭高 씨는 孟子의 言必稱堯舜이라듯이 帝舜의 행사를 너무 흠모하였던지 寧邊집 형제를 다 作妾하여 살고 李鍾奭 君은 애첩에게 발가락 씻기기가 일수인데 그의妾 되었던 錦紅 누구 누구의 말을 들으면 돈이 아무리 산더미 같아도 냄새나는 발가락 빨기가 지긋지긋하여 못 살겠다고 한다. 이것은 무슨 오입쟁이의 짓인가. 또 李容汶 君은 3개월에 첩을 하나씩 갈아 들이는데, 여태까지 총계를 해보면 수십명이라 하며, 또 형제가 경쟁적으로 作妾을 잘 하던 李根湘 형제가 死한 후로는 張澤相 형제가 그뒤를 계승하였다고 한다.

그까짓 추잡한 자의 말은 그만 두고 변호사를 좀 보자. 崔鎮씨의 소년 백발과 朴勝彬씨의 在家時 내의에다 周衣만 입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거리 일 것이다. 劉文煥 君은 소위 各派有志聯盟會 진퇴문제로 朴春琴의 一拳을 피하여 그 우뚝하던 코가 아주 납작해졌단다. 申宇永 君의 방구 잘 꺾는 것은(武官學生時부터 방구참봉이란 별명을 들었다) 친구의 조롱거리요 金炳魯씨의 변론 시에 땀 잘 흐리고 침 거품이 질질하는 것은 그가 열심적으로 하는 기분이 보인다. 보성전문학교 우등 졸업생, 변호사 시험 장원급제, 前 판사 現 변호사란 굉장한 간판을 붙이던 支那式(중국식) 얼굴의 黃轍秀 君은 근래 소식이 寂然하고 목소리 剛剛한 張巖 씨와 연구바지에 키 후리후리한 李琮夏씨도 잘 볼 수 없다. 이외에 新進 변호사는 다음 기회로 밀고, 다시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兪星濬씨의 4척 미만되는 키에 1척이나 되는 行纏을 치고 다니는 것은 너무도 기이해 보이고 閔樞씨의 南北머리는 더구나 볼만하다. 呂運弘씨는 미국 유학을 하고도 상해에

오래 있어서 支那人(중국인)에 동화가 되었는지 치아는 참 안 닳는 모양이다. 언제 보니까 唐草가루와 과쪽을 잔뜩 저축하였다. 과하게 말하면 그가 귀국할 때 환영회에서 먹던 음식 부스러기가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이 들면 흥도 모른다고 어떤 하이칼라 여자와 寺洞에서 연애생활을 한다고 전해진다. 또 崔麟씨가 좌담할 때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는 것도 특색이며, 吳世昌씨가 沈默無言한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다고 본다. 언론자유가 없는 이 시대에 그것이 하나의 처세술인지도 모르겠고, 權東鎭씨의 자세도 참 좋거니와 金性洙씨의 體形이야말로 東京맞춤 같고 申興雨씨의 미남자라는 평판은 연령관계로 해마다 減殺되는 모양이다.

부인계로 말하면 조선여자교육회장 金美理士 씨는 원래 탄청이 일수였다. 당나귀 우는 것을 보고 하품한다 하며 午砲소리를 듣고 학생더러 방구 뛰었다고 질책한다. 알고 보면 그는 세상의 시비를 다 듣기 싫어한다고 하나님 손으로 좌우 鼓膜을 좀 틀어막았고 高普女學校 孫貞圭씨는 슬기 구멍이 많아서 [슬기가 많아서] 학생을 잘 教導한다. 그가 운동장에 있을 때에 여러 학생들이 그를 둘러싸고 서있는 것을 보면 마치 화초밭에 怪石 선 것 같아서 한 異彩를 띄운다. 또 조선여자청년회장 申알베트씨는 사회와 가정의 풍상을 많이 겪어서 연령보다는 머리가 너무 백발이 되었다. 그는 무슨 모임을 할 때에 뚱뚱한 몸에 목화 바가지 같은 흰머리를 서투르게 틀어 올리고 壇에 올라가서 어리광 찌는 것은 진짜 노인이라도 素人劇의 가장 노파같이 보이고 또 주머니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것이 그의 특색이며, 女子苦學生相助會長 鄭鍾鳴씨는 실체의 말이지만 방울 당나귀 모양으로 여전히 잘 돌아다닌다. 상조회 일도 바쁘고, 근래 받기된 여성동우

개벽(開闢)

회 일도 바쁜 와중에 신혼 초가 되어서 가정 일도 썩 바쁜 모양이다. 이곳에서도 紫色 저고리가 번쩍, 저곳에서도 紫色 저고리가 번쩍한다. 연약한 몸엔 일을 사양치 않은 것은 참 고맙다. 그러나 紫色 저고리는 그만 벗어 두었다가 다방 아씨나 주었으면 좋겠다. 朴元熙씨는 그의 실행이 과연 언론과 부합할지 모르지만, 主義도 상당하고 언론도 상당하다. 그러나 너무도 불평이 많아서 그러한지 音調와 기색이 모두 우는 것 같다. 또 勞働總同盟의 위원인 金燦씨는 短軀로서는 담은 비교적 크다. 그가 술이 좀 취한 후에 누구와 시비하는 것을 보면 水火도 마다하지 않는다. 동경에서 朴春琴 일파에게 칼을 맞고 이번 仁川에서 일본인에게 橫辱을 당한 것도 그의 성격의 소치라 하겠으며 李憲씨의 鬚髯도 청년으로는 꽤 많다. 그는 勞農主義를 연구하려고 러시아를 간다 하면 비록 冬節이라도 털목도리는 준비할 필요가 없겠다.

마지막으로 귀족들을 좀 말하고 그만 두자. 閔泳綺 男의 大學日藥은 광고가 잘 되었으니 더 말할 것 없고 尹德榮씨의 장군머리는 참 굉장하다. 그가 달밤에 樓閣골 꼭대기 아방궁이라는 칭호를 듣는 집 마당에 나서면 仁旺山 인경바위와 그의 그림자가 어느 것이 큰 지 알 수 없고 또 李完用侯의 손톱 물어뜯는 버릇도 이상하다. 매국하는 것도 그다지 容易치는 않은 모양이다. 그가 합병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손톱을 물어뜯어서 피가 다 났다고 한다. 그의 아들 新男爵 恒九 君의 입 실록대는 것도 불만하고, 宋秉峻 伯의 주먹질하고 말하는 것은 野心家의 기분이 보이며, 閔丙奭씨의 이마 찡그리는 것은 紅顏白髮인 좋은 풍채에 한 欠點이다. 또 민영휘씨의 능글능글한 것은 늙어도 여전히 여전하다.

여러분에게 실례의 말을 많이 하여 미안합니다. 그러나 前日 相書에도

사람을 佛像이니, 狗體이니, 무엇이니 하고 물건에 비하여 말한 것을 보면
過히 실례는 아니 될 듯 하며 또 돈 안 받고 보는 觀相이 그렇지 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시오.

▷『개벽』 제57호, 1925년 3월 1일.

필 자 : 起田

기사제목 : 죽을 사람의 생활과 살 사람의 생활

“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지, 암만해도 미친 사람이지. 그러나 그렇게
미칠 사람들도 아닌데…”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은 누가 미친 사람인지도 모를 일이지만요.

“미친 사람 뻥뻥한 어른을 가리켜 미친 사람이라고!” 과연 얼마나 우습
고도 괴상한 말입니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암만해도 그밖에 더 안 보이
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우선 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어른들을 봅시다. 자기의 땅이라고
는 송곳 세울 곳 없이 다들 남의 땅 남의 집에서 남의 빛을 얻어가지고
살 고생, 죽을 고생을 다해가면서 한해 두해를 지내가면 어떻습니까. 작년
이 재작년보다 심하고 금년이 작년보다 심하여 못 먹고 못 입을 일이 눈
앞에 뻥히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분네 속마음으로는 장래
의 石崇, 장래의 민영휘를 꿈꾸고 눈이 멀뚱멀뚱하여 있으니 이것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근 오륙년 이래로 우리 사람들에게 교육열이 왕성하여 최근의 통계로

개벽(開闢)

서 보면 조선 안에 있는 학생만도 약 오십만 명에 달하는데 이 오십만 명의 학생 자신들은 물론이고, 이 학생을 공부시키는 약 백만 명의 부형들까지도 누가 묻기를 “공부해서는 무엇하는 것이며 공부시켜서 무엇하는 것이냐.” 하면 만구일담의 대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면 벼슬하고 돈 모으지요. 그리고 이름나고 권세 얻고요…”

“공부시키면 벼슬하고 돈 모으고 이름나고 그리고 우리 집안이 그 애 덕에 호강하고…”

자, 머리를 가진 이는 누구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오십만 명의 학생이 벼슬은 어떻게 고루고루 할 수가 있으며, 또 있는 사람은 그냥 있게만 되고 없는 사람은 그냥 없게만 되는 이 판에 돈은 어떻게 그렇게 잘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못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못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벼슬, 벼슬, 돈, 돈하고 있으니 이것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에 벼슬 낮이나 하고 있고 또 어찌 어찌하여 월급 량이나 받고 있는 어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 과연 놀랄 일입니다. 서울이나 지방을 물을 것 없이 월급 생활하는 이들이 대체 지내는 양을 보면 억지 억지로 자기 일하는 곳의 사무시간을 치르고 나와서는 끼리끼리 작반하여 술 마시기, 장기, 바둑두기로 거의 일과를 삼고 있으며 그중에 경찰관이나 재무행정애 관계된 패는 불쌍한 백성들에게 거드름 피우는 것으로 일대 쾌사를 삼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일호의 반성이 없고 그저 이만하면 사람의 살림이 족한 것처럼, 또 이만한 살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자, 냉정히 생각합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우리 사람의 살림으로서의 더할 수 없이 좋은 것이며 또 그만한 생활

이나마 그에게 안정된 것이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행정 정리에서도 당한 일이지만 사령서 한 장이면 그만이 아닙니까. 이런 줄 저런 줄을 뻔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서도 이 연하의 태평은 자기네가 혼자 차지한 양으로 믿고 있으니 이것이 역시 미친 사람 중의 한패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제로라 하는 저문화운동을 말하고 실력양성을 주장하는 유행의 유지, 그 분네 말하면 일종 중산급 자유주의의 유지, 그 분네는 문득 입을 열면, “어서 교육을 보급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자. 그러면 다 되는 수가 있지 않느냐”고 하나니 교육보급, 산업발전, 물론 좋은 주장이지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더욱 경제적으로 나날이 빨라지는 조선의 오늘 형편에 있어 교육보급, 산업발전, 그 운동(달리 말하면 실력양성운동)이 조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겠습니까. 교육의 필요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교육을 하고 싶어도 교육 기관인 학교를 세울 힘이 없고, 또 학교는 세웠다 할지라도 그 학교에 다닐 학생의 뒤를 대줄 힘이 없어 못하는 것은 어찌하며, 또 산업발전을 도모하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뒤가 끊겨 저 권력있고 금력 많은 다른 企業者한테 눌러 결국 꺼구러지고 마는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또 커다랗게 산업이니 기업이니 하는 문제에 갈 것까지도 없이 우선 당장 그날 그날의 밥을 얻으려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 형편이 아닙니까. 부지런하고 검소하자고요. 글세 근본으로 일할 자리가 없고 먹을 길이 없는 바에야 부지런하면 어찌고 검소하면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조선 사람에게 실력양성운동이라는 것은 그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다른 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설혹 실력양성을 힘쓴다 할지

개벽(開闢)

라도 힘쓰는 그 정신은 다른 무엇을 이루어 가는데 보탬이 될 한 과정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말하면 곰 잡으러 가는 사람이 두 서너 그릇의 점심밥을 준비하는 모양으로,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실력양성이면 그만이요, 동시에 실력양성운동만은 이 형편 아래에서도 얼마라도 할 수 있다 함은 역시 일종의 잘못된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절대로 말입니다만 우리 사람들의 대다수는 우선 먹고 입고 따듯이 자고 계집질 하고 자손 낳아 길러 가면, 즉 이렇게 하여 그날 그날의 생활만을 해가고 보면 사람으로서의 살림은 다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 그 이상으로 더 큰 번민이 있고 더 고귀한 노력이 있느냐 하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서 빵 문제, 빵 문제 하나까 빵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빵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에게는 또 다른 노력이 없을 것 같이 알며, 더욱이 현재에 밥그릇이나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서 아주 그만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살림이 모두 그날 그날의 본능적 요구를 채웠음에 그칠 뿐이라 하면 근본으로 사람이란 것도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누군가 있어 “우리 사람은 그날 그날 먹고 입는 생활을 하는 것 외에 또 달리 생각할 것은 없으리라” 하면 나는 그가 완전한 일개 사람으로서의 情意를 가졌다고 할 수는 없는 동시에 역시 한낱 미친 사람의 미친 말 뿐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 글을 보아오는 사람에게에는 한낱 큰 의심(큰 웃음이거나)이 일어날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도 미친 일, 배우는 사람이 월급생활만을 생각함도 미친 일, 월급 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일도 미친 일, 실력양성을 고조하는 사람이 그 운동만을 생각함

도 미친 일. 거기에서 또 한층 범위를 넓혀서 먹고 입고 자고 놀고 하는 본능생활 만에 만족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도 역시 미친 사람의 미친 생각, 이렇게 말하고 보면 조선사람, 아니 세상사람 중의 누가 미친 사람이 아니며 제일 미친 사람이 되지 않는 표준은 어디 있겠느냐고, 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위에 말한 것은 반드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쳐 말하면 농사하고, 공부하고, 공부시키고, 월급 받고, 실력 키우고, 먹고 입고, 하는 그 일이 바로 미친 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농사하고, 공부하고 실력을 키우면 자기의 소원은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믿는 그것이 미친 일이오, 또 그렇게 월급생활하고 그날 그날 먹고 입고만 지내면 사람의 살림은 이에 極하였다고 믿는 그것이 미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환언하면 우리들은 어찌하여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에 대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느끼지 못하며, 그리하여 지금보다 훨씬 좋은 새 세상을 만들 엉뚱한 이상을 못 가지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번민이나 또는 主義를 가지는 것이 결코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말하면 당면의 이익)에 방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마치 어떤 농사짓는 집에서 그 농사를 지을 때에 “금년 가을에는 며느리를 데려 오고 사위 맞을 잔치가 있으니 모든 일을 좀 알아차려서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그 해 농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사짓는 그 집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함이 되고 격려함이 되어야 평년 이상의 수확을 얻게 됨과 같이.

사실 말입니다만, 사람은 그날 그날 살고 있는 그 생활 이외의 한층 더

개벽(開闢)

높고 크고 귀한 생활, 어떤 “理想이라 할까, 主義라 할까”를 憧憬 經營함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그날 그날의 살아가는 생활도 값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 뿐이겠습니까. 一動靜, 一語默, 一呼吸까지가 모두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와 같이 무슨 엄격한 고귀한 主義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설혹 어찌 어찌 되어 그날 그날에 하고 있는 생활에 무슨 변동이 생긴다 할지라도 평소에 길러오고 벌여놓은 주의세력, 그것만은 엄연히 존재하여 무궁히 전개되는 자기 생명의 초석이 되며, 나아가서는 시시각각으로 개벽되어 나가는 온 사회 온 우주의 主力이 될 것입니다.

내 말이 그래도 미답지 못하거든 당장에 생각해 볼 한 가지 실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백 천 만개의 잎파리가 있습니다. 그 잎파리들은 다행하게도 자기네끼리 푹푹 떨어져 그날 그날의 고식지계를 참으로써 옳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잎파리 그것보다 한층 크고 멀고 고귀한 나무 原體의 생명을 의식하고 단 하루의 햇빛을 받고 단 한 방울의 수분을 마시는 것까지도 자기의 현재생활을 위해서라는 동시에 그 나무 전체 생활을 위해서 힘을 잊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결국 그 잎파리들의 생활에는 큰 변동이 왔습시다.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어서 그 잎파리는 땅에 떨어졌습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잎파리가 정말 땅에 떨어지고 만 것이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떨어진 듯싶어도 정말로 그 잎파리는 그 나무 전체 생명 속에 歸化하여 삼월 봄만 또 돌아오면 작년부터라도 그 자리에서 또 피어날 것이라 하겠습니까. 당장 이 봄에도 볼 실제 예를 더 이야기 할 필요도 없겠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 그루의 나무로서 비교해 보면 16억인가 17억인가 되는 그 사람들은 아마 잎파리가 되고 이 사람들로서

조직된 인간사회라는 그것은 나무 원체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가까이 우리 조선 형편으로써 비쳐 보면 2천만이라 하는 이 사람들은 나무 잎파리가 되겠고 이 사람들로 조성된 혹은 조성될 조선사회라 하는 것은 아마 나무 원래 체격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변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조선으로 보나, 세계로 보나, 이 나무 전체에 벌기가 들고 독이 들었는데 그 나무를 한 끼풀 두 끼풀로 얹어매고 있는 여러 녀쿨들은 그 나무의 병을 덜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 보다 더 괴상한 것은 그 나무에 달려 있는 수많은 잎파리들은 그 나무의 전체 생명 또는 전체 병독을 의식치 못하고 그 나무 원체에서 똑똑 떨어져 나가서 그날 그날의 조그만 생활에 편안하려 하는 그것입니다. 대체로 그 편안이라는 것이 사실 얻어질 편안이며, 얻어진다면 또 며칠 갈 것이겠습니까.

촌에서 농사를 하거나, 도회에서 노동자가 되었거나, 또 장사를 하거나, 학교의 책보를 꺾거나, 관공청 은행회사에 품팔이를 하거나, 그밖에 무엇을 하고 있거나 우리는(사람 되어서는)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한 가지 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우주를 의식하여 그 의식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노력, 모든 생활을 그대로 들어 바치자 하는 그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장농이나 옷걸이나 또 책장 같은 살림 도구를 우리가 믿는 가정이라는 그 속에 차근차근히 들여놓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함은 결코 자기의 현재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 뿐이겠습니까. 온 사회 내지는 온 우주를 그대로 얻는 것이올시다.”(끝)

▷ 『개벽』 제58호, 1925년 4월 1일.

기사제목 : 형형색색의 경성 學生相.

이크-, 경성에도 요새는 학생이 꽤 많은 모양이다. 오전 8시 반이나 오후 3·4시경이면 이 골목 저 골목 할 것 없이 뻑뻑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모두 다 학생들이다. 그 중에는 귀 찢어지고 고름 떨어진 두루마기에 모자를 발탁 뒤집어쓰고 목도리를 회회 감고서 한 끝만 어깨 위에다 척 붙이고 다니는 小學生도 있고, 검정 통치마 흰 저고리에 울긋불긋한 실로 짠 포대기를 쇠덕석 모양으로 온 몸에 두르고 놋동이 같이 엉덩이를 휘저으며 참새처럼 재잘재잘 거리고 다니는 여학생도 있으며, 말쑥한 紺色세(비)루 양복에 사각 빨난 모자를 폭 숙여 쓰고 반들반들한 구쓰¹⁰⁾ 등만 굽어보고 다니는 전문학생도 있고, 윗저고리 짧은 양복에 脚絆을 치고 오동통한 볼기짜를 말 궁둥이 모양으로 울긋불긋하게 다니는 중학생도 있고, 새로 나온 송아지 모양으로 반들반들한 머리에 신춘유행의 캡을 척 쓰고 玉洋木 새 두루마기에다 금테 안경을 쓰고는 나도 인제는 신사가 되었다고 揚揚自得하는 술봉이 졸업생도 있고, 푸룻푸룻한 두루마기에 명주 목도리를 송아지 목달이 모양으로 허술하게 매고 모표없는 모자를 酒酌軍처럼 빼투로 쓰고 두 입을 짝 벌리고 이 서점 저 서점으로 돌아다니는 新入學生도 있다.

이 혼한 학생에게 돈을 받고 관상을 보와 주었으면 반액할인을 하더라

10 구두를 말함.

도 일시에 거부가 되어 민영휘 대감이 행랑살이를 하겠다고 찾아와서 굽신굽신 하겠다고만은 觀相牌를 부친 지가 벌써 1년 이상이 되도록 무료로 보와 주던 터에 어찌 학생에게만 특별히 요금을 받을 수가 있으랴. 예라, 그만두고 또 空者(공짜)로 봐주자. 그러나 그 많은 학생을 일시에 다 볼 수는 없으니 소학생과 여학생은 제외하고 우선 중등 이상의 남자 학생만 보라. 그들만 해도 수 천명 이상이니까 개인마다 다 볼 여기는 없다. 널찍한 훈련원 별판에다 모여 세운 뒤에 망원경과 照心鏡을 대고 최신 最奇한 大觀相法으로 전체 관상을 보자.

차렷하여라. 시작해 보자. 요즘 학생이야말로 참 전일에 비하면 형식은 꽤 整齊한 모양이다. 연령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안색도 비슷하다. 그전처럼 3·40되고 수업이 푸르르한 老學生은 볼 수 없다. 허리 굽은 사람도 없고, 입 벌리는 사람도 없고, 팔자걸음 걷는 사람도 없다. 형식 뿐 아니라 또 學科도 전보다 비교적 進就된 모양이다. 일본말은 물론 영어 教理도 꽤 잘들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觀相者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 학생의 몇몇 중에는 여러 가지 기괴한 風이 많다. 대강만 말하여도 이리하다.

모자표는 옛 장사에게 전당 잡혔다가 찾아 붙였는지 모두 오그랑바가지가 되어 어느 학교 학생인지 분간할 수가 없고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모양도 내고 비밀행동 하느라고 그러지) 일본말만 배우느라고 입이 부었는지 하교종만 치면 변소에 가서 담배로 입 뜨기가 일수요, 3·4인만 모여 앉으면 선생의 비평과 여학생 비평으로 일을 삼고 점심시간이면 수십 명씩 隊를 지어 호떡집으로 간다. 보성고보 학생은 堅志洞 英海樓 앞집으로, 중등 학생은 壽松洞 金圭鎭 君 집 앞집으로, 휘문고보 학생은 觀峴 某洋服 집 앞집 또는 桂洞 衛生所 앞집으로, 중앙고보 학생은 同校 정문 외 과자

개벽(開闢)

점으로 간다. 敝新도 그렇고 培材, 養正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다 그렇다. 이것도 물론 돈 많은 사람의 학생뿐이지 그네들은 호떡집을 아주 단골로 정해 가지고 무슨 호텔, 무슨 호텔하며 날마다 가는데 觀相者의 조사한 통계로 보면 한집의 매일 수입이 최고 57원 60전, 최저 24원 30전이라. 학생한테서만, 아, 이것이 어찌 놀랍지 아니한가. 「변도」¹¹⁾만 먹어도 견달 터인데 호떡 군것질이 무슨 버릇이나.

그외에도 窮凶한 호떡장사 淸人놈들은 학생의 환심을 사고 담배 팔기 위하여 비밀흡연실까지 준비하여 두고 매일 학생을 유인한다. 그 중에서 전문학생들은 호떡 먹기도 창피해서 黃橋 일본인의 輕便洋料理집, 그렇지 않으면 花開洞 黃鱈湯집 또는 두방맹이골(松峴洞) 비밀 음식점이니 남대문 外 紫岩 內外 음식점으로 몰려간다.(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리고 月謝金은 못 내서 정학을 당할지언정 활동사진 구경은 의례 가고 부모형제에게 문안편지는 잘 안 보내도 촌수도 없는 여학생 누이에게 편지 거래가 頻煩하다. 또 하숙집에 가보면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도 전일 처럼 石油箱子 책상은 없고 의례 5~6원짜리 책상에다 책상, 필통, 사진첩을 다 구비했다. 교과서 참고서는 한 권 없어도 연애소설과 유행창가 한 권은 다 가지고 서랍 속에는 여학생에게 편지하는 꽃봉투, 꽃종이와 春書圖도 가끔 나오며 벽에는 行내거리로 바이올린 라켓을 걸어 두었다. 길만 나서면 여학생 「히야까시」¹²⁾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집에 돌아오면 면도하느라고 밥도 제때에 잘 못 먹는다. 또 腦 속과 배 속을 드러다 보면 총독부 관리,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은행 회사원, 또는 어떤 부호의 노

11 도시락을 말함.

12 현대일본어로는 [히야카니]이며, 남을 놀린다는 의미이다.

예가 되어서라도 몸 편하고 배부르게 지내려는 허영이 잔뜩 차서 졸업시험도 치르기 전에 직업 구하기에 분주하며 졸업 후에는 첫 政事가 양복치레, 요리집 출입, 본처와의 이혼이다.(부자학생에 한하여) 이 외에도 할말이 많지만은 이만하고 後期를 또 기다려 보자.



개벽(開闢)

아, 오늘 경성 學生界에 일부분이라도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잘 될 징조이나, 못 될 징조이나. 이 觀相者의 말이 전부 틀려서 일반이 모두 그놈 관상자 놈 車天子 모양으로 거짓말만 하는 놈이 구나 하고 責을 당하게 되면 우리 민족이 다행이다만, 만일에 관상자의 말이 귀신같이 꼭꼭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에 그런 불행이 없을 것이다. 나는 다만 그러한 학생에게 관상자의 말이 虛言되기를 바라고 또 최후에 아무 관계도 없는 純潔無垢한 학생에게까지 미안한 말을 혹 유감천만으로 생각하고 거듭하여 사레한다. 그만해 처갓….

▷『개벽』 58호, 1925년 4월 1일.

필 자 : 박돌이

기사제목 : 和洋並出의 불순한 졸업식, 培材·普成·中央·徽信·
養正·中東·徽文 諸校의 졸업식 참관기.

〈徽文高等普通學校 卒業式〉

3월 7일 오후 1시 동 학교에서. 의외로 婦人來賓이 많다. 울지 閔씨네 가족들이겠다. 총독대리 지사대리는 물론이지만 兪영감도 의례 오셨겠다. 말썽 많은 空山明月(前교장 任璟宰씨의 별명)의 代로 新교장 金亨培씨가 등단한다. 「君が代」¹³⁾는 別論이지만 勅語奉讀은 아니한다. 식 중에 자동차 소리 나더니 校主 閔泳徽씨가 방한모인 반이쓰에, 左手에 단장, 右手에 여송연으로 소년 한 명과 같이 장내에 들어선다. 모든 시선은 그리로 쏠린

13 [きみがよ](기미가요)로 일본 國歌를 말함. 일제 강점시대에 [기미가요]를 강제적으로 부르게 한 것도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었다.

다. 잘 먹고 잘 입고 걱정 없는지라 얼핏 보아 백만장자 같다. 단상에 좌정합시다. 校主이신지라, 조리는 없지만 두어 마디 훈지를 내리신다. 知事告辭 중에는 또 모두 입을 부르쥐고 제각기 옆구리를 꺾꺾 찌른다. 兪영감의 祝鐵에는 참지 못해 저음의 「야지」¹⁴⁾가 툭툭 나왔다. 閔씨의 감사하라는 訓帽는 가슴이 간지럽다. 戀愛攻擊論 離婚不可說은 역시 請負業目 중의 중요 항인가 보다. 사람이 지면 타인 심리를 그렇게 모르는지? 그 청부업이 금년 1년에만 한하였으면 그래도 다행이려니와 明年도 계속한다면 돈푼이나 써가면서라도 제발 취소시켰으면 좋겠다. 교장의 「兪星濬 閣下 先生님」이라고 소개하는 말은 일시 말의 실수가겠지만 듣기에 허리가 시었다. 그런데 이 졸업식의 월계관은 李奎豊군 1인이 독점하였다고. 92명 졸업생 중에서...



14 현대어로는 [야지]이며, 타인에게 비난·조롱·놀림의 말을 하거나 빈정거려 놀리는 말이다.

개벽(開闢)

附言. 편집기일의 관계로 3월 10일 전 경성 내의 학교 졸업식 만 보고 말았다. 參觀記 중에는 번번이 參與官 狐皮令監 등의 너저분한 소리가 많이 끼우게 됨은 독자와 같이 기자 또한 너저분해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금년 졸업식 景況은 그를 빼고는 없는데 어찌하랴. 金씨 아니면 參與官이 없고 兪씨 아니면 祝彦할 놈이 없는 데야 어찌하랴. 참 우습고도 기막힌 사회지.



▷ 『개벽』 제61호, 1925년 7월 1일.

필 자 :朴돌이 記

기사제목 : 八道代表의 八道자랑.

〈경기대표 閔自酌 등단〉

몸집은 별로 건방지게 하면서 가장 得意한 기세로서 “여보시오 조선 수도인 서울이 있는 바에 다시 말할 것이 무엇 있소. 京城만 예를 들어 말한 다 하더라도 며칠, 몇 달을 두고 해도 다 못하겠소. 게다가 500년 왕도 開城이 있고, 조선의 良港 仁川이 있고, 풍경 좋은 水原이 있고, 역사 깊은 摩尼山이 있고, 壯快한 박연폭포가 있고, 이름 높은 삼각산이 있고, 천하명물 開城 人蔘이 있고, 조선명산 왕십리 미나리가 있고, 安城 鎗器와 여주 이천의 자채쌀이며 楊州 栗이며 江華 화문석이며 長湍 大豆며 西湖 鮑魚 같은 것도 조선에 유명합니다.

塔洞 玉塔은 고대 미술을 자랑하고… 이 뿐입니다. 은행, 회사, 학교, 교회당, 전차, 자동차, 인력거, 自行車,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기타 모든 것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구려! 경기 이상 가는 곳이 어디 또 있습니까? 「서울구경」, 조선 13도 사람 어느 누가 원치 않습니까.

자꾸 내세우면 다른 道 사람이 무색할까 봐서 스스로 감추거니와 인물로도 경기 이상이 없을 줄 아오.

역대의 왕후장상을 다 말할 수는 없고, 특히 강감찬, 정몽주, 최형, 이 팔 같은 명인 열사가 있고 근래로는 兪吉濬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閔泳

개벽(開闢)

徽 같은 조선갑부가 있소.(그래도 閔哥는 못 믿겠느냐고 야단이 난다)

30만 大京城 조선의 수도! 여러분 경성을 위하여 경기도 만세나 한번 불러봅시다. 경기도 만세!”(일동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입은 비죽거린다.)

▷『개벽』 제69호, 1926년 5월 1일.

필 자 : 尖口生,
기사제목 : 京城雜話.

문체 중에 있던 경성도서관은 드디어 李昇範 君의 손을 떠나서 京城府의 직영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京城府에서는 李君의 공로를 생각하여 상여금 3천원을 주고 또 府의 촉탁명의로 여전히 그 도서관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것은 어찌 말하면 일한합병 당시에 當路大官들이 합병의 공로로 恩賜公債金과 襲爵의 특전을 입은 것과 같다고 할까. 하여간 무슨 일이던지 시작만 해놓으면 손해는 없는 모양이다.

李星鎔, 李漢鎔 두 博士와 기독교 青年學館의 독일어 교사 浪承翼 君은 남대문동 小廣橋 부근에 경성 초유의 伯林館이라는 독일식 茶店을 열고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한다. 아무 영업이라도 아니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독일 유학생으로 多年 연구의 결과가 그뿐일까. 아마 그들의 전공한 학과는 茶料요 또 박사시험 논문에도 茶店 설계서를 제출하였던 모양이다. 그런데 풍문에는 獨逸美人의 보이까지 있다고 하여 호기심으로 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실제로 가본 즉 獨逸美人은 그림자도 없고 獨身의 총각 놈 보이만

쑥쑥 나와서 모두 실패하였다고.

경성제국대학은 예정과 같이 5월 1일에 개교하여 먼저 法文科, 醫學科의 教授를 시작하고 학생은 同校 예과를 終了한 150명을 수용하며 총장은 문학박사 服部宇之吉 君. 건축비는 166만 8천원으로 明年까지 준공한다고 한다. 이제는 조선에도 일본 폐물학자의 고등수용소와 조선 부르조아 遊食民의 고등양성소가 완전히 설립된 모양이다.

六堂 崔南善 君은 지면상으로는 간혹 이름을 볼 수 있으나 어떤 사회적 집합에는 별로 모습이 보이지 않더니 요전 조선문단 崔鶴松 君 결혼식에 주례로 출석하였더라고요. 육당이 六禮主義는 매우 찬성하는 모양이지.

朝鮮文壇은 4월호 編輯餘言에 "신민 대 조선문단 사건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營業部在所만 그곳으로 한 것 뿐이요 결코 아직은 新民社에 넘어가지 않은 것만 확인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마치 과부가 改嫁를 하고는 말하기를, 改嫁는 하였지만 아직 許身은 아니하였다는 말과 같은 격이 아닐까.

경기도 경찰부에 오는 공문 중에는 경성경찰서라고 쓴 것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무식한 사람이 한 것도 아니요 아주 훌륭한 일본 동경의 日比谷 [히비야] 서장, 麵町 서장이 그러하다고 한다. 일본인의 소위 조선통이라 하는 사람이 그 두 서장보다 나은 자가 몇이나 있을까.

毀撒을 하느니 이전을 하느니 하고 문제가 많던 光化門은 결국 20만원의 예산으로 타처에 이전하게 되었다. 물론 섭섭한 일은 섭섭한 일이다만 역사가 상당한 광화문으로 그곳에 있어서 朝夕으로 눈 꼬리를 올리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閑寂한 곳에 가서 高潔하게 있는 것이 광화문에게는 다행일까 한다.

개박(開闢)

塔洞公園은 北部 조선인의 유일한 공원이다. 己未年 후에 당국 미움을 받아서 禁錮에 處한 사람모양으로 후문이 봉쇄당하고 園內 수목화초 등도 별로 보호치 아니하며 園丁이 있으면서도 청소까지 안 하여 일반의 불평이 자자하더니 근일에는 경성부에서 그 基址까지 30만원인가, 25만원에 매각하고 공원을 아주 폐지한다는 說이 있다. 폐지를 하던지 設始를 하던지 제 마음대로들 하는 일이지만은 일본인 시가를 중심으로 한 장충단공원이나 한양공원을 볼 때에 그 자들도 양심의 가책이 없을까.

경성의 電車는 線數가 130대(승무원 560)이나 되는데 요새는 꽃 구경꾼이 많은 까닭에 매일 만원이 된다고 한다. 이놈의 세상은 꽃까지도 돈 있는 놈을 위해서 피는 것 같다.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각 妓生券番에 경고하기를 “기생이 용무 이외에 성외출입을 금지하라”고 하였다 하니 기생의 용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이나 시간비 받고 노는 것이 용무인데, 돈 안 받고는 城外에 가서 놀지 말란 말이나. 그것이 다 무슨 수작이나. 長長春日에 경찰용무가 없거든 낮잠이나 자는 것이 어떤가.

一般府民의 고향을 착취하는 暴利專業의 전기회사는 府民의 猛拳을 一被하고 양심이 회부되었는지 武者專務가 8월부터 요금을 減下하겠다고 공언하였다. 減下할 터이면 즉시 減下하겠지 하필 8월이나 한달이라도 폭리를 더 취득하자는 수작이지.

日文 조선신문사의 主催인 조선박람회는 본 월 13일부터 열리게 되었는데 총독부, 경기도청, 경성부, 상업회의소 등 여러 관공서가 모두 후원이 되었다. 기왕이면 각 경찰서와 재판소까지도 후원을 할 것이지, 하나라도 빠진 것은 일본인 愛護上에 한 유감이 아닐까.

당년 平壤名妓로 민영휘 대감의 애첩이 되어 부귀영화를 자랑하던 金基賢 마마는 東風의 落花를 伴하여 애처롭게 죽어버렸다.

그런데 그 구두쇠 대감도 애첩에게는 어찌나 후덕하신지 만여 원을 들여 굉장한 장례를 하고도 推爲 부족하여, 그의 無子 孤魂을 위로하려고 수 천 원을 들여서 어떤 사찰에서 제를 올렸다고 한다. 참 장하고 의리있는 일이다. 누가 그에게 哀賞金 반지나 한 개 해 주지 아니하나.

장기간 집회 금지되었던 靑總과 勞總을 근래에 근근이 회원의 懇談會만을 허락하게 되었다. 그래도 경성의 경찰을 그러한 양해라도 있으니까 다소 기특하다마는 鄉谷에서 일간망둥이 모양으로 아무 양해도 없고 이윽도 분명치 못하며 함부로 집회 금지, 언론 단속을 하는 것은 참으로 곤란하다. 이 기회에 한번 猛省改俊함이 어떠한가.

▷『개벽』 제70호, 1926년 6월 1일.

필 자 : 尖口生

기사제목 : 京城雜話.

작년 여름에 전남 화순군 부호 朴賢景은 자기 外孫의 병을 고치려고 소작인의 脊髓液을 뽑아서 注射한 까닭에 한참동안 京鄕에 말썽이 많이 되더니 요사이 경성부호 趙鎭泰 君의 아들은 중병이 들어 총독부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자기 집 차인 군의 피를 뽑아서 혈액주사를 함으로 그 차인이 또 병이나서 입원까지 하였다고 한다. 부호의 세력도 세력이거니와 고혈의 착취를 당하는 가련한 無產者의 신세도 참 京鄕이 일반이다.

개벽(開闢)

민영휘 자는 요전에 애첩을 喪失하였다 하더니 그의 愛子 閔大植 君은 요사이 비밀히 어떤 기첩을 얻어두고 安國洞에다 새로이 宏大한 가옥을 건축하는데 누가 알까 쉬쉬하고 밤이면 꼭 同妾을 하고 와서 건축하는 집 구경을 하고 간다니 가위 父失子得이로구.

얼마 전에 서대문 사립 啓聖學校長 車相信 君과 영국인 교사 구란드 君 간에 대격투가 생겼었는데 동리사람들이 계성학교에서 花鬪를 한다고 떠드니까 그 부근 주재소 순사가 두 눈이 휘둥그레 달려가 본 즉 賭博의 화투가 아니라 車君이 英人의 집 「사쿠라」¹⁵⁾ 꽃을 꺾은 까닭에 꽃 싸움이 나서 車君 側에서는 그 학교 生徒 수십 명까지 가담하여 一場 대풍파가 일어난 것을 洞里사람이 화투라고 조롱한 까닭이었다. 어찌 되었던 화투는 화투요 화투 중에도 黃白人의 大花鬪이다.

구한국시대의 武官이라고 하는 某某는 요새 恩給運動을 하느라고 열중하는 모양이다. 배가 고프면 도적질도 하는 터이니까, 그다지 過責할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염치가 있어야 하지 몇 해 동안이나 국녹을 먹어가며 군사교육을 받아 가지고 해산당할 때에 방귀 한번도 못 뀌고 있다가 인제 누구더러 恩給을 또 달라고 한단 말이냐. 밥이 없거든 차라리 깨끗하게 굶어 죽어서 지하에 있는 朴星煥이나 閔肯鎬 諸氏와 상견례나 하여라. 차렷! 좌로 돌아!!

朝鮮步兵隊는 이번에 또 縮少하여 70명의 1소대만 두기로 내정이 되었다고 한다. 탄환없는 총을 메고 빈 찰만 지키는데 70명까지 무엇하나, 2~3명이면 족하지.

조선 僧侶 수 백인은 승려의 娶妻食肉을 금지하여 달라고 총독부에 진

15 [櫻](さくら)는 [벚꽃]을 말함.

정을 하였다고 한다. 취처식육을 하는 興否야 각각 자기에게 있지 하필 총독부에까지 금지 청원을 할 것이야 무엇 있나. 언젠는 총독부에서 승려에게 취처식육하라고 강제명령을 하였던가. 그럴 바엔 바로 부처님에게 취처식육하는 승려에게 벌을 내리라고 불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이고, “男無娥眉打佛 觀世飲普殺”

승려의 말이 났으니까 말이지 조선 불교 교무원에서는 전 조선 사찰의 소유재산을 殖産銀行에 저당하고 백만원의 巨債를 내서 舊事業을 정리하고 또 新事業을 경영한다는 설이 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알 수 없거니와 만일 그렇다면 불교계는 물질까지도 마저 남의 지배를 받게 될 모양이다.

조선박람회는 내용이야 어찌 되었던지 會場이 원거리에 산재한 것으로 보아 박람회의 가치가 있다. 만일 한 장소에 있다면 狹覽會일터인데, 우리 사회운동 線上에 重鎮인 金思國 君의 永逝한 것은 누구나 다 애석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런데 평소에 執見이 다르던 正友會와 그 외의 사상단체에서 연합하여 시종 장례식까지 유감없이 잘 치루었다. 이것이 잠깐 보면 사소한 일 같지만은 조선의 사회운동이 점차 통일되어가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식 이외의 實地運動에도 피차간에 大局을 생각하고 모든 감정을 초월하여 동일한 전선에 나가기를 바란다.

鄭鑑錄에 「落盤孤四乳」라는 말이 있는데 미신에 취한 자들은 그것을 米字라고 해석하여 미국이 어찌 하느니 하고 떠들더니 요새 當局에서 산미 정책을 쓴다 하니까 또 일부의 無知人들은 어이쿠 이것이 정감록과 꼭 맞는다고 떠든다 하니 정감록의 해석도 隨時變遷.

개벽(開闢)

某處의 조사에 의하면 大正 8년 [1919] 이래로 금일까지 밀정의 불만으로 상해에서 피살된 同和朝鮮人이 120여인에 달한다고.

경기도 평의원 金之煥 외 某某 和族 遊食者는 일선융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高陽 龍江面 新孔德里 뒷산에 소위 二聖賢의 신사를 건설하고 공자와 二宮 尊德歸人을 숭祀하기로 發論하여 기부금 모집운동을 한다고 한다. 기왕이면 조금 참았다가 도 평의원 회의시에 二宮氏를 문묘 배향하자고 제안함이 어떠할지. 그러나 공자는 조선인이 아니요, 중국인이니 日中融和에는 필요할지 모르나 日鮮融和에는 하등 관계가 없는데 어찌할 것인가.

負債王 尹澤榮 侯는 국상 중에 귀국하면 아주 債鬼의 독촉이 없을 줄로 안심하고 왔더니 각 債鬼들이 사정도 보지 않고 벌떼 같이 일어나서 소송을 제기하므로 재판소 호출에 눈코 뜰 새가 없는 터인데 일전에는 어찌나 火症이 났던지 그의 아우 대갈大監과 대가리가 터지게 싸움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싸우지 말고 국상을 핑계로 한 바에 아주 ○○이나 하였으면 충신 칭호나 듣지.

귀족의 이야기를 하던 끝에 또 한 마디 하자 민영휘 외 某某 귀족들은 금번 國葬에 葬費를 몇 천원씩 헌납하였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특하지만 그네들이 과거에 정권을 擅弄하여 國財와 民産을 濫食한 것을 생각하면 이조 최후의 國葬을 기회로 하여 전 재산을 사회사업에 제공하고 죄를 전 민중에게 謝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다만 일시의 인심을 買하기 위하여 수단적으로 약간의 금전만 쓰는 것으로는 천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더 한 번 생각함이 어떠한가.

▷ 『동광』 제19호, 1931년 3월 1일.

필 자 : 李光洙

기사제목 : 甲申政變回顧談, 朴泳孝氏를 만난 이야기

〈갑신혁명의 중심인물〉

“金玉均과 나와 먼저 사귄 것은 불교토론 때이다. 김옥균은 불교를 좋아해서 불교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것이 재미가 나서 김옥균과 친하게 되었소. 내 伯兄이 김옥균과 사귀라고 해서 사귀게 되었지마는 그대에 김옥균은 27세, 나는 17세였소.”

朴泳孝氏는 錦陵尉요, 그의 주택이 궁이기 때문에 宿衛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다수로 출입하더라도 눈에 띄지 아니하는 편의도 있어서 金玉均, 洪英植, 徐光範 등이 校洞 錦陵尉宮(金左根의 舊基로서 지금 閔泳徽氏 家의 직후에 해당하는 곳)에 모여서 밤을 새어가며 연일 連夜 혁명의 모의를 하였다. “내 집에서 모이기가 불편한 때에는 탑골 僧房과 峯溪寺에서 많이 모였소.”

혁명의 방법에 관하여서는 春臯는, “그저 정권을 움켜잡는 것이지요. 상감을 꼭 붙드는 것이지요. 김옥균이 어름어름하다가 상감을 놓쳐버려서 그만 실패지요” 하고 통분한 표정을 한다. 春臯의 의견에는 갑신정변이 실패한 주된 책임이 김옥균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가 약속대로 안한 것, 謀計가 소홀한 것 등이 甲申革命 실패의 중대 원인이라고 春臯는 반복하여 애석히 여긴다.

(12) 朴泳孝氏의 生涯

君子體仁足以考人

李光洙

朴泳孝氏 撰

朴泳孝氏를 만난 이야기

— 甲申政變回顧談 —

李 光 洙

因 緣

客歲이라고 記憶한다。春阜 朴泳孝氏는 筆者에게 書信과 便者를 보내어 서 筆者의 「三千里」에 쓴 李甲申氏에 關한 文中에서 李甲申氏 對 朴泳孝氏의 關係에 言及한 事 中에 該記가 있는 것을 指稱하고 무슨 方法으로나 그 事를 詳說하기를 催者에게 請하였다。

이것이 春阜와 筆者와의 因緣의 始初이다。

筆者가 春阜와 會見하게 된 動機도 여기 있다。이 機運을 利用하여 甲申革命의 四巨頭中에 唯一한 生存者인 朴泳孝

氏의 임으로서 當時의 事情을 詳히 考考한 事가 있다。

一月十八日 日曜 午後四時半에 約東往 時間이다。東廟 앞에서 電車을 下러서 東大門을 向하고 數十步를 走르오 門은 大門이 있고 그 大門에 朴泳孝氏는 門牌가 붙었다。門牌에 侯爵이라는 肩書는 附었다。

예로 말하면 公王廟馬鎭院附, 甲申政變과 乙未政變의 巨頭로서 金玉均, 金玉衡과 非稱한 革命家, 世上이 非常인 人物은 侯爵, 中樞院副議長, 그때서 그門에서 大門에서 玄關에 이르는 數十步道路의 中 右에는 樓梯가 附어 附었다。春阜는 아직은 一部 人士間에는 一種의 期待와 志士에 對

김옥균 선생의 인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朴氏는 “김옥균의 장점은 交遊요, 교유가 참 능하오. 글 잘하고 말 잘하고 詩文書畫 다 잘 하오. 김옥균의 단점은 德義와 모락이 없는 것이오” 하여 김옥균의 才를 許하나 德과 智를 許하지 아니한다.

“洪英植이 과연 성의있는 사람이었소. 徐光範은 인물이었으나 병약하여서 大事를 하기가 어렵소” 하고 박영효는 洪英植을 많이 칭찬하였다. 갑신혁명시에 김옥균이 27, 홍영식이 25, 서광범이 24, 박영효가 17이었다고 한다.

당시 상감이시던 高宗의 태도에 대하여는 朴氏는 多言을 피하나 고종황제가 갑신정변의 배후에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만은 강하게 부인하였다.

▷『동광』 제29호, 1931년 12월 27일.

기사제목 : 東西古今人物座談會

〈현대조선과 인물〉

朱 : 현대의 인물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車 : 곤란한데.

文 : 곤란한데.

金 : 그야 대충이 할 것이지요.

朱 : 해외사람은 내놓고 현재있는 사람으로만 말하지요.

車 : 발표되어도 욕먹을 말입니다.

文 : 비교문제가니 할 수가 있나.

동광(東光)

朱 : 가령 李商在氏 대신에 누군가 될 것이라고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朴 : 現在의 여러가지 환경으로나 역량으로 崔麟씨 아닐까요?

金 : 이 문제는 그만두고 그것보다도 어떤 조직을 해 본다면 그 조직에 어떠한 제도가 실시되겠는가, 그것은 모르나 그것을 總覽할 사람은 우리가 생각도 안한 사람이 될 줄 압니다.

文 : 지금엔 인물이 있어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나타나게 환경이 되어야지요.

車 : 蔣介石이 두각을 나타낸 것도 그 전에는 소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朱 : 현재있는 사람으로 5인 이상 10인을 뽑아보면 어떻겠습니까.

車 :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종교가, 종교가에도 기독교, 불교, 천도교 등으로 나누고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서 각각 사람씩 뽑아서 그 사람들을 합하여 좌장을 선거하는 것 같이 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一同 : 그렇게 합시다.

朱 : 천도교에는 崔麟氏일까요?

車 : 그렇지요.

朱 : 예수교에는 尹致昊氏?

柳 : 나오지 않을걸요.

一同 : 나오겠지요.

朴 : 그래 尹致昊氏일까.

朱 : 유림측에는?

一同 : 유림측에 누군가...

朱 : 불교측에는 韓龍雲氏일까요?

東 : 불교측에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 外部로는 韓龍雲氏지만 內部에서
실력있기는 姜大蓮氏라고 합니다.

金 : 그러나 불교측에서 내놓으라면 韓龍雲氏를 내 놓겠지요.

朱 : 사회주의자로는 누굴까요?

朴 : 北風會로는 金若水고 火曜會로 洪培植이 될까?

金 : 내외사람을 물론하고 系別할 것 없이 나는 소질로나 경험으로나
呂運亨이가 제일이라고 보았습니다.

一同 : 그러나...

柳 : 金俊淵이가 나올지도 모를걸?

金 : 呂運亨이 아니면 누군가 있습니까?

朴 : 중국에서는 했는지 모르나 조선서야...

金 : 그러면 치안유지법으로 감옥에서 오래 들어가 있는 사람을 쳐야지
요.

車 : 그러면 金綴洙이지요?

車 : 감옥에 있는 것 만으로야 볼 수 없지요.

朱 : 조선에 無產政黨이 생긴다하면 누군가 당수가 될까요.

金 : 그야 노동자 농민을 영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요.

文 : 나타난 사람으로는 없지요

朱 : 朱鍾建씨는 어떻습니까?

朴 : 이론가로는 그렇지만.

車 : 그렇지요. 실재가로는 曹奉岩 같은 이가...

동광(東光)

朱 : 사회주의자에서 제일 늙은 사람으로는?

金 : 火曜會에는 金翰이가 있지요.

朴 : 내가 보기까지에는 金思國과 金若水가 낫다고 봅니다.

車 : 若水가 그럴까요?

柳 : 찌가 많지요.

金 : 才氣가 있고.

朱 : 그만하고 문제를 돌립니다. 조선에서 제일 인기있는 사람이 누구
니까?

車 : 妓生일걸요(笑聲).

朱 : 성명을 말씀해야지요.

柳 : 참 누구니까?

朱 : 崔承喜일까요?

柳車 : 시집간 뒤로는 인기가 떨어진 것 같은 걸.

朱 : 그럼 운동가로.

柳 : 그야 운동가에게나 흥미를 많이 끌리지. 일반사람에게야...

朱 : 인기끌기야 여자가 아닐까요?

金 : 박사가 되었으니 金活蘭일까요? 영어도 잘 한답니다.

柳 : 영어 잘하기로는 朴仁德이가...

朱 : 배우 가운데는 누군가 제일 인기를 끌까요?

朴 : 羅雲圭이겠지요. 아리랑 노래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柳 : 아리랑이야 먼저 아리랑 노래가 있을 것을 영화화한 것이지요.

朱 : 조선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니까?

一同 : 그것 누군지 모르지...

朱 : 閔泳徽가 어떻습니까?

柳 : 崔昌學氏가 어떻습니까.

朱 : 그러면 수입세금은 누가 제일 많습니까?

車 : 閔泳徽 세금이 15만원이라고 합니다.

金 : 내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못하나 부자라면 閔泳徽를 치니 민영휘
라 합니다.

車 : 60만원 借金은 어떻게 하고요?

金 : 그야 누군가 아나? 車相讚씨 같이 아는 사람이나 알지...(笑聲).

李容 : 朴榮喆이 4만석한다고 하지요.

韓 : 3~4천석하는데 빛이 많다고 합니다.

車 : 내가 제일 부자지요. 車天子니 부귀겸비하니...(笑聲).

(마지막이 가까운지 戲談이 섞인다).

朱 : 외교인물으로는 누구까요?

李容 : 呂運亨이겠지요.

金 : 나는 이렇게 알아요. 감옥생활에서 그의 인격과 언어의 조리라던
가 체격이라던가를 보고 呂運亨 이상은 보지 못 하었다고.

車 : 법정에서는 할 수 없으니 누구나 버티는 수밖에 있어요? 법정에서
만 보고야 압니까.

金 : 다른 사람은 버티지도 못하니, 내가 본 중에는 呂運亨하고 蔡그리
고리가 제일 인상에 남았습니다.

柳 : 蔡그리고리아(웃으면서) 조선말을 잘 모르니까 말을 안하고 버티
지요

朱 : 大審院長을 고른다면 누군가 될까요?

삼천리(三千里)

柳 : 여기 계신 金炳魯씨로 하지요.

金 : 나는 된다고 해도 안하겠습니까.

車 : 金炳魯氏는 안돼요. 이론만 할 터이니 될 수 있습니까.(笑聲)

朱 : 조선에 실업가 중에 실지 일해 가는데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金 : 활동한다고 하는 사람밖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算盤的으로 잘 해 나가는...

車 : 金炳魯氏가 말하는 것은 鄭堪錄 같습니다. 그저 다 없지만 있다고.

金 : 저 사람은 東學式이야.(笑聲)

車 : 있으면 있다던지 없으면 없다던지...

金 : 말을 하려면 미리 흥미를 끌게 하고야 하는 것이지.

李鍾 : 말씀하십시오.

金 : 나는 金季洙씨를 제일로 봅니다.

朱 : 민대식은 어때요?

金 : 욕심은 많은 것 같지만...

朱 : 朴英喆은 어떻습니까?

車 : 어디요?

▷ 『삼천리』 제2호, 1929년 9월 1일.

필 자 : 崔麟

기사제목 : 自畫像, 波瀾重疊五十年間.

〈留學生의 盟休〉

그뒤 1년 후에 우리 정부에서는 一心會 일은 血氣方剛한 청년들의 일이라 數人絞 후엔 餘其勿罪라는 뜻으로 모두 죄를 묻지 않기로 되었다. 그래서 나는 翌年에 귀국하였는데 얼마 있지 아니하여 동양의 형세를 一變시키던 日露의 開戰이 시작되었다. 그때가 甲辰年 내 나이 스물일곱 살 때라. 마침 우리나라에 와 있던 伊藤博文이 돌아가신 고종황제에게 建白하기를 “한국의 急務가 인재양성에 있는 터인 즉 폐하께서 신입하시는 귀족 자체 50인을 선발하여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면 일본정부에서는 그들을 잘 가리킬 터이라, 그러하면 폐하의 股肱이 되는 동시에 사회의 중심인물이 된다.” 고 하였다.

이에 고종께서는 그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학부대신 이재극에게 그 선발을 명령하셨는데 그때 선발의 표준은 勅奏任官의 子婿弟侄로서 하였다. 나는 당시 벼슬할 생각도 없어 난봉으로 돌아다니다가 家親이 奏任官이었던 관계로 이력저력하여 유학가겠다고 나서게 되었다. 희망자는 4,500명이 넘었는데 시험이라 함은 체격검사와 순 한문의 논문제출이었다. 그 제목이 「留學은 必爲 忠孝로 爲本」이었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는데, 나는 다행히 둘째로 합격이 되었다.

그때 崔南善 君도 합격되었는데, 이리하여 우리들은 한국 황실과견 유학생이 되어서 皇室費인 內藏院으로부터 주는 학비를 타 가지고 학부대신의 인솔하에 東京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대우는 정말 좋았다.

우리들은 東京府立第一中學에 입학이 되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未幾에 그만 보호조약이 체결되어 京市內에는 신문호외가 굉장히 들었다. 우리

삼천리(三千里)

들 열 사람은 즉시 이 정치문제를 들고서 동맹휴학을 해버렸다.

이에 日 외무성과 한국학부에서는 크게 狼狽한 모양으로 나중에 首謀者 5명은 아주 퇴학시키고 다섯 사람만 復校를 시켰는데, 얼마동안을 학비를 주지 않은 관계로 우리는 무척 고생을 하였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다시 勅令이 내려 학부유학생이 되었는데, 나는 그 다음에는 明治大學 法科에 들어가 正科를 마치고 서른 두 살 때에 귀국하였다.

그러자 합병이 되었는데 나는 동무들과 같이 외국공사관에 X를 X하여 조선합병을 XX하는 음모를 하였다는 혐의로 지금 本町署인 남부경찰서에 잡혀가서 약 2개월간 모든 고초를 겪다가 8월 22일에 조인이 되고 아주 공표되던 8월 29일 저녁에야 무사히 석방이 되었다.

以來 나는 두문불출하였는데 그동안에 경제상 고난이 심하여 일본서 입던 후록코—드고 양복, 마지막엔 신던 구두 짝까지 모두 전당을 잡히고 팔아먹기도 하였다.

(削) 그때의 우리측 인물로는 李甲氏가 제일이었다. 李甲씨를 중심으로 西北學會나 기타 단체에 안창호, 이동휘, 류동열, 로백린, 류석하 등 諸氏가 있었으나 그 사람들은 재주가 있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모두 一技一能이 있었으나 중심될 만한 인격자가 아니었는데 유독 李甲씨는 그렇게 말이나 才操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포용력과 담력이 있어서 실로 중심인물로서 부끄럽지 않았다. 민영휘 집에 들어가 六穴砲로 위협하고 돈 만원을 도로 찾아온 점으로 보아도 비범한 것을 알 일이다. 그러나 그때 追逐하던 이상의 諸氏가 그뒤에 어찌 되었는지 합병 후의 형세로 보아 누구나 알 일이라, 여기에는 더 번거롭게 적지 않는다.

▷ 『삼천리』 제5호, 1930년 4월 1일.

기사제목 : 全盛時代.

〈畿湖學會 前後十年〉(俞鎮泰)

1. 연설회와 양반

隆熙 2년 때이다. 이 민족의 가슴에도 남과 같이 살아야 하겠다는 큰 자각의 불길이 한번 생기자 곳곳에 학교가 일어나고 단체가 일어나서 혹은 정치운동 혹은 신문화운동을 일으키기에 모두들 분주하였다. 그래서 서울에는 지방별로 제 지방 인사들끼리 무슨 학회니, 무슨 학회니 하는 문화운동단체가 비 내린 뒤에 참대순 같이 많이 일어났었다. 즉 제일 처음에 일어난 것이 咸北興業學會, 그 다음에 平安道와 黃海道로부터 일어나 西北學會, 江原道の 關東學會, 忠淸의 湖南學會, 嶺南의 矯南學會 등이었다.

그럴 때에 기호 인사의 손으로 창립된 것이 지금 내가 말하려하는 畿湖學會이니 지금은 만주에 가있는 鄭安立(당시 名은 鄭永澤) 군과 李光鍾, 李祐圭(李寬求 君 嚴親) 등 제씨가 발기인이 되어 松峴골 李叅領在翊氏 집 사랑에서 처음 발기의 소리를 친 것이다.

기호학회의 첫 사업으로는 장래 사회에 유용할 인물 다수를 양성하는 것이 첫째 급무라 하여 교육자금을 얻을 방책을 세우고 그때 양반들의 원조를 받기로 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서대문 밖에 있는 獨立館(지금은 天然亭) 터전에 대연설회를 개최하고 돈 있고 세력 좋은 양반들을 초청하였더니 남북촌 대감 영

삼천리(三千里)

감들이 四人轎를 타고, 모두 160여명이나 모였었다. 아마 개벽 이래 처음 보는 놀라운 특권계급의 출동이라. 이와 같이 대감, 영감 이외에도 서울 장안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모인 그 광장에서 마침내 연설이 시작되니 그때 연사로는 응변객으로서 일세를 울리던 安昌浩 君과 鄭安立 君 등 여러 사람이었는데 島山과 鄭安立 양군이 “시세가 변하였으니 어서들 돈을 좀 내서 크게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하는 말”을 하기보다도 오히려 당시 나는 새로 떨어트릴 그 대감들을 눈앞에 모아 놓고서 “이제는 그 썩어진 양반 노릇을 그만해라”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해가면서 양반들에게 욕을 산더미 같이 퍼붓는다. 이 말에는 일반시민들은 박수갈채가 여간 아니었으나 긴요한 주빈이었던 양반님네들은 입이 석자나 나오고 여간 노한 것이 아니었었다.

연설회 지난 뒤에는 과연 양반 측들은 돈에 대한 동정을 터럭 끝만치도 아니할 뿐더러 기호학회에는 一不投足한다고 한참동안 좋았던 인기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돈 낼 듯한 양반의 배척을 받았더라도 사업은 해야 하겠다 하여 학회의 사무소를 지금 校洞公立普校 있는 집터 앞 空家에 옮기고 개인에게 기부 권유하자는 새 방침을 세우고서 간부되는 朴勝鳳(現 參與官) 徐內喆 兩君이 부호 李X根氏 집을 찾아가 단돈 300원을 내기에 도로 뿌리치고 「銅神大監」이라고 욕을 마구 퍼붓고 돌아왔다. 또 吳鼎根(叅判) 집을 찾아가자, 돈을 안내기에 청년혈기에 실컷 두드리고 왔었다. 이와 같이 도처에 가서 성공을 얻지 못하고 왔음으로 會運은 점점 기울어 졌다. 이에 여러분의 권유로 南宮黨, 兪星濟, 나, 3인이 새로 입회하여 평의원이 되어서 돈을 모으되 每朔에 5원으로부터 25원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사람은 등

급을 정하고 5개년 동안만 계속하여 기부를 청하기로 하였다.

2. 經費爲한 활동

신경제정책이라고 할는지 좌우간 이 방책은 다소 성공하여서 웬만한 양반들은 5원에서 10원씩 매달 내기로 되었다. 그중에 朴齊純 「당시 외무대신」씨가 매월 5원씩 5개년을 꼭 계속하여 내었고 李海昌, 尹德榮 양씨가 역시 10원씩 5개년 계속하여 내었고 韓圭高씨 천원, 閔泳徽씨 600원씩 일시금으로 낸 것이 있는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회장으로서는 학부대신이든 李容植氏를 취임시켰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백날 가도 큰 사업을 이룰 수 없겠다 하여 그제는 漢城銀行의 韓相龍氏한테 줄라서 돈 3,000원(그때 돈 3,000원은 지금 돈 30,000원도 넘으리라)을 얻어내다가 지금 中外日報社가 있는 花洞 그 터전과 건물을 사고 畿湖學校를 그리로 옮기다가 學員도 더 모집하여 규모를 훨씬 크게 꾸렸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또 부족하여 자금을 더 얻으려할 때에 李熙直氏(李鎬泰君 祖父)가 堤川에 있는 70석 추수하던 땅을 기부하여 주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진고개의 일본인 경영의 기업회사에 가서 담보로 넣고 돈 5,000을 얻어다가 학교의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운도 일시였다. 많은 경비가 드는 학교를 한편으로 유지하여 가야하는 터이나 그 대신 수입이라고는 별로 없어서 1년 남짓하게 끌어 가다가 그제부터는 학회회관에는 숯불 피울 돈도 없고 학교는 선생들의 월급도 지불 못함에 몇 사람 남지 않았고 학생들도 하나 둘 흩어져가서 폐교할 慘境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자 기업회사의 이자, 기타 합하여 7,000원이나 되는 그 채무 때문에 학교건물은 公賣가 붙어서 기호학회 사업의 최후 일에 다다른 듯하였

삼천리(三千里)

다. 그때 연일 評議 결과 尹致昨씨가 학교를 개인 인계하겠다는 것을 물리치고 李宇奎 君과 내가 교섭위원이 되어서 회장 李容植氏 집에 가서 公賣가 부득함을 訴하고 7,000원에 대한 延期手形에 날인하여 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러나 利害로 말하고 의리로 말하였으나 용이하게 듣지 않다가 나중에 승낙을 얻어가지고 채무는 일개월간을 연기하고 별별 방책을 다 써서 李容植 2,000원, 趙重應 1,000원, 趙秉澤 1,500원, 韓圭嵩 1,000원, 金顯國 3,270원 등을 내어 학교의 빚은 모두 갚고 다시 畿湖學校는 前途洋洋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前記 3,000여원을 낸 金顯國氏가 기왕이면 제가 맡아 하겠다고 그 학교 인계를 요청하는 것을 내가 나서서 侍天敎의 경영으로 넘어가면, 우선 학생이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거절하고, 現 中央校主人 金性洙氏에게 일체를 인계하여 금일에 이룬 것이었다.

재정상에 대한 파란은 말할 수 없이 많으나 여기에는 모두 略하기로 하고...

그뒤 합병이 되자 前記 畿湖니 西北이니 矯南이니 운운하던 여러 학회를 전부 두드려 부셔 中央學會라는 학회 하나를 만들고 학교의 名도 中央學校로 고쳤던 것이다. 그리고 그뒤 점점 세월이 변해 감에 따라 중앙학회의 간판조차 자꾸 떼라는 것을 안테고 있었더니 己未 前年인 戊午年, 즉 고종황제 돌아가시던 전년에 총독의 명령으로 인가 취소가 나와서 끝끝내 간판을 떼고 해산해 버렸다. 그때 중앙학회에 남아 있던 돈 600원은 보관하여 두었다가 조선교육협회가 창립되자 그곳 경비로 썼던 것이다.

기호학회의 전성시대 회원은 10,000명을 넘었을 것이요, 학교 졸업자도 많았으리라. 지금도 지방을 돌아다니며 언뜻 낯모르는 청년이 인사해주며

“저는 옛날 기호학교 학생 때에 선생을 뵈었노라”하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깨닫는다.

▷『삼천리』 제9호, 1930년 10월 1일.

필 자 : 漢陽學人,

기사제목 : 아하, 아버지 李甲, 그의 따님 李正熙女史 訪問記.

西伯利亞에서 불우하게 돌아가신 李甲 선생의 단지 하나 혈육인 그 따님 正熙씨와 그의 남편되는 李應俊씨가 현재 서울에 계시다는 말을 某氏에게서 듣고 나는 1930년 맑게 계인 첫 가을 어느 공일날 龍山을 찾았다. 李應俊씨는 옛날 한국시대에 陸軍正領(현재의 大佐) 盧伯鱗씨가 교장으로 있던 무관학교를 다니다가 일본사관학교에 들어가 그곳을 마치고 東京麻布 제3연대 사관으로 있다가 西伯利亞에 영미연합군과 함께 출전을 한 뒤 다시 7~8년 전에 조선에 돌아와 용산군대에 있는 터이다. 現職은 육군대위로 보병 제79연대 중대장으로 있는데 가정에는 이갑씨 미망인과 그의 夫妻와 10살에 나는 昌勳이란 아들과 7살에 나는 따님이 있다.

蒼鬱한 한강동 수풀 속에 있는 육군관사로 氏를 찾으니 마침 문전에는 연대로부터 심부름 온 듯한 병정 한 명이 直立不動의 자세로 서서 중대장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조금 뒤에 간결하게 차린 응접실에 마주 앉았는데 그때에 나의 눈에 처음 비치는 氏는 40이 가깝다 하는 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아직 훨씬 젊어 보였고 풍모도 전장을 馳驅하며 萬軍을 叱咤하는 그러한 우락부락한 용장이라기보다 佛道나 닦고 앉아있을 듯한

삼천리(三千里)

선배다운 분임에 놀랐다.

조금 있다가 다과를 가지고 들어오는 이갑씨 따님 正熙씨도 30이라 하나 주름살 한 점 없게 맑게 게인 그 얼굴로 보아서 훨씬 더 젊으신 듯이 보였다. 더구나 한때는 연설 잘하고 또 一色으로 유명하던 저 李東輝씨 따님과 함께 西伯利亞에 핀 아름다운 두 떨기의 고려 꽃이라고 그 수려한 미모를 내외에 널리 날리던 터이니만치 조선복을 단아하게 차리고 앉은 그 부인은 이 세상에 드물다 할 容色을 가지시었다. 말이 中東線 무린驛으로부터 다시 「니코리스크」에 이르러 이갑 선생의 임종 광경에 미치자 부인은 무한히 슬픈 빛을 얼굴에 띠며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신 곳은 西伯利亞 「니코리스크」시였습니다. 그때가 16년 전의 늦은 봄날이 되어 창 밖에는 흰 눈이 한 고치 두 고치 시름없이 녹아가고 있는 때에 그만 불치의 병으로 여러 해 고생하시던 아버지는 41세를 일기로 아주 이 세상에서 떠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전신이 不隨한 탓으로 사지를 꿈쩍 놀리지 못하신 것은 물론 말씀조차 잘 번지지 못하여 아무런 유언도 없었습니다. 임종의 병상에는 어머니와 저와 그곳 동포 여러 분들이 와 있었지요. 유골은 「니코리스크」를 一目에 俯瞰할 수 있을 뿐더러 생전에 그렇게도 그리워하시든 옛 땅을 바라다보실 수 있는 뒷산의 백인 공동묘지에 모셨지요. 그리고 우리들이 나온 뒤 한번도 성묘라고는 못하였는데 14년 전인가 바깥 어른이 西伯利亞로 마침 출진을 하셨을 때 그 무덤을 찾아 꽃다발을 드리고 왔다합니다. 그때 돌아가신지 여러 해 되건만 어느 뜻있는 그곳 형제들이 아직도 찾아와 주셨음인지 무덤가에는 이슬에 젖은 꽃다발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이곳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찌하시다가 전신불수까지 되셨습니까” 하는 나의 질문에,

“글쎄요, 저는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아버지는 露都 聖彼得堡에 가셨다가 풍토병을 얻으시고 그런 뒤 다시 미국을 건너가실 작정으로 배를 타고 桑港까지 가셨으나 그만 여행증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도로 나오신 뒤 원래 성정이 급하신 분이래 그만 율화가 나는데 신경병을 겸하신 듯. 직접 원인은 어떤 날 아침에 칼로 연필을 꺾고 앉았다가 칼끝이 조금 엄지손가락 끝에 닿더니 그만 그 손가락 끝 緊肉이 자유롭지 못해 지터랍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에서부터 주먹으로, 주먹에서부터 팔로, 그래서 차츰 전신의 緊肉이 伸縮이 없어지며 아주 폐인이 되다시피 되셨대요.

그런 뒤 伯林, 巴里로 명의를 찾아다니며 병 고치려고 가진 애를 다 쓰셨으나 一向 효험이 없어서 나중에는 中東線 「무린」驛에 와 계셨답니다. 그때에 李光洙씨가 上海로부터 오셔서 아버지 곁에 늘 계서 주시면서 이야기 동무도 되어 주시고 편지도 많이 代書하여 주셨지요. 약 한달 동안이나, 그전까지는 제가 편지를 썼지요. 아버지 부르시는 데로요. 그러나 그때는 제 나이도 14~5세 밖에 안되고 서울 있을 때 進明女學校를 겨우 다녔을 뿐이므로 편지를 쓰면 얼마나 잘 썼겠습니까?”

“아버지 이갑 선생의 성격은 어떠하셨어요?”

“글쎄요, 본국 있을 때는 나이도 어려 그저 무서운 어른이다 라고만 생각하였지요. 그러다가 西伯利亞에 가서 함께 모시고 있게 되어 꾀은 多情多恨한 어른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우시고 또 잘 웃으시니까요. 그리고 늘 분개하시는 일은 밖에 나간 조선 사람들이 저것은 평안도패다 이놈은 경상도패다 하고 밤낮 당과 싸움만 하였지요. 그 일에 제일 분

삼천리(三千里)

개하여 하시고 또 피차에 肝膽相照하기를 힘쓰시는 모양입니다. 바깥에 나간 뒤 제일 절친한 친구는 李東輝 그 어른이었는데 그 분과 아버지는 가끔 방안에서 책상을 두드리며 아마 이러한 과별의 시비 때문에 激論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동휘, 그 어른은 날마다 우리 집에 두 세 차례씩 안 오시는 때가 없었습니다. 실로 생사를 가같이 하시는 어른 같이 두 분은 저의 눈에도 비쳤습니다.”

“친구를 대단히 좋아하십니까?”

“네 친구라 하면 실로 당신 몸까지 떼어 주실 듯하였습니다. 누가 감기라도 앓으면 약 지어다가 주라 하시고는 아침 저녁으로 근심하심이 동기 형제에 못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기억에 나는 일은 평안도 肅川의 우리 백부가 西伯利亞에서 우리들이 병고로 고생한다는 기별을 듣고 아버지 소유로 있던 숙천 땅 열흘 가리를 팔아 2,000원이던가 3,000원이던가 큰 돈을 만들어 「니코리스크」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병석에 계신 아버지는 그 돈으로 모두 땅을 사서 약 절반은 安昌浩씨 명의로 하여 安선생에게 주고 나머진 거의 절반은 또 그곳에서 사는 柳東悅씨의 아드님 되는 청년에게 주기로 하고 겨우 10분의 1이나 되나마나한 것을 당신의 친구 명의로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친구를 위하든 일이 껍이나 많으셨어요. 어쨌든 한 번 사귄 벗과는 의례 생사를 같이 하실 것만 생각하신 듯 하였습니다.”

슬픈 생각을 돌리게 하고자 나는 두 분의 결혼 로망스를 청하니 부인은 낮을 불리며 웃음을 머금어 잠잠하시고 동석하였던 그의 남편 李應俊씨가 대신 입을 연다.

“그야 이렇게 되었지요. 나의 장인 이갑씨가 西伯利亞에 계실 때 동경의

사관학교에 있는 나에게 기별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가들게 되나 보다 하였지요. 처음 이 사람(부인을 가르치며)을 알게 된 것은 내가 평안도에서 서울로 처음 올라와 水標橋 어떤 여관집에 묵고 있는데 그 여관집 주인과 친근하시든 모양으로 이갑씨가 가끔 놀러 오시더구만.

그러다가 하루는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러는지 장래 유망한 청년쯤이다 생각하셨는지 딸 둔 아버지 본색으로 사위감을 얻었다고(그때 夫婦大笑) 그러시는 격이지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합니다. 그 분이 그때는 육군대신 부관으로 세력이 당당하던 때였지요. 그래서 그 집에 가 있으면서 그 당시는 조그마한 이 사람(부인)을 만나게 되어 가끔 놀다가도 토닥토닥하고 싸움짓거리도 꽤 잘하였지요.

나는 그때 조선서는 처음 학교라 하던 보성학교 제1기생으로 입학하였지요. 그러다가 李甲씨 지휘로 무관학교에 1년 동안 있다가 일본사관학교로 가버렸지요.

그러는 사이에 합병이 되자 그를 전후하여 안창호, 노백린, 이동휘씨 등이 해외에 나가고 이갑씨도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신문을 東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 몇 해 뒤에 무린에서 그런 기별을 듣자 얼마 안가서 우리 둘의 약혼 말씀을 유언 삼아 하시고 돌아가셨더랍니다. 그때 西伯利亞 출병이 있었지요. 그래서 나는 司令部附로 西伯利亞에 갔던 길에 길에 「니코리스크」에 내리어 하루 밤 자면서 저 사람을 찾았지요. 그랬더니 저 사람도 워낙 급하였던 모양으로 글썄 나를 찾아 벌써 元山인가 어디인가 저 혼자 나가 있었더라요. 스물 한 살 나는 노처녀였으니까 한 시가 급하였든 것도 무리는 아니었겠으나, 하하하…”

“아이구 당신이 노총각이 되어 부랴부랴 서백리아까지 찾아오시군. 호호

삼천리(三千里)

호”

두 분은 옛날 약혼시대의 달콤한 추억에 상당히 흥분되시는 양 이야기는 다시 계속된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하루 밤 머물면서 장인의 무덤을 찾아 성묘하고 그러고 撤軍과 같이 나와서 고향인 평안도 숙천서 예식을 거행했지요. 그것이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 인생은 참 빨리 흘러요”

“그런데 閔泳徽와의 六穴砲사건이라고 전하는 것이 어디까지 참말입니까”

“저도 그 일은 잘 압니다. 장인 되시는 분한테서 생전에 수차 이 이야기를 들었지요. 원래 이갑씨 부친은 평안도서도 屈指하는 큰 재산가였답니다. 그런데 이갑씨가 소년 시절에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는데 평양감사로 온 민영휘가 이갑씨 부친을 잡아다가 가진 악형을 다하며 아들되는 이갑씨의 진사를 거짓으로 임금에 속이고 얻은 벼슬이라고 가진 악형을 다하였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소유하였던 땅 40日耕, 거기는 一日耕이 5,000평이라니 20만평이지요. 그 큰 땅을 바치고 무사히 나왔더랍니다.

이갑씨 생각하니 기가 막히나 그때야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서울로 뛰어 올라와 독립협회에 들어가서 탄 뜻을 품게 되었더랍니다. 그러나 그 독립협회 조차 襍負商 난리판에 다 부서지자 이것저것 다 뿌리치고 일본으로 뛰어 들어가 成城中學을 고학으로 다녀 끝났을 때, 그때 한국정부에서 일본사관학교에 유학생을 보내게 되어 그 판에 盧伯麟, 金應善 등 제씨와 같이 8명이 뽑혀 그 학교를 마치고 日露전쟁이 일어나자 만주로 觀戰武官이 되어 갔더랍니다. 그럴 때에 한국정부에 불러 군대의 청년사관으로 있다가 육군대신 부관으로 있었지요.

그때 민영휘는 輔國이란 顯位에 있고 軍職으로는 육군중장에 있었더라입니다. 복잡의 念에 불타는 청년사관 이갑은 정말 육혈포를 사가지고 단신 閔의 집을 뛰어 들어가 담판하였답니다. 옛날 빼앗아 간 밭은 물론 10여년간 추수하여 먹은 그 돈을 전부 내놓으라고. 그래서 죽인다 살린다 하는 말이 많았는데, 閔은 정말 신변의 위급을 생각하였는지 몰래 上海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이갑씨가 상해까지 또 따라가서 그 땅을 도로 찾기에 맹세 받아 붙잡고 귀국하였지요. 그 돈으로 서북학회와 저 五星學校를 세웠지요. 어쨌든 그 분은 껍이나 걱정적이고 지략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는 아침 11시 조금 지나 오후 3시가 넘도록 부인께서 손수 차려주시는 점심까지 대접받으며 장시간 말씀을 들었다. 내가 일어서려고 할 때 부인은 아버지 말씀을 다시 하시며 언제든지 기회를 얻어 「니코리스크」로 아버지 展墓를 가시겠다고 한다. 그의 얼굴빛에는 불우하게 돌아가신 육친을 생각하는 진정에 가득 찼었다.

▷『삼천리』 제11호, 1931년 1월 1일.

필 자 : 申泰鋤

기사제목 : 조선최대재벌해부(二), 閔泳徽氏系一千萬圓, 사업체계 = 朝鮮韓一銀行, 朝鮮製絲會社, 徽文高普 其他.

조선에서 첫째로 치는 부자가 누구이나 하면 어른이나 아이나 이구동성으로 閔惠堂이라고 똑같이 대답을 한다. 그러면 이 민혜당이란 누구를 가

삼천리(三千里)

리켜서 하는 말인가 하면 이는 閔泳徽씨를 지칭하는 것이니, 氏가 한국시대에 宣惠廳 堂上을 오랫동안 지냈던 까닭에 惠堂이라고 지금까지 세상에 서는 불려온다. 과연 조선에서 첫 손가락 꼽는 부자인 것이 사실이다. 氏를 누를 만한 富力을 가진 이가 있다는 말을 오늘까지 듣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제일의 부자인 閔씨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氏의 약력을 한번 들어보고자 한다.

氏는 壬子 5월 5일 京城生으로 당시 국권을 장악하고 어느 바람이 불든 勢家인 閔氏 문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문벌을 가진 氏인만큼 그의 출세는 사닥다리 올라가듯이 빨랐을 것은 물론이다. 어떤 貴族錄이란 冊에 실린 것 중의 官職 몇을 들면 아래와 같다.

檢閱……寧變府使……漢城左右府尹……都承旨……平安監司
宣惠廳堂上……侍從院卿兼任內大臣(子爵)

한말 당시의 정계가 混沌하였을 때에 이상과 같은 관직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하여 蓄財의 마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晏然히 축재를 할 여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閔씨는 財利에 선각자이었던지 관직을 가지고서도 一面 축재에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고 각 방면으로 부력의 증대에 열중하였었다 한다. 그래서 오늘의 富名을 듣고 있는 재물이란 것도 당시에 모은 것이다. 하여간 氏는 致富에 있어서는 남 유달리 특질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모았든지)

〈얼마만한 財産이 있나?〉

조선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 하니 그 재산이 얼마만큼의 額에 달하는지 알고 싶은 생각이 날 것이다. 그러나 남의 재산을 너무 똑똑히 공개하는 것도 신용관계가 될 뿐 아니라 정확한 수자를 알아내기도 가장 難事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주먹구구의 계산으로 氏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조선에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動産 같은 것을 많이 가진 이가 아니라 거의 전부가 땅, 즉 農土를 많이 가진 이들이다. 그래서 在來로부터 부자의 재산을 말할 적에 돈으로 계산하여 몇 천 만원의 부자라고 부르지는 않고 천석꾼이니 만석꾼이니 하여 쌀 추수의 石數로서 부자의 재산을 평가하여 왔다. 이 閔氏도 조선의 부자임으로 역시 그의 재산이란 것도 주로 전답인 모양이다. 과연 조선에서 농토를 많이 가진 이는 氏가 제1위를 점한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氏의 소유토지가 平安道를 비롯하여 전 조선 각 도에 없는 곳이 없다. (오직 咸鏡道가 빠졌을 뿐이다) 그런데 氏의 재산에 대하여 某處의 조사를 근거로 한 수자가 아래와 같다.

1. 農土 6~7백만원 (약 5만석)
1. 소유 가옥 건물 기타 1,000,000원 가량
1. 소유 株券 1,000,000원 가량

이상의 수자로 보아서 閔씨의 재산이 10,000,000원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그다지 誤算이 없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 났으니 말이지 실례가

삼천리(三千里)

될지 모르지만 氏의 가정형편을 엿보고자 한다. 氏에게 딸려 살아가는 집이 10여개라고 한다. 이는 모두 氏의 子姪들이다. 그래서 전부의 생활비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이 돈이 모두 氏의 금고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이 閔氏 일족이야말로 황금의 殿堂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쌍가마 속에도 걱정이 있다는 말과 같이 氏의 家中에도 재산을 중심으로 한 걱정이 있다는 소식이 근자에 떠돈다. 그 소식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첫째로 그의 일가에서 쓰는 생활비가 늘면 늘었지 줄어갈 이치가 없고, 둘째로는 氏가 신임하여오던 氏의 次人인 某氏의 1년 추수액 이상을 XXX다는 풍설이다. 그래서 여유가 綽綽한 氏의 살림도 좀 困窮을 안 느낄 수 없게 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것쯤으로는 氏의 재산에 滄海의 一粟과 같은 損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말은 깊이 파묻힌 남의 家庭之事이므로 그만 두거니와 氏의 富力이라는 것은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견고히 보전해오는 모양이니 氏의 子姪 중에 몇 사람의 돈 쓰는 이가 없지 않은 터이나 그 외에는 父傳의 교훈을 받은 까닭인지 모두 철저한 一家主義, 즉 保家蓄財에 힘을 쓰는 터라고 한다.

〈世評과 一言〉

閔씨의 富力을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閔씨의 재산출처를 가지고 시비를 말한다. 아닌게 아니라 氏의 재산에 대하여 출처를 찾아서 말한다면 얼마든지 시비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말을 새삼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 오늘에 그 출처를 들쳐서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 효과가 없고 도리어 人事의 공격이 되고 말 뿐이다. 그럼으로 나는 閔씨의 현재를 말하는 동시에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

조선에는 조선사람을 위하여 할 일이 너무도 많아 갈피를 잡기 어렵다. 이런 때인 까닭에 사업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터이다. X문은 돈이라고 내어버리고 깨끗한 돈만 찾고 있을 때인 조선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조선사회를 위하여 사업을 한 이로는 金性洙씨의 다음으로서는 이 끼씨를 칠 수 밖에 없다.

학교, 은행, 製糸會社 등의 사업을 한 것은 조선사회를 위하여 많은 공적(말하기에 달렸지만)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氏는 이것으로서 만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世間の 비난유무를 불구하고 조선 제일의 부자인 만큼 적어도 부자다운 체면을 보전하려면 앞으로 조선사회를 위하여 할 사업이 아직도 많고 많음을 끝으로 말해둔다.

〈徽文高等普通學校〉

국운이 다하여 風雨難定인 시국에 몸을 두고도 이 틈을 타서 蓄財에 마음이 불타듯 하는 氏의 胸中에도 무엇을 느꼈는지 자기 집안에다가 光成義塾이란 牌를 붙이고 학생을 모집하여 신식 학문을 가르켰다. 이리다가 光武 10년 4월에 비로소 徽文義塾이라는 학교를 지금의 徽高基地에다가 설립하여 조선의 일꾼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학교의 비용은 氏의 부담으로 지출이 되어 오다가 1922년에 이르러 평안도의 安州, 平原, 等地的 전답을 主로 하여 재단법인의 휘문고등보통학교를 만들어 地盤을 견고케 하여 조선내의 사립학교로 당당한 雄姿를 나타내게 되었다. (一說에 의하면 安州, 平原 等地的 토지라는 것은 氏의 사위되는 金思稷이란 사람과 XX한 끝에 XX의 產物이라 한다.) 그 재단법인의 재산은 주로 토지이며 價額은 약 700.000 가량이라 한다.

삼천리(三千里)

〈朝鮮韓一銀行〉

趙秉澤, 白寅基 諸氏의 발기로 明治 39년(1906)에 자본금 150,000원의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설립되었다. 그뒤 자본금을 500,000원으로 해가지고 경영하다가 大正 4년(1915)에 경영자의 실책으로 경영난에 빠져 일시 은행문을 닫게 되는 悲境에 이르렀다. 이때에 閔씨가 同 은행을 인수해가지고 은행의 업무를 채신하며 大正 8년(1919)에 자본금을 1,500,000원으로 하고 다시 氏의 令息인 大植씨가 사장인 廣業株式會社와 합병하여 자본금을 2,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동시에 氏는 은행의 頭取를 大植씨에게 미루고 물러 앉아서 조종만 하고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湖西銀行과 합병을 하여 한일은행이라는 명칭을 朝鮮東一銀行으로 고치고 자본금은 4,000,000원으로 된 것이다. 여하간 조선사람의 경영으로는 京城에서 海東銀行과 한가지로 단 두 곳 뿐이다.

〈朝鮮製糸會社〉

이 회사는 大正 6년(1917) 好景氣시대에 石鎭衡씨 등 발기로 경성제사회사가 설립되었다가 大正 9년(1920)에 朝鮮商事會社와 합병되어 자본금 1,000,000원의 조선제사회사로 개칭이 되었다. 그러나 경영난이 甚大케 되어 이때에는 閔씨가 同 社株를 매수하여 同社의 권리를 점하는 동시에 사장으로 閔丙奭씨를 앉히고 자기는 뒷줄만 잡고 앉아있었다.

同會社의 최근 年産額을 보건대,

生絲 58,373斤 746,134圓

生皮苧 1,993貫 22,171

揚繭 1,114 3,448

薄皮付蛹 17,094 3,383

즉, 매년 775,000여 원의 생산을 하고 있는 터이다.

〈其他의 諸方面〉

氏가 財利에 눈이 밝은 만큼 지금에도 남모르게 뒤에 앉아서 殖利를 한다는 말이 있다. 어떠한 방편이든지 利만 남을 것 같으면 뒷돈을 대준다고 한다. 鍾路商界라든지 貸金業者라든지 어떠한 방편은 물론하고 氏와 관계를 맺은 곳이 상당히 있는 모양이다.

▷ 『삼천리』 제14호, 1931년 4월 1일.

필 자 : 朱潤,

기사제목 : 조선최대재벌 해부(四), 2백만원의 은행왕 박영철씨 -朝鮮商業銀行, 米穀倉庫等에 關係.

〈實力은 2百萬圓說〉

多山 朴榮喆씨는 현재 서울에 본점을 두고 全鮮 各處에 지점과 대리점을 가진 자본금 9백만 원의 朝鮮商業銀行의 頭取로 있다. 우리는 이미 조선 최대의 재벌로서 토지에 閔泳徽씨, 金鑛의 崔昌學씨, 紡績의 金性洙씨 등을 보았거니와 이제 기술하려는 朴榮喆씨에 이르러, 혹은 現有의 所有된 富에 이르러서는 前記 三氏보다 손색이 있다 할 것이나 그러나 금융계에

삼천리(三千里)

군립하고 있는 氏의 장래에 대해서는 그 이상 더 주목할 바가 있으리라고 믿는 터이다.

세상사람들은 민영휘씨의 재산을 1천만원 이상, 김성수씨 係를 5백만원 이상, 최창학씨를 3백만원 이상이라 하거니와 지금 論하려는 朴榮喆씨의 재산에 대하여는 혹은 4~5백만 원이라고도 하고, 혹은 單백만원 이라고도 부르는 모양이나 필자의 조사로 보건대 약 2백만 원은 된다고 본다. 이것은 氏가 근대 산업방면(卽工場其他)에 투자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어느 곳 어느 곳에 얼마 얼마의 投下資金이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서 그러함이나, 그러나 현재 사장의 椅子를 차지하고 있는 상업은행의 所有株券(朝鮮人 株主중에는 最大 株主이다)과 京城昭 格洞의 半洋制家屋 및 그밖의 時價 약 만원과 貯金과 미곡창고 기타의 은행회사 株券, 그리고 全州와 이리평야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평가 합산한다면 2백만 원은 不下할 것이다 함이 正鵠을 얻은 測定이리라.

그리고 氏는 경제계에 대한 식견이 있다. 민영휘, 최창학, 김성수씨 등에 비하여 그 장래의 발전, 즉 보다 많은 부의 증대를 豫期할 수 있게 하는 강점이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현재보다도 장래가 더욱 괄목하게 금융계에 飛躍할 듯한 氏는 그러면 어떠한 위인이던가.

〈最初는 武官으로〉

氏는 開國 488년생이니 今春 52세 전북 전주, 一小商家에 태어났었다. 부친은 금일 전라도 53州에서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듯한 토지왕 朴基順씨, 박기순씨는 열두 살 되던 해에 부친을 여이고 다른 상점의 사환노릇을 하다가 미곡상을 自營하여 끝끝내 전주평야의 미곡을 軍산에 移送하고 다

시 인천에 回航하여 그리하여 처음으로 巨利를 얻었다. 얻은 그 巨利로 조금씩 조금씩 三南의 沃野를 사들였다. 자수성가한 이 지주는 만석꾼의 이름을 들은 지 벌써 10여 년이다.

氏는 전주 三南銀行을 창립하여 조선인 중심의 金融地盤築成에 노력하고 또 그 책임자가 되었던 일도 있으며 여러 회사의 중역들도 역임하였다.

이러한 이를 아버지로 가지고 태어난 세습 재산상속의 행운아가 朴榮喆씨이니 氏는 응당 앞으로 이 全州沃野의 주인이 될 것이다. 朴基順씨는 벌써 74의 고령이니까.

박영철씨는 東京에 들어가 사관학교에 다녔다. 그때 氏의 同窓 속에는 李甲, 柳東悅, 金應善씨 등이 있었고 先輩로는 盧伯麟, 趙性根씨 등이 있었다. 卒業未幾에 일로전쟁이 터졌다. 氏는 근위사단 기병연대 士官으로 滿洲에 종군하였다. 그때의 사단장이 長谷川好道이었다.

多山이 출정 중도에 義州統軍亭에 올라 詩一首를 지은 것이 있다.

表裡山河關防地 登臨今古少英雄
腰間寶劍吟龍吼 雨後長歌氣貫虹

그뒤 일로전쟁이 끝난 뒤 한국정부의 부름을 받아 舊韓國 무관학교 교관, 유년학교 교관, 군부 부관, 나중에는 시종무관까지 역임한 뒤 합병 이후 군수, 參興官, 도지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다가 그 부친이 昭和 2년(1927) 1월19일 三南銀行總會의 사장을 사임하자 氏가 후임 取締役(이사)이 되고 나중에 사장으로 되었었다.

삼남은행은 자본금 백만 원의 은행이다. 이것이 여러가지 사정을 거쳐

삼천리(三千里)

현재의 조선상업은행과 3년 전에 합병함에 이르렀다. 그때 氏는 부사장이었으나 이번 봄에 和田 사장이引退한 후, 그 뒤를 이어 바로 사장이 되었다. 商銀은 光武 3년(1899)에 창립된 조선 최초의 은행 天一銀行의 후신으로 13도 각지에 20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그 활약은 만인의 눈을 끈다고 할 것이다.

銀行業者로 氏가 앞으로 얼마나한 수완을 펼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그 업적을 보아 비판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우선 이에 그치기로 한다. 더욱 日加月增으로 축적에 다시 축적되는 氏의 자산은 장차 산업, 교육 등 방면에도 투자되어지지 않을까. 흥미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氏는 조선미곡창고회사를 위시하여 京鄕의 중요 회사에 중역을 맡고 있는 곳이 많다. 도지사를 물러날 때 東拓會社의 감사에 취임하였다.

▷ 『삼천리』 제3권 제10호, 1931년 10월 1일.

기사제목 : 朝鮮日報 東亞日報 社長公薦 結果發表.

그년 봄에 본사에서 조선 사회의 중요기관인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 사장의 공천을 널리 半島人士에게 요청하였던 바 규정대로 모집 기일까지 전부 1,032 표의 多數한 투표가 海內, 海外로부터 있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들 사회 민중의 의사를 결합 반영한 것이라고 믿고 이에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단, 신간회 중앙위원장에 대한 공천결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눈물을 머금으며 그 발표를 중지하게 되었사오니 투표 諸氏의 심심한 양해를 바

라거니와, 더욱이 이와 같이 신간회의 지도급 인물의 공천 諸氏를 발표하지 못하게 되는 관계상, 幾多 知名人士의 氏名을 일제히 대중의 시야에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전체의 인물 배치상으로 균형을 잃은 유감된 결과를 초래하였나이다. 그러나 그 부득이한 사정이므로 우선 가능한 양쪽 신문사장 만이라도 이에 발표하는 바이다.

〈朝鮮日報 社長〉

安在鴻 : 112표, 申錫雨 : 91표, 宋鎮禹 : 8표, 尹致昊 : 6표, 金性洙 : 5표, 崔麟 : 4표, 李相協 : 4표, 許憲 : 3표, 韓基岳 : 3표, 李光洙 : 3표, 申興雨 : 3표, 李晶燮 : 3표, 柳光烈 : 3표, 安昌浩, 金俊淵, 洪命憲, 徐廷禧, 鄭仁果, 朱耀翰, 李種浩, 張志暎 각 2표

(1표는 생략)

〈東亞日報 社長〉

宋鎮禹 : 164표, 李光洙 : 24표, 金性洙 : 13표, 安在鴻 : 7표, 崔麟 : 6표, 張德秀 : 6표, 朱耀翰 : 6표, 申錫雨 : 5표, 尹致昊 : 5표, 呂運亨 : 4표, 曹晚植, 金炳魯, 許憲, 李相協 각 3표, 朴泳孝, 閔泳徹, 洪命憲, 鄭雲永, 薛義植, 李敦化, 兪鎮泰, 玄相允, 韓炳洛, 申興雨 각 2표(1표는 생략)

追告 : 투표 인원 총수는 1,032명이었으나 그 중에서 신간회 중앙위원장에 대한多數 표수를 控除하여 버린 결과 위와 같이 조선, 동아 兩 신문사장에 대한 투표만을 計上하여 발표한 것이로소이다.

삼천리(三千里)

<투표하신 분에게>

규정에 의하여 투표총인원 1,032씨 중으로부터 左記 50 인을 抽籤으로
엄정 선출하고, 이 분들에게 약소하나 本誌 1개년 분을 無代進程하기로
하였나이다. 다만 신간회 중앙위원장에 투표한 諸氏에게만은 아무 것도 사
례를 못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른 기회에 다른 형식으로 그 후의를 보답
할까 하웁니다.

濟州道 : 高詩珍, 京城 : 金邴世, 北間島 : 元忠淳, 咸北 鍾城 : 金七
星, 仁川 : 河桂憲, 平南 平原 : 申榮壁, 全南 咸平 : 李載淵, 鎭南浦 :
朴敬元, 大阪 : 吳日龍, 京城 : 河容洛, 忠南 保寧 : 黃暎秀, 上海 : 朴
金錫, 北青 : 韓瑞鎭, 宣川 : 許恒術, 平壤 : 崔惠男, 黃海 金川 : 朴鎬憲,
平南 平原 : 千利浩, 大邱 : 徐希, 平壤 : 崔得彥, 京畿 振威 : 李喜秀,
咸北 清津 : 禹錫九, 平北 定州 : 朴德根, 京畿 高陽 : 金敦鳳, 全南 靈光
: 鄭鍾五, 平北 宣川 : 吳應漢, 黃海道 白川邑 : 趙台濬, 江原道 華川 :
李俊命, 平北 新義州 : 洪海德, 同郭山 : 朴忠健, 京畿道 加平郡 : 王天
一, 北滿 吉林 : 金奎一, 咸北 茂山 : 方萬金, 大阪 : 金炯培, 元山 : 金
演義, 全南 咸平 : 秋園, 咸南 端川 : 李英喆, 慶南 咸安 : 趙鵬來, 平南
价川 : 安道珍, 慶南 固城 : 李項洙, 新義州 : 崔仁葉, 平北 鐵山 : 金子
鎭, 全平 羅州 : 朴準, 平南 龍岡 : 金俊世, 布哇 호노루루 : 李元錫, 平
南 平原 : 金衝胤, 京釜線 平澤驛前 : 趙成河, 慶北 榮州 : 尹鎬梧, 市內
光化門通 : 金明圭, 高陽郡 延○面 : 金慶○, 平南 平原 : 金利筆

▷『삼천리』 제4권 제2호, 1932년 2월 1일.

기사제목 : 三千里 「壁新聞」

〈천석꾼은 몇 명이나 되나〉

閔泳徽, 朴榮喆, 崔昌學 등을 모두 만석꾼이라고 부르는데 대체 지금 조선 안에는 천석꾼이 몇 명이나 있는고.

己未年에 경무국에서 이것을 한번 조사한 일이 있었다. 즉 천석꾼이라 하면 年 추수 천석을 가지는 자를 이르는데, 벼 한 섬에 6원 씩 잡아도 年收 6천 원 이상이 있어야 이 자격이 있다. 그런데 천석을 하자면 적어도 토지가 10만원어치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10만 원 이상의 부자가 얼마나 되는고.

864인이라 하는 것이 경무국에서 조사한 숫자이니 이것은 아마 정확한 것이리라.

경기가 한창 좋은 大正 8년(1919)에 8백여 명 밖에 안되었으니 불경기가 심한 지금쯤은 아마 부족 줄었을 것이다. 경무국에서는 해마다 조사하는 모양이나 外間에 발표를 하지 않아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실업가의 말을 들으면 東拓, 殖銀에 아니 넣고 그냥 천석의 전지를 가지고 있는 대지주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치나 남았을까 함이 아마 정당한 관측일걸.

〈純宗께서와 너〉

돌아가신 純宗(隆熙帝)께서는 퇴위하신 뒤까지도 故 李完用을 부를 때

삼천리(三千里)

에 늘 “너”라고 하셨다. 이완용은 아무리 신하라도 너무 심하더라고 만년에 知己에게 고백하더라.

▷ 『삼천리』 제4권 제3호, 1932년 3월 1일.

필 자 : 柳光烈,

기사제목 : 有名人士 三兄弟 行進曲, 閔木植씨 三兄弟, 金性洙씨 三兄弟, 崔南善씨 三兄弟, 張德秀씨 三兄弟.

“君家兄弟는 莫能當”이라는 말은 남의 형제에 대한 부러워하는 말이다. 조선에도 남이 부러워하는 형제가 몇 사람 있으니 그들을 열거하여 보라는 것이 『三千里』 편집자의 부탁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 글을 쓰는 것이 그들의 형제를 부러워하는 의미에서 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상에 다소 知名한 사람을 골라서 소개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閔衡植, 閔大植, 閔奎植〉

이 삼형제는 조선에서 부호로 유명한 민영휘씨의 아들 삼형제이다.

長兄 민형식씨는 학교출신은 아닌 듯하나 한문이 상당하고 서법에는 조선에서 명필이라는 이름이 높고, 또한 민형식씨라면 書畫界에 모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는 부잣집 장자이다. 愛人下己하는 미덕이 있고 窮老貧戚을 많이 도와준다고 한다. 근일 재단법인 휘문고보 이사로서 있으나 다만 窮交를 많이 도와주는 미덕이 오히려 빌미가 되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말까지 있다.

그 다음 민대식씨는 英國 모 대학출신으로 현재 東一은행 중역으로 있으며 재계에 상당한 이름이 있으나 사회적 사업에 극히 냉담하다는 것은 섭섭한 일이다. 근자에 啓明 俱樂部 문화사업에 상당한 用力을 한 것이 있다는 말도 있다.

끝으로 민규식씨는 英國 劍橋(캠브리지:역자주)대학출신으로 형을 도와 재계에 힘쓴다고 한다. 사교계에 별로 나서지 않음으로 보아 그는 거부의 아들과 대학출신의 자격으로 조선 사회에 대하여 냉담한 듯하다. 아마 그 全實力을 자신의 편리에만 기울이지 않은가? 최근에 鍾路通에 지은 東亞 백화점 집이 그의 소유라 하나 이것이 사회에 대한 공헌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이 삼형제는 상당한 실력이 있으며 사회사업에 用力이 적은 것이 유감이다.

〈金性洙, 金奎洙, 金在洙〉

김성수씨는 여기에 소개하기에는 너무도 유명하다. 中央學校, 東亞日報, 京城방직, 海東은행은 그의 사업 범위 속에 들어있다. 全南 苗浦의 한 지주의 아들로 지금에는 전 조선의 명사가 되었다. 최근에 그는 조선에서 최초로 民立대학을 계획하여 밤잠을 못 잔다고 하니 그 성과는 접어두고라도 의도만은 고마운 일이다. 早稻田大學 政經科 출신이라는 학력쯤은 그의 전인격에 대하여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은 일이다.

그 다음 김연수씨는 京都帝大 經濟科 출신이다. 그는 학력도 상당하러니와 치밀한 두뇌는 理財에 밝아 형이 경영하는 각 사업에 대한 기업 방침은 대부분 그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하며 현재 海東은행 전무로 있어 재

삼천리(三千里)

계에 상당한 명망이 있다. 왜소한 그의 체격은 一睨에 빈약하여 보이나 자세히 보면 어디인지 울창하고 다부진 데가 보인다. 형인 성수씨가 養家로 出系하여 전 재산을 사회사업에 소비하자 그는 뒤로 다니며 수습에 힘쓰고 자가 재산도 대부분을 쓸어 넣어 일찍이 그 형에 대하여 怨言이 없고 무슨 사업에든지 형을 내세고 자기는 뒤로 서서 모든 공로와 명망은 형에게 돌린다고 하니 또한 미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씨가 몇 년 전에 폐병으로 중태에 빠졌을 때에 그 형 성수씨가 日夜로 통곡 애호하며 “동생이 불행하면 자기 사업도 다 보는 날이라”고 절망의 비통한 말을 한 것도 당연 이상의 당연한 것이다.

끝으로 김재수씨는 아직 年淺하나 齊洞에서 정미소를 경영하고 동대문 밖에서 製絲사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학력은 알 수 없으나 중등 정도 이상인 듯 하다고 한다.

〈崔昌善, 崔南善, 崔斗善〉

최창선씨는 黃金町에서 문화기관 新文館을 경영하기에 그 재산 대부분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 아우 최남선씨가 문화사업에 그만한 돈을 쓰되 일찍이 원성이 없고 철두철미 후방의 「파트론」으로 自甘하였다고 한다.

최남선씨도 여기에 소개하기에는 너무도 유명하다. 新文館 창설 이래 10여년을 조선 신문화 개척에 힘쓴 공로자이다. 다만 최근에 이르러 그 명성이 점차 失光無色한 것은 섭섭한 일이다. 조선 사학계에 一頭地를 들어낸 씨는 학력으로도 이렇다 할 것이 없으나 대부분이 자습독학의 대성이다. 최두선 씨는 현 中央학교의 교원으로 早稻田대학을 제1등으로 졸업하고 조선에 돌아온 후 中央교장을 역임하고 독일에 가서 철학을 배워와

귀국한 후 일시 명예에 다소 금이 갔었으나 지금은 근신하여 전의 이름을 회복하는 중이다.

〈張德俊, 張德秀, 張德震〉

장덕준씨는 황해도 載寧 농부의 아들이다. 早稻田에 학적을 두었었고 東亞日報 기자로 있다가 간도사변에 가서 영영 생사불명이 되었다. 성질이 감격하기 쉽고 인정이 많으며 정치적으로 일가견이 있다는 사람이다.

장덕수씨는 현 東亞日報 부사장으로 英京 倫敦(런던:역자주)에 유학중이다. 그는 早稻田 대학출신으로 東亞日報의 기자가 되었을 때에 이미 유명하였었다. 그가 모 결사사건에 불리한 말을 듣고 米國(미국:역자주)에 건너간 지 10년이다. 그는 장래가 많은 사람이다.

장덕진씨는 역시 감격하기 쉬운 사람이다. 그 두 형과 달라서 多分の「테러」기분을 가졌었다. 〇〇년에 가서 滿洲의 雪月을 밟으며 울기도 많이 울고, 黃浦灘에 물소리에 목도 많이 메이면서 무슨 일을 해보려고 애도 많이 쓰더니 年前에 上海에서 비명횡사를 하였다. 그 죽음도 역시 일종 희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삼천리』 제4권 제4호, 1932년 4월 1일.

기사제목 : 萬目注視하는 三大爭霸戰, 東一銀行과 海東銀行의 金融戰, 朝鮮劇場과 團成社의 興行戰, 明月館과 食道園의 料理戰.

〈東一銀行이나, 海東銀行이나 400만 圓의 東一과 200萬 圓의 海東
人材 配置와 營業 手腕 등은 어떠한가?〉

東一은행과 海東은행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피차에 좋은 적수요, 또한 爭霸戰을 부리나케 한번 치러보고야 말 형세에 놓여 있다고 관찰된다.

이 두 은행이 경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半島재벌의 兩巨頭 민영회계통과 금성수 계통이 쟁패전을 치르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두 재벌의 중심역량이 모두 그 은행에 모여 있는 관계로 금후의 성쇠우열은 일반 세인에게 비상한 흥미를 가지게 한다.

이제 나의 붓은 東一은행과 海東은행의 금융왕국으로서의 그 陣營을 살펴보기로 하리라. 그런데 한 가지 곤란한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은행이란 신용을 상대로 하는 곳인 만큼 어느 정도까지 探知하여 낸 그 내용이라도 그것을 일일이 적나라하게 모두 기록할 수는 없다. 이것은 사회도덕상으로 지켜야 할 규율이리라. 그러기에 나는 부득이 표면에 드러난 자료를 가지고 종합하여서 적당히 소개하는 정도에 우선 끝내두려고 한다.

〈東一銀行一閱泳徽 財閥의 總本營〉

東一은행은 본점을 京城 남대문 통에 두고 지점을 서울시내의 4개소와 江景, 群山, 元山, 減興, 金化, 天安, 禮山, 安城, 洪城 長湖院, 大川 등 약 20곳에 둔 400만원의 一大 주식회사이다.

그런데 자본금이 400만원이라 하여도 실상 불입한 것은 금년까지에 2,775,000원인데 이 밖에 현재 적립금 73만 원이 있다. 창립된 것이 舊

韓國 당시인 明治39년(光武 8년:원본, 광무10년=1906)이었으니 벌써 20여 년을 경과하였다.

이제 간단히 東一은행의 창립 연혁을 이야기하고 지내는 것이 전후 관계를 아는 첩경이리라. 東一은행의 본명은 韓一은행으로 明治39년(1906)에 度支部 大臣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을 때는 50만원의 公稱 자본금 밖에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明治41년(1908) 3월에 그 자본금을 50만원으로 增資하였다. 그 뒤 다시 大正8년(1919)에 이르러 제3차로 增資하여 150만원이 되었다가 大正9년(1920) 10월에 廣業주식회사(자본금 50만원)와 합병하였고, 그뒤 또 昭和6년(1931) 1월에 湖西은행(자본금 200만원, 拂込 150만원)과 합병하여 상호도 東一은행이라고 고치는 한편, 자본금도 400만원으로 增資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현재 년 6%의 배당을 하고 있다.

〈大株主는 누구들인가〉

東一은행은 누가 돈을 내어서 세운 은행인가 하면 그것은 아동들도 모두 알고 있다시피 조선감부 민영휘씨가 주요인물이 되어 설립한 것이라고 본다.

그가 사실인 것이 株 4만株 중 민가 일족이 가진 株가 태반이다. 즉 徽文義塾이 2,623株, 민씨의 아들 민규식 씨가 1,265株, 둘째아들 민대식 씨가 1,072株, 민중식 씨가 1,030株나 가지고 있고 그밖에 민씨 일족과 끝내지 못 할 관계에 있는 주식 수도 또한 상당하다.

그렇지만 한 가지 여기에 주의 할 일은 東一은행 속에는 과거에 금연수

삼천리(三千里)

씨 系의 株가 상당히 있었으나 後項에 말하겠지만 그것이 모두 海東은행으로 넘어갔다. 그러기에 금성수씨 系의 재벌과 합작하던 시대보다도 東一은행의 기반에 다소의 變遷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東一은행의 영업 상태를 엿보고 싶다. 즉 얼마나 예금을 세상에 게서 맡고 있으며 그 반면에 또 얼마만한 貨付金을 가지고 있고, 그 回收 상태는 어떠한가. 할인 어음이나 株主에 대한 「憵定」 등은 어떠한가에 대해 일일이 말하고 싶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다른 기회로 미루고 다만 인물 배치에 一瞥의 勞를 보내려한다.

〈人材의 배치는 어떤가〉

東一은행의 사장은 민대식씨요, 專務 理事役に 成樂憲, 理事役に 尹偉炳, 吳建泳, 金星權의 三씨요, 監査役に 李升雨, 白南復의 兩씨요, 顧問에 민영휘 씨다. 민대식씨는 벌써 세상에 수차 알려진 인물로 多年간 영국에 유학하여 劍橋대학(켄브리지대학:역자주) 경제과를 마친 분이요, 理事役이자 서무과장인 尹偉炳씨는 일찍이 神戶 고등상업을 마친 수재로 졸업 후, 조선은행에 勤務하면서 조선인으로서 유일하게 주임 급에 올랐던 인재이다. 年40의 충청도인인데 그 수완은 옛날 업무과장 시대에 벌써 정평이 있었다.

비서의 任兢淳씨는 또한 神戶 고등상업을 나와 湖西은행 등 지방은행에서 盛名을 날리었던 京城출생의 40여세 된 신사요, 업무과장의 吳健泳씨는 高普졸업의 학력밖에 없으나 다년 도청 같은 관계에 있었고 그 뒤는 湖西은행 지배인으로서 수완을 날렸다. 전무의 成樂憲씨는 年50의 충청도 예산 출생의 온후한 신사이며, 본점 지배인의 李恒鍾씨는 普成專門 강사로

있다가 漢城은행 行員을 거쳐 현직에 다년간 재직하고 있는 분이다. 이밖에도 간부와 行員중에 두각이 드러난 이가 많지만 대개 여기에서 그치기로 하고 이제는 海東은행으로 넘어가자.

〈海東銀行—金性洙재벌의 總本營〉

海東은행의 본점도 서울 남대문 통에 있는데 大正9년(1920)에 尹德榮, 申哲勳, 沈相翊씨 등의 손으로 창립되었던 것은 아마 누구든지 아는 사실 이리라. 公稱 자본금이 200만원이요 그중 불입이 80만원이며 적립금도 또한 거액을 算한다.

원래 이 은행은 몇 해 전만 해도 금융조합이 조금 큰 것이라 할 정도로 규모가 그리 크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계속하여 다 닥쳐오는 경제계의 불황 때문에 영 부진하고, 간부 사이에 내분이 생겨 우려할 소문이 언달아 세상에 전하더니 마침내 5년 전에 金性洙系 재벌의 總師이자 新進氣銳한 金季洙씨가 인계함에 이르러, 銳意 내부의 개선과 정리를 勵行하는 한편, 외적으로 對世間的 신용도 회복하기에 노력하여 不出 幾年에 조선에서 손꼽을 만한 금융계의 패자 지위에 나가게까지 되었다. 海東은행에는 유력한 衛星이 있다. 그것은 동아일보와 영등포 紡績회사와 中央고등보통학교와 또 京城染料주식회사의 이것이다. 중앙고보의 재산도 여기에 任置되어 있고 동아일보사의 收支하는 돈도 이 은행에 한번은 預入되며 영등포 紡績회사의 社金도 항상 이 은행에 예치되고 그 반면으로 은행의 자금도 이 모든 일련의 사업단체의 손을 거쳐 상당히 많은 양이 밖으로 빠져 나간다.

이것은 東一銀行도 이와 같은 衛星을 가지고 있다. 徽文義塾이나 京紡의 자금이 東一은행에 集注되어있다고.

삼천리(三千里)

그렇지만 海東은행 같이 그 관계가 밀접치 못하고 원할치 못하다고 하는 말이 들린다.

〈大株主는 누구누구?〉

海東은행이 金性洙씨 재벌의 총본영이라 함은 여러 번 再說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거니와 가장 단적으로 이 말을 확증하는 실례로는 그 은행의 大株主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으리라.

總株數 4만株(株主數 93명) 중 金季洙씨가 가진 것만 3,882株, 그 아버지 金喞中씨가 가진 것이 1,300株, 金性洙씨가 가진 것이 1,000株, 이 밖에 같은 族戚이 가진 株數가 상당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모두 전라도의 부호들이 즐겨 海東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있다. 大株主의 이름을 일견하건대 前記한 것 외에 金相暖 3,600株, 朴孝 3,000株, 金相浹 2,780株, 金相浹 1,870株, 高姬柱 1,820株 기타 諸씨들이다. 어찌되었든 海東은행의 주주 대부분이 전라도의 부자들이라 하건대 東一은행의 大株主의 대부분은 충청도 부자들이라 함도 또한 좋은 對照이다.

〈人材의 配置는 어떠한가?〉

海東은행의 陣容을 보면 전무 이사역에 金季洙씨라, 씨는 金性洙씨의 實弟로써 일찍이 明治대학을 마친 財理 方면의 인재로서 세상에 정평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再說을 그만두고 이사역에 金在洙, 李之松의 두 분이 있고, 지배인에 文尙宇씨, 監查役에 金炳魯, 高光駿의 양씨가 있다. 金炳魯씨는 일찍이 조선 변호사협회 회장과 新幹會 중앙위원장을 지낸 법조계, 사상계의 거물이며, 지배인의 文尙宇씨는 일찍이 東京에 건너가서 慶應인

가 早稻田인가의 商科를 마친 수재로 부산에 있는 慶南은행을 거쳐 韓一은행에 있다가 다시 湖南은행의 지배인으로서 다년간 수완을 발휘하던 분이다. 지극히 검소하고 책임감이 굳센 씨를 海東은행이 가졌음은 은행 업무가 堅實하게 나가는 것을 입증함이라.

副지배인의 崔善文씨는 京城법학전문을 마친 수재로서 원래 漢城은행의 평사원으로 다년간 있었던 만큼 일반 업무에 정통한 품이 놀랄만하다. 이 밖에도 인제가 星羅와 같은 것이 이 은행의 현상이다.

〈어느 쪽이 더 盛할가?〉

어쨌든 통틀어 말하건대 朝鮮은행 같은 中央은행이 일반 은행 모양으로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리고 18은행, 제1은행이고 하는 지점은행들이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서 금융계에 飛躍하고 있어서 자본에 劣勢未免인 여러 은행은 자연히 늘리고, 또한 小자금 유통에 대하여는 그 아래에 있는 금융조합 같은 금융기관에서 분주히 흡수하고 있어 중간 은행들은 이사에서 꺾이나 괴로운 현상에 있는 것이 요즘 은행계의 현상이다.

이와 같이 위로 늘리고 아래로 늘리는 모든 은행의 금후는 특별한 식견과 재능을 가진 인재의 출현에도 많이 달렸거니와 아무튼 東一은행과 海東은행의 壯烈한 쟁패전은 不出幾年하여 백열화하지 않을까?

〈朝鮮劇場이나, 團成社나—서울장안의 수십만 관객을 쟁탈하는 극장의 쟁패전은?〉

朝鮮극장과 단성사는 서울에 있어서 조선 사람의 손으로 경영되어 나가

삼천리(三千里)

는 오직 일개 민중 오락기관이다.

들이 다 날마다 수백 수천의 관중을 日日夜夜로 포용하여 혹은 연극으로, 혹은 음악으로, 혹은 영화로 기쁨이 없는 30만 시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두개의 오락 진영을 부감해 보겠다.

〈朝鮮劇場—資本金 八萬圓, 發聲映畫가 特色〉

朝鮮극장은 인사동에 있다. 洋製 3층의 瀟灑한 건물이 탑골공원 부근의 市(역자주: 원본에서는 기사내용의 연결 쪽수가 바뀌었으나 원본대로 입력함)여 먹으면서 까지 정성으로 團成社를 붙잡아 내려오는 중이다. 이를 통제하고 지도하는 사람으로는 朴晶鉉씨가 있다. 씨는 前지배인이요 현재의 主務이다.

단성사의 특징은 朝鮮영화의 제작에 대하여 꺾이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圓方角社, 高麗영화제작소, 東洋영화사 등과 밀접한 연락을 맺어 「落花流水」, 「아리랑」, 「開拓者」, 「長恨夢」 등 다수의 영화작품을 상영하였고 또 그 사업을 보조해온 점은 朝鮮영화의 발달을 위하여 그 공로를 다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상영하는 영화는 주로 「유니버설」회사와 특약을 맺고 그곳 무성 영화를 많이 상영해 왔는데, 관객의 취미가 맹렬하게 발성영화 방면으로 쏠리는 것을 간파하고 최근에 단성사에서는 發聲의 장치를 하는 중으로 그 제1작으로 「킹 오브 제즈」를 상영하리라던가, 이렇게 되면 조선극장과 정면 경쟁을 하게 된다. 어찌서 그러냐 하면 근래에 조선극장의 특색은 발

성영화에 있었었고, 단성사의 특색은 무성영화에 있어 서로 그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경쟁하여 왔는데 이제 이와 같이 같은 발성영화를 통하여 쟁패전을 연출하게 된다면 그는 실로 대단히 白熱化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까닭이겠다.

〈흥행계의 장래는?〉

조선극장이나 단성사의 지배인은 모두 상당한 교양과 수완을 가진 분이
라, 조선극장의 상무 겸 지배인으로 있는 申鎔熙씨는 일찍이 보성전문학교
에서 배우고 졸업한 이라, 이미 발성영화를 諸常設館에 출선하여 장치 상
영한 해안에 그의 안식을 십분 窺知할 수 있겠고, 단성사의 現主務 朴晶鉉
씨도 또한 연극과 영화 사업에 20여 년의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
인 만큼 관원의 신망과 경영의 才에 특히 뛰어난 터임을 알 수 있겠다.

兩大극장은 장차 어떻게나 맹렬한 쟁패전을 연출할 것인가, 앞을 두고
보기로 하자.

〈명월관이나, 食道園이나—삼십만원 들여 경영하는 명월관과 수십 만원의 식도원의 어느 쪽이 승리할까〉

서울 창덕궁 궁궐의 큰 길을 끼고 한참 내려오면, 양옥 이층에 조선식
을 곁하여 지은 커다란 집 한 채가 있으니 이것이 명街의 美觀을 도음이
여간 아니다.

이 극장은 약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에 社의 경영자가 10
여차나 변동되었고 종업원이 들락날락 한 것도 몇 백명에 달하는지 모른
다. 그리고 수차 폐관의 위기에 서기도 하였다.

삼천리(三千里)

그것은 경영자의 기본 자금이 확립되지 못하였던 까닭과 업무상의 조직에 결함이 있었던 것과 종업원에 성의가 부족하였던 점들이 모다 그 원인이 되겠다.

그러다가 약 4년 전 즉, 昭和4년(1929) 여름에 이르러 이 극장은 비교적 완전한 土臺를 잡음에 이르렀으니 그는 경영자로 申鎔熙, 安奉鎬 양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뒤 작년 6월에 이르러 安씨는 某사정으로 손을 떼고 申鎔熙씨 단독으로 主權임을 맡고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여 그를 완성시켜 놓았는데, 이제부터는 좀처럼의 사정이 없는 한 조선극장의 전도는 양양하리라고 보인다.

이제 극장의 투자액과 주요 役員을 보면.

적립금 8만원

重役

사장 鄭完圭, 전무 鄭鍾國, 상무 겸 지배인 申鎔熙, 상무 鄭殷圭

이 극장 안에는 영화 상설부와 영화 배급부의 兩부가 있는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종래에 영화 배급을 전문으로 하여 오던 紀新洋行을 인수하여 아메리카의 「파라마운트」 회사와 특약을 맺고 파라마운트 회사 제작품을 自館에서 계속 상영하는 것 이외에 또한 전 조선의 파라마운트 영화상영 계통의 상설관에 모두 배급하고 있으니, 필자가 듣기에 이 배급 등을 통한 수익만이 월 3천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조선극장은 발성영화를 가장 먼저 조선 영화계에 수입하고 거기에 전력하고 있는 점이 특색

이겠다. 종래의 무성영화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 이 추세를 예민하게 간파하고 제1작으로 8천여 원의 거액을 들여 優秀機인 미국제 R, C A를 구입하여 장치해 놓고 「유쾌한 中尉」, 「카라마소프의 형제」 등 발성영화를 연속적으로 상영하여 크게 환영을 받았고 또는 받는 중이다.

발성영화에 있어서는 일본인의 경영이고 외국인, 조선인 경영이고 간에 조선극장이 단연 우세하여 서울에 있는 각국 총영사들은 대개 영화구경으로 조선극장에 모여 오고 있다. 들리는 말에 발성영화를 시작한 뒤부터 매일 밤 관객이 평균 7백 명을 넘었다고 하니 그의 유망함을 껴히 알 것이다. 우리는 조선극장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경영에 진주력을 기울일까를 모른다. 그러나 종업원의 통제에 일층 노력하고 외국의 우수영화를 꾸준히 수입하여 온다면 그 전도는 주목할 바 있으리라고 믿어지리라.

〈團成社—朝鮮영화에 盡力, 苦鬪의 14년 역사〉

그러면 단성사는 어떠한가? 단성사가 설립되기는 지금부터 14년 전이다. 창립자로는 조선 흥행계에 패자라고 하는 작년에 작고한 朴承弼씨다. 씨가 작고할 때까지는 씨의 개인경영의 힘이 컸다.

단성사는 조선사람 손으로 설립된 영화 상설관의 효시이리라. 창설 때부터 위치는 지금 있는 授恩洞의 昌德宮 들어가는 첫 입구에 두었는데 어쨌든 조선극장이 10년 내외란 시일에 10여 차례나 그 경영자를 바꾸었고 수 3차 폐관의 위기에까지 갔었는데 反하여 단성사만은 朴承弼씨의 일관된 奮鬪과 정성으로 시종 한결같이 지탱해 왔으니 희한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삼천리(三千里)

그러나 심각한 경제공황은 차씨 개인의 재력으로만 어쩔 수 없게까지 되었다. 그래서 작년 5월 1일부터는 20여명 되는 관원 일동의 공동경영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그날 그날의 수입을 평균으로 분배하였다. [역자주 : 원본에는 페이지 이어짐이 부적절하나 그대로 게재함]

월관이요, 또 남대문통 전차 길에서 바로 들여다보이는 곳에 금색 찬연하게 간판을 높이 붙인 커다란 반 양옥 집 한 채가 있으니 이것이 食道園이라, 명월관과 식도원은 반도에서 서로 손꼽는 큰 요리점들이다.

요리점이라고 하면 이밖에도 國一館도 있고 松竹園도 있고, 또 太西館도 있지만 역사가 무척 긴 점과 투자한 자본이 많았던 점과 요리를 잘 만드는 점에서는 서울에서 명월관과 식도원을 그중 낮게 친다. 이제 이 두 요리점 진영을 배부하여 보리라.

〈明月館—자본은 30만원, 1년 매상 20만원〉

명월관은 삼십만원이나 들여서 경영하고 있는 개인의 영업기관인데 음식점 영업에 30여만원을 던졌다면 놀랄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현재 본점이 들어 앉아있는 토지의 평수가 1,200여 평으로 땅값을 한 평에 백원씩 치면 그것만 12만원이요, 만일 50원씩 치더라도 6만원에 달하며 양식과 조선식으로 지은 건물 총평수가 6백여 평에 달하는 터이니 어지간히 큰 집인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밖에 음식 만드는 기구와 손님방에 갖추어 놓은 비단 방석, 수놓은 평풍과 장구·가야금, 거문고·젓재, 피리, 등속까지 모두 치면 30만원이란 말도 꺾이한 말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커다랗게 벌리고 있는 이 요리점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가, 즉 얼마나 음식을 팔고 있는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식점 영업이란 세월이 좋을 때와 그른 때가 있어서 똑같지 아니하나 평균 일년에 20만원, 한달에 약 1만5·6천원, 하루에 5백원씩은 팔린다고 한다. (이것은 무교동 부근에 있는 지점 것까지 합한 계산인데 지점건물은 자기 소유자가 아니라 매월 5백원씩 주고 얻은 셋집이다.)

그리고 명월관 본지점을 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20여명을 헤아린다. 물론 이 속에는 손님을 안내하는 보이와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와 인력거 차부까지 다 들었다.

명월관은 역사가 꽤 깊다. 20여년 전에 安淳煥씨가 경영하던 것을 기미년 이듬해에 안씨로부터 興産株式會社에서 매수하였다가 다시 현재 경영자인 李鍾九씨가 삼만원을 주고 사들여(器具와 商號만이고 가옥은 별물이다). 이래서 열 두해 동안을 경영하여 내려오는데 음식은 고유한 조선요리에다가 서양식 요리를 가미한다.

이러저러 약 40만원의 큰 돈을 명월관을 중심으로 운전하고 있는 이종구씨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원래 잡화상과 주식거래소를 하였었고, 옛날 구한국시대에는 외국어학교를 마쳤다. 원적이 서울인데 그 아버지는 陸軍正尉요 軍官學敎 敎長을 지낸 李圭振씨로 명문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명월관은 장차 어떤 인물을 더욱 배치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손님에게 서비스하여 요리점계에 패권을 잡으려는지? 미상불 흥미있는 일이다.

〈食道園—경영자는 安淳煥씨, 자금 20만원〉

그러면 한편 食道園은 어떠한가. 식도원은 실로 조선요리계의 원조라 할 유명한 安淳煥씨가 출자주의 유력한 일인이요, 따로 鄭元益씨가 실제 경영하는 중이라 한다.

아마 요리 방면에 다소라도 소양이 있는 이 쳐놓고 安순환씨를 모르는 이가 드물 것이다. 옛날 구한국 때에는 상감님이 접수시는 음식을 짓는 國手였다. 그때 宮內府에는 조선팔도에서 음식 잘 짓는 그 방면의 재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安순환씨는 특출하여 나중에 음식짓는 곳의 무슨 벼슬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함병통에 세월이 흘러지자 혼자 독립한 영업을 버릴 작정으로 궁내부를 나와서 처음 황도마루 부근에 집을 얻어 가지고 조그마한 요리점—조선식 요리점으론 시조라 할만하다—을 경영하다가 그것이 불이 났다. (불난 집터를 김성수씨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으니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보는 광화문동 네거리의 동아일보사다) 그러자 다시 명월관을 경영하다가 10여년 전에 남대문동에 식도원을 건설하고 지금 경영하는 중이다.

식도원도 투자 자본이 수 십만원을 넘으며 일년 매출고가 명월관보다 못하지 않다고 전한다. 현재의 건물은 백 여간의 큰 집이요 그 토지도 수 백평이라 시가로 쳐도 이 토지 급 건물의 가격이 거액을 넘을 것 같다.

식도원의 사용 인원은 50여명을 넘어선다든가, 들은 즉 安순환씨는 풍류객으로 갓을 쓰고 팔도 유생들과 더불어 가끔 詩會도 열고 승지강산을 찾기도 하여 풍류를 아는 50여세의 중노인이라 하는데, 년 전에는 안씨 족보를 위하여 수 만원을 던졌다고까지 전한다.

식도원의 자량은 음식과 건물에도 있겠지만 내외국 손님들이 많이 와주는 데 특색이 있겠다. 아마 외국서 온 손님들로 朝鮮 情調를 맛보자고 식도원을 찾지 않는 손님이 드물 것이다. 주단으로 깔아놓은 방석 위에 매난국 죽을 그린 평풍 밑에서 금란이다. 옥화로다, 하는 기생의 장구소리를 들어가면서 꿈 속 같은 몇 시간을 보내게 한다 함이 식도원의 특색이리라.

동경에는 觀光局까지 있어 돈 많은 나라 부자들을 끌기에 분주한데 조선서 다소라도 외국인의 주머니를 털게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이러한 요리점만이 아닐까.

〈어느 쪽이 勝할가?〉

명월관과 식도원은 어느 것이 稱霸할까. 역사와 음식 만드는 우열과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태도와 운전 자금, 건물과 경영하는 사람의 수완에 딸려 이것은 결정될 판인데 아무튼 수 삼년만 더 두고 보면 알 것 같다.

▷『삼천리』 제5권 제9호, 1933년 9월 1일.

기사제목 : 鬪志滿腹의 歷代巨頭.

大韓協會 漢城銀行

大成學校 商業銀行

東一銀行 海東銀行

〈大韓協會長(張博=尹孝定=徐載弼=金嘉鎭)〉

조선에는 벌써 1권의 政黨史가 있어야 옳았을 것이다. 더구나 자유사상이 사회의 상하에 팽배해 있는 光武, 隆熙 연간에 많은 선구자의 손으로 행진되는 정치운동의 그 사실과 정당의 그 기록은 벌써부터 체계있는 기술로 되어 있어야 옳았을 것이로되 불행히 그리되지 못하였음은 무질서한 우리들 사회의 일이라 통탄하여도 不及한 일이거나와 어쨌든 이리하여 대한협회의 人文史를 적자는 나의 붓으로 하여금 의거할 소재를 주지 않음을 슬피한다. 돌이켜 생각건대 光武, 隆熙 연간의 중요한 정당을 헤아리자면, 獨立協會, 一進會, 大韓協會, 大韓自疆協會, 만민공동회 등이리라. 그중에 사상으로 보아 일련된 계통이라고 볼 것이 독립협회, 대한협회, 대한자강협회이리라. 그러기에 지금의 吾人의 기술은 이 일련의 결사를 기술하여 돕에 그치려 한다.

독립협회는 계급타파를 고조한 점에 있어 사회주의에 가깝고 인문개발을 꾀한 점에 있어서 브나로드 운동¹⁶⁾에 가깝고, 정치상 주권옹호를 고수하려는 점에서는 勤王黨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나의 잘못일까.

어쨌든 미국에 귀화하였던 청년 정객 서재필씨, 정부의 초빙으로 귀국하여 僚友 尹致昊, 李商在씨 등과 相携하여 독립협회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였는데 이 결사는 근세의 朝鮮人文史에 宏大한 족적을 남겼다. 독립협회를 운전한 집권자는 前示 徐載弼, 安炯壽, 尹致昊, 李商在 외에 뒷날 一進會의 간부 尹始炳도 있었다. 모두 30 전후의 혈기청년들이었다. 그네

16 (민중 속으로의 뜻) 1870년 청년 귀족과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농민을 주체로 한 사회 개혁을 이루고자 일으킨 계몽선전운동이다.

들은 政黨盟友를 널리 구하는 동시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교육사업에도 많은 功果를 내었다.

그러나 反目嫉忌가 당시 사회의 常事라, 독립협회의 諸首腦者는 專制君主政體를 변혁하여 대통령을 추대하는 공화제로 할 음모를 계획하였다는 구실로 정부의 탄압을 받아 괴멸당하고, 이어 대한협회가 결성되니 초대회장에 張博씨라, 咸北 明川人으로 법무대신도 지냈고 또 漢城 博聞局을 설치하여 漢城旬報라는 정부 기관지도 간행한 경륜의 사람이었다. 이때부터 權東鎭, 尹孝定, 吳世昌씨가 들어와 대한협회의 간부로 활약하였으니 權東鎭씨는 토관학교 수석 졸업생으로 23세 때 대한협회의 실업부장으로 있었다. 한국정부 때 少尉였었고 일본에 달아났을 때에 陸軍省에서 경리사무를 또 제3연대에서 연대실습을 약3년 한 분이다. 또 吳世昌씨는 협회의 부회장으로 그 기관신문 大韓民報의 사장이었다. 官歷으로는 公務衛門의 參議 通商局長 등을 지냈다.

그리고 그 다음이 金嘉鎭씨다, 金嘉鎭씨는 최후의 협회 회장이었다. 判書 金應均씨의 2子로 安東에서 났다. 小時에 급제하였고 나중엔 동경 주재 변리공사가 되었으며 귀국해서는 병조참판을 거친 뒤에 나중엔 농상공부 대신을 지냈다. 나중에 男爵을 返上하고 上海로 走한 일은 누구나 기억하는 일이기에 생략하겠다. 이리하여 파란만단 대한협회는 수대의 회장 아래 일하다가 합병 전기에 없어지고 말았다.

〈平壤 大成學校長(尹致昊=安昌浩)〉

일전에 평양에서 올라 온 某씨로부터 듣건대 옛날 光輝燦燦하던 대성학교를 다시 부흥하려고 유력한 여러분들이 분주해 있다고 한다. 이 학교가

삼천리(三千里)

다시 부흥될까 어떨까 함은 옥중에 있는 최후의 교장 島山¹⁷⁾이 未久에 刑을 마치고 나올 광경을 예상하고 未嘗不 흥미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실로 당시 대성학교에 재학 중이던 청년학도들이 10년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平南北의 중추인물이 되어 있는 터이라 그 분들의 성의 여하에 따라 그 부흥이 그다지 難事로는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평양 대성학교는 光武 4년(1900)에 창설되어 隆熙 4년(1910)에 폐교됨에 이르렀다. 이 사이 7년 간 표면상으로는 교장을 교체하기에 미쳤으나 내용으로는 늘 일관되게 한 분이 主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초대에 尹致昊씨가 교장으로 있었고 安島山이 大辨校長으로 있었으니 실상은 그때부터 대성학교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의 힘으로나 전혀 島山の 손에 있었었다. 그러기에 島山, 즉 대성학교요, 대성학교, 즉 島山이었다.

初代の 尹致昊씨는 구한국정부 때에 주미공사를 역임하였고 開城의 韓英書院 원장으로도 있었으며 더욱 제야시에 徐載弼, 李商在씨 등과 더불어 독립협회, 대한협회 등의 정당을 창설하여 크게 활약하던 분이다. 교장으로 재직하는 약 4년 간이다.

그리고 島山으로 말하면 평남 龍岡人으로 일찍이 18세 때에 독립협회에서 활약하여 才幹, 膽略이 벌써 정평이 있었고 더욱 四隣에 미치는 웅변으로 명성이 있었다. 그뒤 시세 불리함에 米洲로 건너가서 공립협회를 만들고 공립신문을 발행하였으며, 이래 귀국을 수년하다가 다시 해외로 피하여 布哇¹⁸⁾, 米洲, 上海 등지에서 활약하였던 전후 사정은 世人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다. 기독교신자로 홍사단의 수뇌이다. 교장에 재임하기는 약

17 안창호 선생을 가리킨다.

18 하와이를 가리킨다.

3년 간.

島山이 이제 나온다면 그의 率下에 얼마나 인재가 모여질까? 島山이 나오면 어떤 기관에 據할까? 이것은 벌써부터 사회의 관심을 끄는 문제이거니와 아무튼 대성학교 부흥의 소리와 아울러 금후의 島山 對 大成學校의 문제가 주목을 끌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東一銀行 頭取(閔泳徽=白潤秀=閔泳徽=閔大植)〉

동일은행은 明治 39년(1906)에 탁지부 대신의 인가로서 창립된 것으로 그때의 이름은 주식회사 한일은행이고 자본금은 15만원이었다. 그러던 것을 明治 41년(1908)에 50만원으로 증가시켰고, 다시 大正 8년(1919)에 150만원으로, 다시 大正 9년(1920)에 廣業株式會社(자본금 50만원)를 합병하고, 昭和 6년(1931)에는 자본금 200만원의 湖西銀行을 합병하여 자본금 400만원으로 하는 동시에 商號도 주식회사 동일은행이라고 개칭하여 금일에 이르렀다. 대주주로는 민가 일족이 대부분으로 민규식, 민대식, 민중식 및 徽文義塾의 소유주가 많다.

제1대의 은행장 민영희씨로 말하면 아동들이라도 다 알만한 조선갑부로 이제는 七旬되는 老翁이다. 驪興에서 나서 민비가 궁정에서 권세를 펼 때에 때를 만나 주일공사, 평안감사, 강화유수, 督辦內務府使의 顯官을 역임하였고, 나중에는 甲申變亂때에 淸兵의 힘을 빌려 김옥균, 박영효의 일본당 세력을 소탕하고 민영환, 민영익, 민웅식, 민형식 등의 민가 천지로 내각을 조직하였을 때 의정대신까지 되었다. 그는 李甲씨 관계를 통하여서라도 평안감사 시대의 그 축제수단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인색한 그는 동일은행을 창립하여 뒷날 閔家富 100년의 柱礎를 세웠다.

삼천리(三千里)

제2대의 은행 사장은 白潤秀씨였다. 京城人으로 청년시대부터 財理方面에 활동하여 富를 이룬 분이다. 白潤秀씨의 뒤를 이어 다시 민영휘씨가 제3대 사장이 되었다. 그러다가 제4대로 자기의 아들인 민대식씨가 취임하였는데 민대식씨로 말하면 영국의 劍橋大學(켄브리지대학:역자주) 경제학부를 마치고 돌아온 이로 귀국하여 제1착 사업이 父祖의 은행업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그는 해외의 자유주의 사상을 흡수하고 왔을 터이며, 또한 연세가 3·40의 壯年에 불과함으로 응당 조선사회의 실정에 통절히 느끼는 바 있어 무슨 일인가 사회를 위하여 일함이 있으리라고 고대하였으나, 아직은 金庫의 把守 外에 보여 주는 일이 없는 것이 섭섭하다.

〈漢城銀行 사장(李載完=李允用=韓相龍=白完懌)〉

한성은행의 역대 사장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은행의 유래를 잠깐 보자. 그것이 벌써 30년 가까운 옛날인 光武 7年(1903), 즉 明治 36年(1903)에 李太王의 近親되시는 李載完, 韓相龍씨 등의 발기로 처음에 합자조직으로 은행을 세웠었다. 그때 은행 이름은 公立 한성은행, 그리고 주주의 대부분은 王家와 귀족들이 대부분이었음으로 세상에서는 귀족은행이라고 불렀는데, 자본금은 단 3만 5천원 이다.

그러다가 그 이듬 이듬해인 光武 9年(1905)에 자본금 15만원의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다시 明治 41年(1908)에 30만원 또 합병 이듬해에 귀족들에게 일한합병후 下賜된 공채증서가 많았으므로 그것을 응모케 하여 株로 환산하여 일약 자본금 300만원의 회사를 만들었다. 그러다가 大正 9年(1920)에 이르러 株主의 제한(종래에는 조선 사람만 주주가 될 수 있었다)을 철폐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주주도 일본인 층이 많게 되었다.

이것이 한성은행의 윤곽이다.

그러면 제1대 은행장(그때는 頭取:사장)란 말이 없고 은행장으로 되었으니까)인 李載完씨는 어떤 분이고, 그 분은 完順宮으로 李太王의 바로 弟씨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財界에 유력하였다기 보다 궁중의 지위로 은행장에 추대되었던 듯하며, 次代의 李允用씨는 李完用의 형이 된다. 일찍이 경무사, 농상공부 대신을 역임하였고 그 전에 경북, 전남 관찰사로도 있었다. 친러파의 거두로 정치운동에 분주하다가 세월이 변함에 은행장 노릇도 해보았다. 제3대의 韓相龍씨는 세간 風說을 적으면 총독부 재무국장을 만일 조선인에게 내어 준다면 韓 밖에 그 의자에 앉을 적임자가 없다고까지 하는데 그렇게까지 명성이 있는 理財家이다.

지금도, 조선생명 기타 상공계에 활약하고 있다. 제4대의 白完熾씨는 前者 漢城農工銀行, 殖産銀行의 수뇌자로도 있는 금년 60전후되는 체계의 원로이다. 이름은 이사역 회장이나 그 실권은 오히려 白씨보다 전무인 堤永是씨가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것은 한성은행이 순 조선인 경영이란 전통이 깨어지면서 일본인의 돈을 끌어넣게 되자 자연히 그쪽 방면을 대표하여 예전 조선은행 부산지점장으로 있던 堤씨를 취임시키게 한 것이다.

〈商業銀行 사장(趙鎮泰=和田一郎=朴榮喆)〉

상업은행의 역사는 알아 둘만하다. 옛날 한국정부에서는 각종의 상납금은 이것을 경성시내의 큰 상점에 맡겨두었는데 많은 상점에서는 돈을 자기의 상업자금에 유용하는 관례가 있어 장사어나 실패되면 원리가 모두 날아가는 폐해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상납하는 官金을 잘 보관하려고 한편에서는 외국 제도를 본받아 光武 3년(1899)에 정부 및 실업가협의로

삼천리(三千里)

자본금 2만 8천원의 은행을 세웠다. 이것이 주식회사 大韓天一銀行으로 조선에서 은행업의 효시였다.

그래서 兌換券 발행 및 官金輸送의 특권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업무는 순조로웠다. 그러자 합병이 되자 상업은행으로 이름을 고쳤는데 大正 6년(1917)에 100만원으로 增資하여 大正 9년(1920)에 200만원으로 그리고 昭和 2년(1927)에 三南銀行까지 합병하여 지금은 300만원의 은행이 된 것이다.

은행의 운곽은 이상과 같거니와 그 제1대의 은행장 趙鎭泰씨는 財界의 원로로 당시 거부 중 1인이라 이름이 유명하던 분이다. 그뒤 주주의 다수가 일본인이 되고 그에 따라서 그 방면의 자본이 많이 유입되어 결국 일본인이 사장으로 취임케 되어 和田一郎씨가 되었다. 그러다가 제3대로 和田씨 시대에 부사장으로 있던 朴榮喆씨가 취임하였으니 씨는 일찍이 동경에 가서 육군사관학교를 마치고 귀국하여 參領이 되었다가 합병 후 군수, 참여관, 도지사를 역임한 이다. 58세의 初老로 그 부친으로부터 세습할 재산이 수 백 만원을 넘는다고 전한다.

〈海東銀行 頭取(尹德榮=高啓河=尹德榮=金季洙)〉

해동은행은 尹德榮, 閔哲勳, 沈相翊씨 등의 손으로 창립된 뒤 未幾에 財界의 대변동을 만나 그 업적이 시원치 못하였다. 창립은 대정 9년(1920) 7월.

그뒤 은행 내부에 내분 혹은 영업상의 차질이 있어 중역의 경질이 수 3차 있었고, 나아가서는 일시 은행의 해산 설까지 전하였었다. 그러다가 다시 金性洙, 金季洙씨를 중심으로 한 신흥재벌의 손에 의하여 5·6년 전부

터 再興하는 도중에 있다. 그러기에 은행의 역사로는 10년 내외에 불과하여 그 연령이 아직 젊고 자본금은 현재 200만원인데 불입금이 80만원에 이르고 있다.

初代 은행장 尹德榮씨는 侯爵으로 서울 玉仁洞에 금세의 아방궁을 지었고 대비전하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분인 줄은 누구나 알 것이라. 일찍이 上海로 東京으로 하는 사이에 수 백 만원이라 하던 재산이 대부분 기울어져 지금에 옛날의 富는 없지만, 해동은행장 시대에는 재계에서도 一方의 雄이었다. 次代의 高啓河씨는 강원도 鐵原의 대지주로 변호사 李仁씨의 빙부 되는 분이다. 그러다가 다시 제3대로 尹德榮씨가 취임하였으나 財界의 타격으로 거의 은행은 재기불능의 상태에까지 빠졌다.

이에 金性洙 財閥에서 이를 인수 경영하기로 하는 동시에 金季洙씨가 현재 전무로 취임하였으니 이름은 전무나 실은 사장이다.

金季洙씨는 東京에 가서 대학 경제과 출신의 청년 재정가로 乃兄 性洙씨와 더불어 紡績으로 염색으로 각 방면의 실업계에 활약하던 분이다.

서울에는 중앙은행이 있고 그에 추가하여 18銀行, 제일은행 등 지점은 행의 세력도 웅장하며 또 한편 서민금융을 위해서는 금융조합 등이 있어 그 속에서 해동은행의 행진은 많은 흥미를 느끼게 한다.

金季洙씨는 올해에 40이라든가. 전남 潭陽人.

▷『삼천리』 제5권 제10호, 1933년 10월 1일.

필 자 : 北北山人,

기사제목 : 三大金鑛王 成功(崔昌學·方應謨·金台原씨등).

〈方應謨씨〉

1. 조선에 금광 부자 세 분이 낳다. 이 세 분이 모두 지금부터 10년 이내에 成富한 이들이요 또 모두 수자로 친다면 100만원 이상 썩을 버는 이들이다. 그리고 세 분이 모두 아직 춘추가 40대 50대의 장년기에 속한 이들이다. 그 세 분이라 함은 이미 본지의 前號에 소개한 평북 龜城의 崔昌學씨와 또 이번에 소개하려는 평북 定州의 方應模씨와 다음 호에 장차 소개할 大邱의 金台原씨이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먼저 또 크게 成富하기는 崔昌學씨이다.

그 다음이 金台原씨이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高名하여진 이는 맨 마지막에 가장 적게 成富한 본 편의 주인공 方應謨씨이다. 씨 이전으로 말하면 비록 崔某 金某가 광산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광산이 100만원에 팔리던 1,000만원에 팔리던 조선 사회인사는 냉담해 왔다. 그 까닭은 동족과 더불어 꾀하고 사회와 더불어 樂하려 하는 대의심이 없는 분에게 비록 억만금이 생긴들 우리에게 무슨 소득이라 하여서 그리하였다. 사실 崔昌學씨가 수 백만금을 현금으로 은행에 세워두고 년년 증가하는 그 이자 만으로라도 오히려 조치하지 못할 지경이란 말을 듣고 뜻있는 분들이 혹은 교육기관에 보태주시오, 혹은 청년회에 기부 좀 하여주시오 하고 百請萬托을 하였건만 내일은 몰라도 오늘까지는 아직 어느 공익기관에 만금을 투자하였다는 말이 없었다 한다하는 명사 某某씨도 崔昌學씨의 돈을 꺼내려고 서울 구성 사이를 밭에 불이 나게 내왕하였건만, 도서관 한 개, 하다못해 탁아소, 교아원 한 개 얻어내지 못하고 말았다. 영남의 金台原씨에 이르러도 마찬가지다. 大邱 有志의 간청으로 既設된 사립학교나마 유지하도록 힘

씨 달라고 하였으나 그 역시 재단법인으로 金씨 손을 통하여 아직 이루어 졌다는 말을 못 들었다.

실제가 이러하므로 그분이 요행 分福이 있어서 민영휘를 陸驚하는 졸부가 된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守錢人의 금고 속 深藏物化할 것 밖에 더 기대치 않았던 까닭이다.

일본은 같은 재산가들이라도 다르다. 大橋家엔 大橋圖書館이 있고, 大原家엔 大原社會問題研究所가 있고, 北里家엔 北里病理療養所가 있어서 사회에 봉사하기를 아끼지 않으며, 또 직접적으로는 국가에 헌금도 하고 정당에 義捐도 하여 私收益의 몇 분지 몇은 의례 공익에 쓸 줄을 안다. 미국 같은데는 「카네기」, 일가가 사회사업에 기여한 것만도 1억 원을 넘는다하지 않는가. 그러기에 崔昌學, 金台原씨 등의 손으로도 벌써부터 민족봉사의 무슨 표현이 있어야 옳았을 것이다.

이때에 마치 재계에 혜성과 같이 출현하여 태양과 같이 찬란하게 또 값나가게 大金을 사회에 투자한 이가 있으니 그는 方씨라. 씨는 富豪의 의무를 다할 줄 아는 인격자로 오늘날 一世를 모두 恭敬으로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 쏠 사회의 주목을 새로 이끌고 나선 方應謨씨란 어떠한 분이고, 또 어떻게 하여 백만장자가 되어있는고.

2. 方應模씨는 금년이 꼭 50이다. 고향은 평북 定州인데 대대로 문벌있는 선비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선비의 집안인지라 幼時부터 家貧으로 소년 시절부터 고생이 막대하였다. 커서도 별로 京師로 급부할 처지도 못되고 商路에 발을 들였다. 그래서 1919년 이 땅에 새로운 물결이 치던 때만 해도 定州邑에서 잡화포목상 등을 하고 있었고 그뒤 동아일보의 定州支局을

삼천리(三千里)

말마 경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세태는 변하여 뜻도 커지고 더구나 한달에 1원씩 받아들이는 신문대금도 잘 들어오지 않으므로 부득이 거액의 부채를 신문사 본사에 짊어진 채 신문지국은 팽개치고 말았다.

그제부터는 평양에 올라와 변호사 某씨의 配下에도 있었고 代書業도 하였으며, 또 어떤 知友의 문객 노릇도 하였다. 필경 天幅을 입을 사람의 착안은 일찍부터 다르던가, 광산업에 이상한 흥미를 느끼고 어떠한 기회로 망치를 쥐고 이 산맥 저 산맥 광산 맥 찾기로 나섰다. 그리하여 얻은 것이 평북 朔州 橋洞의 교동광산이다. 이 좋은 광맥을 발견하였으나 수중에 無資하니 속이 얼마나 탔으랴. 천신만고 끝에 2,000원 돈을 만들어 쥐고 발굴을 시작한 것이 그 鑛床의 폭도 넓을 뿐더러 매장량이 무진장이요 또 산품의 질이 可謂 絶品임으로 聲價 隆隆한 바 있었다.

이리하여 朝夕으로 파내는 황금은 眼前에 누적하기 시작하였다. 不出幾年에 대세는 결정되었다. 교동금광은 關西에 큰 부자 한 사람을 만들고야 말 형세로 이제 이 금광이 얼마나 유리하였던가에 대해서 동경서 공간된 상공성 광산국의 조사발표에 의하여 보건대 이러하였다.

조선에서 가장 우수한 금광 중의 하나로 매년 648萬의 금 산출이 있고, 그 가격이 66만원을 넘는데 인부는 매일 1,067명은 사용하고 있으며 등록번호는 4404번이다.

3. 때는 왔다. 그것은 바로 재작년이다. 조선 제일이라고 소문나더니 이 금광을 지금은 政友會의 장로요, 前 滿鐵總裁로 있던 山本條太郎씨가 기사를 데리고 일부러 조선까지 나와서 실제로 답사하였다. 그는 욕심을 냈다. 그래서 동지 高一淸씨 등의 助力으로 결국 145만원이란 大金으로 매매가

되고 말았다. 145만원! 이것은 상상하기만도 어려운 大金이다. 이 大金이 어음도 아니요, 회사주권도 아니요, 현금으로 실로 순전한 현금으로 方應謨씨 수중에 쥐어졌던 것이다. 山本씨는 이 금광을 사서 더 增資하여 지금은 橋洞金鑛株式會社를 만들고, 채굴하는데 그뒤의 産金成績도 매우 양호하여 산 사람도 만족했고, 판 사람도 만족하여 지내는 터라고 한다.

물론 方씨에는 山本씨에게 매도한 前記 橋洞金鑛 이외에도 광산이 아직 수 3처나 있다하니 天이 다시 부익부의 定則을 그에게 시험할지도 모를 것이다.

이 대금을 거두어 쥐고 曹晚植 李光洙씨 등의 勸함도 있어 粉糾且閉門 中에 있던 조선일보를 인수 경영함에 이른 것은 최근의 일이라 社會共知의 것이므로 여기서는 略한다.

方씨가 오늘까지 신문사를 위하여 내 놓은 돈이 50만원 내외라 한다. 그것은 조선일보사가 50만원의 주식회사인데 그 중의 대부분이 方씨가 직접, 간접으로 낸 돈이다. 이렇게 1인이 株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 주식 불입이나 增資의 경우는 문제가 극히 간편하게 운행될 것이다. 동아일보는 1회 拂込時의 株主數가 400여인이 되더니 2회 拂込時는 반감이 되어 약 200명 밖에 안되었다고 한다. 조선일보의 길과는 다르다.

오늘날 조선의 신문사업은 아직까지 消耗事業에 속한다. 消耗事業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리사업은 못된다. 그 증거로 10년 기초를 닦아 수지가 맞다는 동아일보에서도 주주배당이라고는 유사이래에 한 푼 없어왔다.

이와 같이 영리사업이 아닌 기관에 50만금씩 투자하는 분이 있다면 그 는 존경에 値하는 인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方씨에는 자녀가 없다. 아니 2·3세가 된 어린 여식만이 있다든가.

삼천리(三千里)

재산조차 一代에 그칠 작정을 한다 할진대 方應謨씨는 앞으로도 더 빛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리라. 아무튼 오늘 공표한 조선은행의 금 매입가는 9원75전이라 하며, 德力서는 10원대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당국의 産金政策과 경제계의 사정으로 金價는 조석 변할 정도로 작게 앙등하고 있다.

이렇게 외적 조건이 좋아 지금 조선은 바야흐로 黃金狂時代를 現出하고 있다. 그리고 13도 방방곡곡에는 그야말로 遍山遍河라 하리만치 採金業者가 덮혀 쌓이고 있다. 이 속에서 언제 제2 崔昌學씨 제3 方應謨씨 등이 나올지도 모른다. 바라건대 금후의 금광왕들은 모두 方應謨씨를 본받아 사회와 고락을 같이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 다음 호에는 金台原씨)

▷『삼천리』 제6권 제9호, 1934년 9월 1일.

기사제목 : 『運命과 死生觀』座談會.

〈西洋서도 周易을 숭상〉

李瑞燮 : 서양서도 周易은 좋다고 믿어요. 정말 주역대로 점치면 꼭 들어맞는대요.

李瑞求 : 탐공공원서 卦를 보는 열간망둥이들이야 믿을 건 못되지.

柳光烈 : 그야 그저 날탕패지.

梁白華 : 아무리 한 날 한 시에 난 쌍둥이라도 손금이 다르지 그도 이상해.

鄭秀日 : 쌍둥이도 겨우 구별 있다면 先童, 後童 뿐인데 그것이 10년

20년 가는 동안에 한 아이는 잘되고 한 아이는 잘못되지.

金東仁 : 같은 날 나도 운명이 다른 게지.

梁白華 : 어떤 집은 며느리 얻어 가지고 몇일 안가서 집안이 결단나지.
더구나 寅生을 꺼리지. 인자생은 팔자 아주 고약하대.

柳光烈 : 일본서도 「丙子生」이라면 시집도 가기 어렵지.

尹白南 : 아까 쌍둥이 말이 났지만 그야 나는 戊子生이지만 이 세상 수 십억 인류 중에 나와 동일 동시에 난 사람도 많겠지요. 그래도 운명이 다 다르니까 그는 그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겠지. 같은 꽃이라도 견우화는 견우화대로 되고 동백꽃은 동백꽃대로 되듯이.

柳光烈 : 그러나 암만 생각해도 부자되고 귀하게 되는 것이 운명 때문이 아닌 듯해요. 나는 이번에 전라도 정읍에 가서 車京錫이가 백만원을 들여 지었다는 집을 살살이 구경하였는데 고창태생인 차가가 일약 십만 교도의 두목이 되고 백만원 돈을 우부우민한테서 거두어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 보면, 얼른 보기에 제 팔자 잘 타고나서 그렇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보기보다 조선 민중, 더구나 상투쟁이들이 미개한 판에 눈치 빠르게 XX수 배워가지고 이러 저리 둘러쳐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정감록을 보아도 어느 구절하나 분명하게 표시한 것이 없고 이렇게도 해석하게 저렇게도 해석하게 어름어름한 문자로 요술 같은 말을 써놓고 결국 간악한 사람들의 이용물이 되게 하고 있지 않아요. 조선 민중의 지식 정도가 낮아서 그렇지 정감록이 다 무엇일까.

삼천리(三千里)

東 仁 : 방응모씨 금광을 보면 처음엔 셋이서 하다가 금이 만나니 둘은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방이 혼자하기 시작하니 물물 나오더래요.

鄭秀日 : 최창학도 그렇지 남이 금이 안 난다고 폐광한 것을 붙들고 끝을 보았지.

柳光烈 : 지애가 뛰어난 사람은 운명을 만들지요. 임진낙전에 粟谷은 천하대세를 살피고 養兵 十萬하여야 하겠다고 크게 주장하였지만 柳西崖는 이런 태평성절에 양병이 무슨 양병인가하며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울곡은 먼저 죽으면서 「부제학(그때 西涯가 부제학이었으니까)이 장차 곤란할 때가 올 걸」하고 장태석하더래요. 그뒤 정말 임진란이 있어서 삼남 고을의 수령들에게서 장계가 올라오는데 성마다 모두 함몰을 당하고 야단이 났었지. 그때서야 유서에는 울곡의 옛말을 깨닫고 울곡이 참 훌륭하였다고 탄탄불이 하였더래요. 그 후에도 무슨 漢陽萬里 鷄犬無聲이란 어찌고 저찌고 하여 정감록이 똥똥지같은 소리를 하여 어리석은 우민들을 茶毒하였지요. 아까 울곡선생의 일 같은 것은 그 어른이 선각자니까 예언 비슷하게 하였지만 다른 사람은 지식이 모자라니까 못 알은 것이지요. 숙명이라고 있을 까닭이 있나요? 만일 세계만국이 다 있다고 주장할지라도 조선 민족은 운명설을 부인하여 그 茶毒을 피하여야 옳을 줄 알아요. 방응모의 금광일도 그 광산에 금이 꼭 있거니 하고 알아낸 이가 먼저 떨어져, 둘이 아니고 방씨였던 게지요. 이렇게 만사를 해석하면 그만 아네요.

李晶燮 : 글쎄 아까도 말했지만 운명론을 믿는 것이 백성의 원기를 약하게 하니까 배척하자 하는 것은 도덕론이지요. 이 자리는 도덕론은 금물이래요. 하하. 좌우간 우리는 얼굴 골격을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관상술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관상쟁이가 조선감부 민영휘를 보고 굶어 죽으리라고 하였다든가.

李瑞求 : 절렁 절렁 관상쟁이였던 게지. 민영휘가 굶어 죽을 리가 있을까. 아무리 상전벽해 되더라도.

▷『삼천리』 제8권 제2호, 1936년 2월 1일.

필 자 : 江上居士,

기사제목 : 銀行사장 인물평, 東銀사장 민대식씨.

〈쓰기 전 數語〉

문필생활에서 몸을 빠져나와 티끌이 도회에서 閑日月의 향촌에 돌아와 구름 밑에 발 깔고 「달」 아래 「고기」 낚기, 우금일년에 귀먹고 병어리 노릇을 하던 罪弟에게 홀연 巴人畏兒으로부터 足不至地의 성화 같은 一張來信을 받으니, 말하기를 「銀行사장 인물평」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다. 본래 인물평이라는 것은 너무 좋게 쓰면 阿諛에 가깝고 너무 직접적으로 평가하면 상대자의 감정을 상하는 것이라, 가장 거북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다. 솔직한 모지고, 완곡은 태화탕이 되나니 평론대상자의 전모를 들추기가 매우 어려운 노릇이다. 감히 사양하고자 하여 수 삼일간 붓 들기를 주

삼천리(三千里)

저하다가 생각하니, 원체 남의 「고임을 받지 못한」 나이기에, 생각을 가다듬어 이것을 抄하는 바이다. 이 글이 해당자의 觸怒되고, 아니 됨은 내 본래 가름할 바가 아니나 이 글로 하여금 巴人畏兄에게 累가 아니 됨만 심축하여 마지않는 동시에 호를 거듭하여, 評中에 나오는 諸位의 일면이나마 여실하게 들어 났으면 다행인가 하노라.

민대식씨! 동일은행 사장인 민대식씨! 씨의 위인과 씨의 전모는 누구나 거의 짐작하는 바라, 필자의 둔필을 기다리지 않는 바이다. 조선갑부인故 민영휘씨의 舍胤이오, 舊皇실의 외숙으로 제일 權臣인 동시에 구한국시대에 조선민족에게 끼친 바, 커다란 자취가 지금도 아직 일반인의 뇌리에 박혔고 갈수록 쓰린 맛을 깨닫게 하는, 大匡崇錄大夫 민보국의 제일 총애하는 아들로써, 官毒에 症喉가 아직도 전 사회에 충만하였던 당시, 씨는 별다른 경론과, 왕청된 포부로 모든 인습을 타파하고, 榮貴 拔身之策을 저버리고, 일찍이 신지식을 흡수하는 동시에 금후로는 이제 방면으로 심혈을 경주하고, 재계에 雄飛하여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선각을 가지게 되어, 일찍이 負笈渡東하여 文籍을 이제 방면으로 돌리고 형설의 공을 쌓은 후 다시 그것으로도 만족치 않고, 구미선진국의 첨예한 이제 방식을 흡수치 않으면 남과 같은 수준에 설 수 없을 것을 깨달아 다시 참신한 이제 지식을 얻고자 멀리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유학하였다.

지금으로 보면 구미유학이 그다지 신기할 것이 없지만, 씨의 약관시대로 논하면 쇠국시대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跋扈하기도 愼外이지만, 미주유학이라면 제일 재정관계를 저당하기 어려워 有意나 莫遂 어떤 시대이다. 그러나 남다른 처지와 명문 갑부로 태어난 씨라 여차한 2대 난관은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비록 그렇다하나, 씨가 옛날 부귀가

子侄들과 같이 안일과 방종만 탐하는 류의 敗漢이런들 무난한 처지라도 不足可論이지만, 그러한 환경을 손쉽게 툭 털고 일어난 씨인지라, 여기에 씨의 비범한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마이라. 却說하고,

씨의 齒列이 오십 고개를 훨씬 넘은지라, 씨가 은행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벌써 30개 星霜을 바라보게 된다. 당시로 논하면 현재 일본제벌계의 은행 수 개와 한국 제일은행계의 것 이외에는, 조선인 계통의 은행이라고는, 韓相龍 씨가 군림하였던 한성은행이 있었을 따름이다. 그때 씨의 父君인 故 민영휘씨가 창립한 것인데, 씨가 도미하여 일을 끝마치고 금의로 귀국한지 얼마되지 않아 씨를 援躍하며 동 은행에 앉히고 말았다. 씨가 입행할 때는 불과 일개 과장의 지위밖에 안되었으나, 실권으로 말하면 사장인 父君의 대리를 하였기 때문에 외관과 내실은 霄壤之別이었다. 점점 경년함에 따라 몇 번의 사장이 교체한 후, 급기야는 씨에게로 사장 자리가 돌아오고 말았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씨가 한일은행이라는 금융계 일국에 군림하였던 것이다. 씨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동행의 사적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는 논외라 제외하지만, 하여간 씨는 여차한 경로를 밟아 同行의 사장이 된 것이다. 그러다가 저 유명한 재계공황이 전 금융계를 휩쓸 때에, 씨의 선배요, 은행계의 일인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韓相龍씨가 두미를 수습하지 못하고 同行을 減資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되며, 또 부채용퇴함에 불구하고, 씨는 취임 이래 견실 제일주의로 내려왔기 때문에 큰 동요가 없이 비상난관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로 보아도 씨가 얼마나 이적 선견지명이 있는가를 짐작할 것이다.

또 씨는 대소 은행 난입을 통절히 깨달아 湖西銀行(公株 자본금은 한일과 같이 25만원)과 합병을 단행하는 동시에 종래의 명사이든 한일은행을,

삼천리(三千里)

용감히 개칭하며 동일은행이라 하여 현재에 이른 것이다.

은행내력은 어쨌든, 은행 사장으로서의 민대식씨 인물을 한번 해부하여 보는 것이 본 편의 주지인 만큼 지금으로부터 씨를 필탁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늘을 떼고, 날개를 가다듬고, 다시 아가미(鰓)를 들추어 보기로 하자.

씨를 사장실에서 만나면, 누구든지 처음 보는 사람은 의외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즉 그는 대개 우리가 상상하는 바와 가치 恒茶飯으로 보는 금융계 및 부호계급의 인물처럼 肥滿肉厚의 기름기가 질질 흐르는 大漢이 아닌 것이다. 어려서부터 천만장자의 총애하는 아들로 육진혜미와 ○○자양 속에서 성장을 하고, 지금도 역시 그 같은 호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기름진 대신에 섬약하고, 장대한 맛을 찾을 수 없고 촌 새님의 체격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격어 아는 바와 같이 은행가의 오만한 거드름은 찾을 길 없고, 오히려 유약한 선비들의 熊를 가진 그것이다. 또 얼핏 보면 다소 표리가 부동한 사람 같이 보기 쉬우나 자세히 살펴면 강직한 표정이 외면에 나타난다. 온후한 맛은 없고, 좀 소박한 느낌을 주고, 순후한 대로 쌀쌀한 맛을 주며, 소박하기보다 理智에 지나치고, 救危 疏財할 長者之風이 없고 재승덕박한 凡骨漢의 모습이 있는 것이 큰 결점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씬에 성심으로써 심복되기보다, 권모와 위세로서 압박하게 하는 느낌이 있다. 포용의 村보다 사역의 能을 가진 사람이다. 그의 평상생활에도 이것이 반영하여 이제에는 밝으나 후한 맛이 없어, 그 지배하에는 棄身報恩하려는 同心客이 적고, 依權釣利하려는 俗交才客이 모이는 것이다. 그가 행원을 출척하는데도 이러한 권모술수가 많이 가미됨으로, 자칫하면 外評聲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후 수차의 은

행개혁에 있어서도 이 같은 세평을 자아낸 것이니 저 호서은행을 합병함에 당하여서도 그러하였고, 연전에 조선은행계의 상무 市川眞次郎씨를 영입할 때에도 일장풍파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능히 지난 소식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래서 금으로 논하면 동일은행 내에는 민계와 호서계가 있는 외에 조선 은행계의 인물이 분거함으로 삼호류가 암투(?)한다고 하는 의혹을 받게 되었으며, 또 우금하여서는 사장의 명목만은 씨에게 상존하나 내실은 씨가 同行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일이 관련되어 있지만, 同씨의 책임회피의 일면상이 내재한 탓이다. 同行이 재계공황을 씨의 이재적 두뇌하에 일시적으로는 훌륭히 벗어났다고는 하나, 이것은 일시적 권모에서 빚어낸 씨의 미봉책이 누가 되어 朝銀에서 가져온 정리자금 250만원이 차차 말이 나오게 되고부터 씨는 私財에까지 누가 될까 하는 명찰(?)로 同銀을 敬以遠之 하는 태도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어쨌든 씨는 심력을 경주하여 모든 사업이라도 사리에 누가 될 듯하면 벌써 여기에 권태를 느끼고 이재에는 緻密한 두뇌의 소유자이지만 어인지기하는 군자지풍은 적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씨가 사람을 씬에 情實을 벗어나서 인재주의를 擇客하는 것은 좋으나, 일단 室家之人을 만든 후에 심복을 만드는 군자지풍이 없는 것이 크나큰 결점이다.

利를 취하여 동하면, 반드시 利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폐단을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도 씨며, 덕으로써 진압하는 道보다 위권으로서 누르려는 폐단을 가진 것도 씨인 것 같다. 좌우간 씨는 사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면모가 비록 이와 같으니 필자가 항간에서 종합한 씨에 대한 일화를 예로 씨의 側面 일의 자를 삼고자 한다.

씨의 권속 내에서 문화사업을 위하여 幾십만원을 투자하려 하며, 이미

삼천리(三千里)

우리系 신문 某報에 취임까지 하였으나, 씨는 유독 차에 반대하여 말하기를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금전만 허비하는 것이요, 少許의 생산도 없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불가라”하며 이미 일족 중에 전수가 찬동하며, 그 緒에 취한 것까지 중도에 좌절케 하여 일시 세평을 자아내었다고 한다. 즉 100원을 들여 1,000원이 생기는 사업에는 씨가 능하고, 목전에 생산을 보지 못하면 少許도 동심치 않는 굳은 결심은 가상하다 할 것이나 요원한 장래를 무시하고 민중사업에 用心하는 志趣가 적은 것만도 가히 알 것이라고 혹평하고 싶다.

이것은 또 극히 사소한 일화이지만 역시 씨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들어 보기로 한다.

와전인지는 모르지만, 씨가 몇째 아들인지의 孫을 보았는데, 그릇 손녀가 출산되어 매일 상봉하는 知舊가 한턱하라고 하며 조른지 무릇 수일에 되어 씨가 설령탕 한그릇과 몇 잔의 「술」로서 점심을 먹이고 말하기를 “이것이 손녀 본 턱이라”고 하였다든가, (일시 농이었지만) 그러자 이 소문을 들은 그 부모되는 사람이 “설령탕 한 그릇과, 술 한 잔 턱의 가치 밖에 없는 계집아이를 더 무엇 하려고” 분개하였다든가? 이것이 일가 중의 작은 일이지만 씨가 얼마나 재리에 밝고 절약하는 것을 窺視할 수 있는 바이다. 하여간 씨의 인물됨이 극히 이지애 멀고 재리에 영특하며, 명찰과 치밀한 두뇌의 소유자이지만 관후장자의 풍과 어인포용의 군자지풍이 적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용의가 주도하고 毫厘의 差錯이 없어 숙언에 「제털 빼제 구멍에 박을 사람」은 될지언정 「下石上撐」하는 풍모조차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만한 부와, 그만한 연령과 그만한 처지와 그만한 지반을 가진 씨로서 일개의 금융계 인물 이외에는 사회인, 사업계 인의 영역에 일호도 진

출치 못하는 것으로 보아도 알 것이다. 경성진출 불과 십여년인 무명청년 貧生인 朴興植씨의 사업망도 아직 장악치 못한 것으로 보아 씨의 전반 생이 얼마나 소졸하였다는 것과 身之策 외에는 他念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씨를 능란한 사장하에 전무나, 지배인으로 두고 내조의 역을 가름하게 하는 것은 만무일실의 이적수완을 발휘할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 꾸준히 다른 사업에 결눈질 앓고 일에 전심하여 미약한 조선인 금융계를 위하여 분투노력하는 지성에는 누구나 감복하기를 마지않는다. 좌우간 씨의 장단은 상반함이 있지만 우리 한가지로 조선인 은행계를 북돋고, 또 조선인 은행계에서 한성은행 사장이던 韓相龍씨 退去 후엔 제일 고참임에는 경의를 아니 표할 수 없다.

끝으로 일언하여 두는 것은, 씨는 아직 금융계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문화 사업방면이나, 또는 상업, 공업, 농업 기타 제반사업계 영역과는 담장을 쌓고 지냈다. 인생 칠십이라면 3분 2의 고개를 넘어선 씨다. 그러나 사업방면으로는 지금 겨우 활동을 개시할 때이다. 前半生에 금융인은 해보지 않았으나, 씨는 다시 이 담장을 뛰어넘어 사업가의 영역을 넓혀갈 것 같이 생각된다. 문화 사업, 육영사업 기타 등등이 씨를 맞으려한지 오래이다. 이만큼 백전노졸이 된 씨인지라, 지금부터 그 蘊蓄한 재완을 발휘할진대, 천만금을 하루아침에 던져 세계 문화 사업에 공헌가가 될 것을 심축하는 동시에, 필자는 씨를 일개 금융계인으로만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언하는 것이요, 또 전반생은 이미 世熊艱苦를 겪었으니, 후반생에는 씨로 하여금 찬란한 광휘를 발하는 영명의 사람이 되기를 아울러 빌고 擲筆한다. (忘評多謝)(끝) 次號는 박영길씨.

▷ 『삼천리』 제8권 제2호, 1936년 2월 1일.

필 자 : 裴相哲,

기사제목 : 通俗觀相講座, 어떤 사람이 돈 모으고 사나.

“돈이란 억지로 모으지 못 한다. 너는 아무리 노동을 해도, 단돈 100원 이상은 못 모을 것이다. 너는 활약을 좀 덜하더라도 네게는 정해진 料食이 백만원어치는 된다. 가만히 있어도 그만한 것은 때만 오면 무난히 받을 것이다” 이것이 소위 하나님이란 어른이 우리 인간을 내실 때 미리 정해주신 宿命으로만 알아 온다면 너무도 그것은 相學을 誤解하는 생각일 것이다. 이 의심을 풀기 위하여 나는 그 실례를 들어 어떠한 이가 과연 큰 돈을 모으고, 어떠한 이가 그만 조금 못한 돈을 모은다는 것을 이 아래 적어보겠다.

—

神安, 氣淸한 이는 大金을 모은다. 그러나 코가 좋아야한다.

상학에 神이나 氣는 가장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다. 내가 그것을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말한다면 독자가 용이하게 알아듣기 어려울 것이므로 아부나 알아들을 만치 가장 통속적으로 그것을 말하겠다. 神은 쉽게 말하자면 모든 물건의 뼈子일 것이다.

즉, 전등으로 말하면 燭光이 神일 것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마음(心)이 神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마음을 무엇으로서 발견해 볼까 하는 것이

의문일 듯하지만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음은 첫째 눈에 나타난다. 눈이 붉거나 눈이 둥글거나 눈의 흰 창이 너무 크게 드러나거나 한사람 마음의 善惡은 별문제로 하고 돈 모을 욕심은 있어도 그런 이들은 局見이 너무 적거나 容納性이 부족하거나 너무 마음이 급하여 모처럼 좋은 시기를 만나 가지고도 그것을 참아서 온전히 그 시기를 이용치 못 하고 놓쳐 버리거나 혹은 계산과 묘책이 부족하면서도 당치 않은 허욕에 도리어 일을 잡아 버리거나 남에게 속거나 또는 허욕으로 실패를 해버리거나 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런 이들은 그만치 心相이 부족한 것이요, 그만치 心相이 부족한 것은 먼저 그의 눈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눈을 보면 그의 心相, 즉 神이 갖춰있고 갖춰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으로 된 이들의 반대로 神이 安穩하게 된 이들은 이러하다.

첫째, 눈이 맑다. 그러나 눈이 물빛 흐르듯 너무 고와서 지르르 흘러 보이는 눈은 맑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濁流에 속한 것이니 그것은 神이 安穩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눈들은 姦生이나, 갈보나, 또는 淫男들에게서 낱낱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姦生이나 淫男들은 돈을 크게 모으지 못 하겠느냐고 반문할 듯하나 그들은 그 대신 코가 좋다. 모으는 姦生이나 음란한 남자들로서 大金을 모아 가지고 사는 이가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코끝이 소 쓸개 모양 같이 둥그스름하거나 코허리가 죽지 않고 힘 있게 내려갔거나 했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눈이 조금 찢죽하고 흰 창이 많지 않고 눈이 붉지 않고 눈두덩이 푹 꺼지지 않고 속눈썹이 너무 많지 않고 눈 밑이 푸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눈이면 可謂 神安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氣淸한 것은 즉 얼굴이 맑고 살결이 다소 고우며 조금 살이 힘이 차보이고 하는 것이다.

또 코가 좋은 것은 그 종류가 꼭 여러 가지여서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더라도 독자가 쉽게 알기 어려울 것이므로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한마디로 하거나와 코가 좋은 것은 코가 너무 높이 드러나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콧잔등이 납죽하거나 또는 그와 반대로 칼날 같거나 코허리가 푹 볼거졌거나 하지 않고 코끝이 뾰족하거나 주먹 같이 뭉치거나 또는 코끝이 굽거나 매 주둥이 같이 아래로 죽거나 하지 않고 그저 곱고 순하게 빠진 코로서 可成적 코끝이 타원형으로 되어야 좋은 것이다.

自手로 천만장자에 近한 崔昌學씨 같은 이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의 눈은 조금 가름하고도 붉은 빛이나 흰자위가 過하거나 한 것이 없는 백퍼센트의 神安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중에도 그의 氣는 여간 맑지 않고 그의 코는 여간 좋지 않다. 崔씨의 얼굴에 만일 코가 적게 되었다면 그는 100원 이상은 너무 큰 돈으로 알아서 감히 얻어 불용기와 生心도 내지 못할 것이니, 어찌 今의 崔昌學씨가 되었을 것이며 그 같은 얼굴에 코는 좋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몸집이 컸던들 그 體局에 氣를 잃어버리는 것이니, 소위 용두사미 격이라 終生 빈궁을 면치 못할 것이건만 그는 이 같은 흠이란 조금도 없게 되었으니 이려고서야 大金을 모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할 것은 上文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내실 때에 미리 정해주신 宿命으로만 알아온다면 오해”라 하면서도 이상에 논한 崔씨의 相論 같은 것을 보면 그의 눈, 그의 象, 그의 코가 모두 자기 자신이 억지로 좋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선천적, 즉 하나님이 그 같이 형체를 조

성하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분명히 사람의 운명은 미리 정해 버린 것이니 긴 설명해서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같이 독자는 반문을 할 것이다. 허나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나 全然 그렇다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 무슨 그릇이 있다고 하자.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둔다면 그것은 無用의 빈 그릇이 되고 말 것이다. 또 그것을 씬에 있어서도 잘 쓰는 사람은 백원 이상으로 生色이 있게 쓸 수가 있는데, 잘못 쓰는 사람은 다 같은 그릇을 가지고도 십원 이내의 가치도 못 되게 써버리는 수가 있다. 이와 같이 相도 그 사람의 활동, 도량, 환경에 따라서 다 같은 얼굴로도 천석의 富가 될 수도 있고 백석의 富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니 이것이 소위 「面相이 不如心相」이란 말이다. 혹 前日의 相學者들이나 근대의 相匠 이들이 「面相不如心相」을 오해하여 한낱 착하게만 하면 心相이 좋은 것으로만 알아오지만 그것은 절대로 오해이다. 그러면 왜 顏子는 무엇이 착하지 못해서 食福으로는 一簞食 一瓢飲으로 三旬九食 밖에 못 하고 壽限으로는 불과 32세의 天壽를 했으며 盜○은 무엇이 착해서 肉山脯林에 80을 넘겨 살았는가?

二

얼굴이 두툼하고 아래배가 나오고 등이 두드러한 이는 누구를 물론하고 돈을 많이 모으거나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富名을 들어가며 잘 사는 相이다.(그러나 귀가 두툼한 사람이라야 부모의 유산이 있고 이마가 힘차 보이고 팽팽하거나 이마 한복판이 두드러한 이라야 부모의 유산이 있게 된다)

얼굴이 두툼하고 둥글거나 모가 반듯이 나 보이거나 한 사람들은 대개 중등 가는 부자 밖에는 못 되지만 어쨌든지 그렇게 생기고 뱃가죽이 두껍

삼천리(三千里)

고 아래배가 나오고 등이 두드러한 이는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모두가 잘 사는 사람이니 그 예로는 朴榮喆씨, 東京에 齋藤씨 등을 비롯하여 얼마든지 그 예가 있다. 그러나 大富와 大貴를 누리는 相은 첫째 눈이 威嚴(소위 藏神)스럽게 보이고 몸은 대개 그다지 비대치 않고 거의 파리해 보이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은 대개 사람들의 얼굴을 獸形과 禽形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禽形으로 된 이는 모두 파리한데 속하고 獸形으로 된 이는 모두 비대한데 속하는 바, 巨富(大富之上)는 거의 禽形에 속한 까닭이다.(古相書에는 禽形은 貴에 속했다고 했으나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거의 富에 속했다) 그 예로는 故 閔泳徽씨, 尹致昊씨, 崔昌學씨, 方應謨씨, 金季洙씨, 金性洙씨, 印度의 모르데칼씨 등이다. 그러나 파리하고도 大富가 되는 이들은 첫째 눈 꼬리에서 귀까지 가는 곳(天井, 天倉)이 두드러하고 둘째로는 얼굴이 어느 모로 보던지 다소 結曲하고도 괴상스러워 보이는 점이 있고, 셋째는 언뜻 보기에는 꼭 거만스럽고 냉정해 보여서 말 한마디 못 붙여볼 듯 말을 하되, 해보면 의외에 부드럽고 포용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다. 만일 富者로서 끝끝내 거만하기만 하고 포용력이 조금도 없는 이는 자기 평생 중에 반드시 대실패를 당하고 결국은 乞人됨을 면치 못 하니, 이것은 열이면 열이 날날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이다.

三

손바닥이 숨 같이 부드러운 사람은 自手로 起家하여 致富하는 사람이다.

손바닥은 노는 사람이면 모두 부드러울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아무리 손톱하나 까딱하지 않고 노는 사람이라도 손바닥이 뻣뻣한 이가 있고, 다

같이 노는 사람 중에도 유난히 부드러운 사람이 있다. 더욱이 石手나 木手 중에도 손바닥이 솜과 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다.

이와 같이 손바닥이 부드러운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크게 돈을 모아 富名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다. 독자가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있거든 시험해보면 알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에 한해서만 그렇고, 여자에 있어서는 그와 全然 반대이다.

즉 여자의 손은 손바닥이나 손가락이 뻣뻣한 사람이라야 잘 家道를 지배해나간다. 손가락, 손등, 손바닥이 마치 水腫들린 사람의 살결과 같이 부들부들하고 허무력 허무력한 여자들은 10에 8·9는 妓生의 손인줄 알라.

四

이마가 좁고 턱이 넓은 이는 말년에는 돈을 많이 모은다.

사람의 40 前 운명은 이마에 매인 것인바 이마가 좁은 사람은 30 前에는 곤란한 경우에 처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이 곤란한 경우에 처하던 사람으로서도 말년의 운명을 보는 턱(地閣)이 넓고 結曲해 보이면 그는 결국 말년에 가서 운이 열려 금전과 명예를 얻게 된다. 활동력과 수완이 좋은 사람은 大金을 모을 수가 있고 그 같이 생기고도 아무 활동력과 수완이 없는 사람은 그 시기에 가서 소년시대 보다도 조금 낮게 살 따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손의 힘으로 생활만 안정해지거나 할 뿐이니 운명의 지배력보다도 사람의 활동력이 더 큰 것을 이만해도 넉넉히 추측할 수가 있지 않은가?

삼천리(三千里)

五

耳大貼肉하고 面黑身白한 이는 크게 돈을 모은다.

귀가 크고도 두껍고 얼굴은 거무스레 하고도 몸이 흰 사람은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모두 큰 돈을 모아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으로서도 물론 코가 좋아야 한다. 그 같이 된 사람으로서 만일 말 소리가 臍腹 중에서 나오는 것 같고 또 우렁우렁한 이는 백만장자 쯤 되기는 쉽다.

六

手背가 두툽고 行, 立, 坐食이 단정한 사람은 돈을 모은다.

손등이 두드러하고 거름 거를 때에 범의 걸음 건듯이 실렁실렁 걷거나 몸하나 까딱 앓고 걷거나 하고, 앉을 때에는 몸을 곳곳이 해서 앉고 손발을 까부르지 않으며 기대지 않고 설 때에도 단정이 서며 밥을 먹을 때에도 입안에 것이 보이지 않게 씹고 음식을 흘리지 않으며 목구멍에서 꿀꺽 꿀꺽 생기는 소리가 나지 않고 또 음식을 누가 뺏는 것처럼 허발을 해서 먹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손으로 크게 돈을 모아 가지고 썩 잘 살 사람들도다.

이밖에도 눈에 정신이 들어 보이고 舉止가 沈重한 사람은 분명히 致富할 사람이고, 얼굴이 이마에서 兩眉間까지의 거리나 兩眉間에서 코끝까지의 거리나 코끝에서 턱까지의 거리가 모두 평등한 사람은 그다지 실패 없이 돈을 모아 살 사람이고 얼굴이 길고(面長) 머리가 길고(頭長) 몸이 길고(身長) 손이 길고(手長) 다리가 길고(足長)한 것을 五長이라고 하는 바, 이 五長이 되고 골격이 淸秀하게 된 사람은 大金을 모아 잘 사는 사람

이다.

그리고 얼굴이古怪스럽게 된 사람은 크게 이름을 대지 않으면 自手로起家하여 大富로 사는 사람이니, 方應謨씨, 印度의 칸트씨, 李光洙씨, 金季洙씨, 韓龍雲씨 등은 모두가 古怪之相에 들어가는 相들이다. 이외에도 얼마든지 自手起家하여 大富로 살 사람을 알아 볼 법이 있으나, 너무 틈이 없는 때에 執筆을 하게 된 고로 더 쓰지 못하고 간단하나마 이번 호에는 이것으로 그만두기로 한다. 이 다음 문법을 다소 바꾸어 꼭 재미스럽게 써 보고자 한다.

-欲知富福綿綿締, 多出獸形看性天, 凡在五行皆有祿, 只宜豐滿不宜偏-

▷『삼천리』 제8권 제6호, 1936년 6월 1일.

기사제목:一千二百萬圓이라는 閔泳徽 財産은 어디로 가나?

〈序曲〉

「大匡輔國崇錄大夫子爵」 閔泳徽씨! 이렇게 肩書를 써 놓고 보니 그야말로 人臣의 최고 수준 위에 榮職을 가진 분이다.

여기다가 조선 제일 位의 부호를 兼해 놓고, 또 壽, 富, 貴 多男子로 纏를 놓고, 거기에 潤色하기를 臥席終身의 終告平生을 하였다면 그야말로 五福의 倍十福을 가진, 말하자면 玉樓夢의 揚昌曲의 八字 아니 後身이라고 할 만 하다. 권문세도로든지 황실중척의 首班으로든지, 조선 삼천리강산에 뻗었던 그 뚜렷한 존재(?)로든지, 더구나 특권을 옹위하고, 첩지를 돈으로 만들기에 유명함으로든지 무엇으로든지 조선의 제일인이요 또 조선만이

삼천리(三千里)

가질 독특하고 위대하고 光輝(?)있는 분이다.

한말 政局에 있어도 그의 행적이 많았고 합병 후에도 그의 「트릭」이 많았으며, 大院君과 明成后를 끼고 짜낸 연극도 씨의 脚色이었고, 이 가치 韓末 秘史의 全幅에다 서명날인을 第一, 二에 치게 된 씨인데, 씨가 公道의 鐵則에 따라 富貴功名頭上에도, 人間公道 어찌하랴, 神仙은 못 보았다, 天子도 할 수 없다, 落地復生 헛말이라, 不死藥이 어디 있나?

마침내 娑婆世界에 極貴, 極富를 애처롭게 떠나, 空手去를 하게 되자 다시 京城 뿐 아니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또 화제 거리를 빗어 놓고 말았다. 그것은 씨의 최후를 장식하려고 한 子與侄의 근검절약이 빗어 내놓은 戲曲이 너무나 燦然한 까닭이다. 여기에도 민대식씨 (그의 寵愛하는 舍胤)의 철두철미한 節約劇이 반영되고 관대한 처분의 산물인 까닭이다. 却說

〈一時는 四千萬圓〉

민영희씨의 총 재산은 과거에 얼마였으며, 현재에는 어떻게 분포가 되었는가는 우리가 가장 궁금해 하고, 또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한참 得勢之秋 더구나 平安觀察 시대적부터 삼천리 강산에서 성금(?)格으로 굵어모으고, 또 황실 내 幣金을 이리저리 하여 이리저리 모아 놓은 것이, 4,000만원이었고, 또 그외에도 중국 상해 某外國人 은행에 積立하여 놓았던 것도 수 천만원이었는데 이것은 閔씨의 명의로 국가 공금을 맡겼다고 하나 이것의 후일담을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만 두거니와 하여간 씨의 재산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은 4,000만원이라는 거대한 富이었으니 일본 내지 재산가에 섞어보면 住友, 三菱, 三井에는 비길 수 없다 해도 第二流에는 갈만한 처지였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世人이 일컫기를

일천이삼백만원 정도라 하니, 그 중 2,000여만원은 어디로 갔는지 씨의 令胤들이 分財하여 있는 것과 각 사업에 投身하여 손해를 본 것을 제하고 하는 말일지는 모르나 어쨌든 과거에 비하여 반 이상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養子로 들어온 長子 형식씨의 일시 30만원 소비사건 이후로는 그 재산에 대한 세상 평판이 많았으나 아직도 일천수백만원의 재산을 擁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이다. 씨가 생존하였을 때에 그 처부술이 영능하였고, 또 그 守錢術이 남에게 一步를 뛰어났던 것만은 사실인 만큼, 世人은 씨가 一去하면 그 재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모저모로 뜯어가면서 그 관측이 구구하였다. 남의 재산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高等政策으로 나아가든지? 그것이 우리 민중이나, 우리 사업계나 하등 이익을 주고 공헌을 주지 않는 만큼 관심할 바도 없고 기대할 아무 관련도 없지만, 自體가 유명하게 모은 돈이요, 또 이름있는 거액의 재산인 만큼, 넌즈시 관심을 갖고 또 그 집 가정의 내용이 보통 우리네와 달라, 大房마마의 直系血孫이 없고, 愛妾마마가 그야말로 八仙女는 됴에 따라 그 혈속이 많은 만큼, 여기에도 한가지 흥미와 주시와, 분포여하를 疑視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이란 각각 이것을 비밀에 부치고 掩弊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엿보고, 또 상세히 알 길이 없는 것이매, 다만 그런 정도의 것이거나 할 뿐이요, 비밀의 비밀이 있는 만큼 透徹히 알 수는 없으니, 이제 그 대체 윤곽만을 공개함에 그친다.

〈血屬派閥의 復雜〉

민씨 재산의 거취 여하를 말하자면, 먼저 민영휘씨 가정의 血屬群像의

삼천리(三千里)

列傳을 대개라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민씨 재산과 같이 복잡다단하며 문외한으로서로는 능히 그 체계를 正規할 수 없고 비록 그 집에 2, 3년의 문객 노릇을 하였다 하여도, 알 길이 없고 譜學의 권위라도 無可奈何의 難事이니 그야말로 重重疊疊한 그 집 대문과도 같이 秘藏된 사건이라고나 할까? 민영휘씨는 과연 유사 이래로 각 부호가들의 밟은 바 여인계 행정의 수준을 훨씬 뛰어 나아가, 그의 絶倫한 정력의 이바지된 여인군상이 얼마인지를 헤아릴 수 없는 중, 매일 좌우에 侍立하고, 每夜에 그의 향락을 위하여 대기하는 여성이 많았던 만큼, 大房마마를 首位로, 平壤마마, 海州마마를 次席으로 淵堂마마 무슨 마마하며 5·6인의 妾室이 각각 駐屯所를 설치하여 가지고 列席하여 계시다. 그럼으로 씨의 그로 인한 因果이든지 大房마마께서는 血屬이 불행히 없고, 平壤마마도 남자로 는 없고, 오직 列位 中에 大福을 가진 海州마마가 삼형제의 아들 대식, 천식, 규식을 두어 삼위일체의 아기자기한 장면을 만들었는데, 이 꿈에는 海州마마가 大動位를 가져야 한다. 그뿐 아니라 지금이나 그때나 어느 때를 물론하고 민영휘씨 집의 권세와 지배권은 海州마마가 장악하였으니, 그것도 生男한 덕분이다. 大房마마는 칠거지악에 無後 제일이라는 동양 독특한 죄(?)로 上位에는 존재하였으나, 세력은 海州마마에게 비길 바 못 되었다.

민형식씨는 嫡孫으로 양자가 되어 들어왔을 뿐이오, 더구나 온후하고 長子의 風이 있어 疏財淡泊함으로 窮한 사람을 구하고 없는 친척을 돕는, 말하자면 민씨가 가진 전통을 깨트린 반역아(?)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저 유명한 30만원 소비사건의 발단이 되고 그로부터는 형식씨는 완전히 去를 당하고 명목만 장자로 있게 되어 그의 생활은 窘迫한 정도에 있었다. 즉 말하자면 민씨의 堂堂嫡孫으로 그 一權을 장악할 지위

에 있는 사람이지만 민영휘씨에게 신용을 받지 못하며 거세를 당한 것이니, 씨의 생각에는 血屬이 더 애중하고 정이 더 가는 것임에 그렇지 않아도 양자에 대한 관념이 그리 두텁지 못한 터에 「돈」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배격함도 씨로서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민영휘씨의 습녀 令孃이 도합 몇 명인지는 구태여 알 것이 없으나 양자되는 형식씨를 머리로, 대식, 천식, 규식 등 셋씨와 李定宰씨 夫人, 寡居한 兩位 따님이 있는데 (그외는 재산관계에 깊은 관계가 없어 제외) 민영휘씨 재산은 이 六位를 싸고들며 늘 쟁패전이 있었고, 그 가족별로 각축이 있었던 것이라 한다.

〈主權은 민대식씨〉

혈속으로는 長子요, 사람으로 가장 신용하고, 수호하기에는 제일 절점하고 아끼기는 누구보다 애뜻하고 총명으로는 諸子 중 일인자라고 지목하는 대식씨는, 민영휘씨의 사실상 二世로 자타가 공인하게 되매 모든 권리와 지배와 처리를 손씨에게 일임하다시피 하였다. 그럼으로 손씨는 모든 주권을 掌中에 움켜쥐고 쥐었다 뺐다 하였든 것이다. 민영휘씨 재산을 지키고, 늘이고, 활용하고, 좌우하기는 『대식에게 있다』고까지 되었으니 씨는 동일은행(前 한일은행)의 사장인 동시 민씨 계통에 모든 중요한 자리를 점령하고 그 재산을 수호하고자 八陳圖를 布設하고 있었다. 이 수호신은 민씨 왕국에 없지 못할 인물이고, 엄연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씨는 늘 일부에서 탄색한, 각쟁이, 안달뱅이, 소리를 들어가며, 그 재산을 맡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인사동에 아방궁을 짓고, 교외에 「스윗홈」을 건설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위한 自身之策이니까 此限에 不在이다. 어쨌든 일상생활에 절용 절점은 실로 철두철미하여, 그 類를 보지 못하겠다는 만

삼천리(三千里)

큼 세평이 높지만, 어쨌든 가혹한 양반이었다. 그런 까닭에 민씨 왕국에서는 독재관이고, 전지전능하고, 폭군이며 주재자였다. 누가 씨의 位를 넘겨다보며, 누가 씨의 命을 거스릴 것인가? 하나로부터 千百까지 씨가 모르고는 되는 것이 없고, 一粒一系라도 씨의 허락이 없고서는 밖으로 나아갈 수 없다. 비록 父教일지라도, 씨가 반대할 수 있고 씨가 許한 거면 父命도 철회할 수 있다. 가위 莫能當이오, 전권이다. 그 집안에서야 실로 최고 獨裁官인 것만은 사실이다.

〈一部는 法人으로 大部分은 私有〉

민영휘씨가 세상의 ○譽○貶을 등지고, 榮爵, 華位, 極貴 極富, 愛子, 寵妾을 다 버리고 一去歸不歸를 한 후 민씨의 그 거대한 재산이 과연 어디로 갔나. 또 어떠한 분포상태를 보이고 있는가 함이 이 論의 중심이다. 그러면 민영휘 一去 후에 재산은 참말로 어디로 갔나? 이제 그 측근자의 말과 향간에 傳播되는 諸說을 종합하여 소개하면 이러한 것 같다.

씨가 생존할 시에 대체의 분배는 정하여 있었다 한다. 즉 대체 윤곽을 보면, 민대식씨가 제일 거대한 분배를 받고, 그 다음이 민규식, 또 그 다음이 민천식(死亡), 다음으로는 李定宰 夫人(長女) 또 다음이 출가하였다가 환원한 따님, 끝으로 嗣子 형식씨의 순위라고 볼 수 있다 한다. 대식씨로 논하면 혈속으로 長子요, 또 海州마마는 生男한 유복한 부인이라 寵姬의 長子요, 주권자요, 寵兒이었던 만큼 민씨의 재산 중에서 대부분이 그에게로 갔다하여도 의심할 것도 없고 變怪될 것도 없다. 말하자면 의례 그렇고 의당 옳은 일이다. 사람이란 비범한 사람이 아닌 이상 혈속에 厚하고 명목만의 형식을 꾸미는 양자에게 薄할 것도 인정에 斯然한 바이라 유독

민영휘씨에게만 그 범주 밖에 있으라는 것은 무리한 일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대식씨로 논하면 생전이나 사후가 문제가 되지 않고 아주 田畝도 「노른자」와 같은 것 40,000석 현금으로 수백만원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天植(未亡人の 管理)씨가 4만석의 토지와 수만원의 현금을 가졌고 奎植씨가 30,000석 현금 수만원, 李定宰씨 부인의 수만석, 出還令嬢이 수천석씩을 각각 소지케 되고 其餘 수백 가솔은 殘飯式으로 각 수백석, 내지 數石斗落式을 분배하여 가졌다 한다. 그래서 거대하기로 유명한 민영휘씨의 집단적 재산이 씨 一去 後에는 분산 분포상태로 변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물론 이것이 令子 令孫까지에는 민가 재벌의 영역을 떠나지 않겠거니와 그렇다고 해도 금후로 一令之下에 좌우되고 통제되는 단일 재벌의 권능은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면 그의 嗣孫이오 민씨 누대 조상을 떠받들 증가 후계자인 형식씨에게는 얼마만한 분배가 돌아갔는가? 그에게는 표면으로는 宗孫이오 宗家이지만, 前日 30만원 낭비사건이 말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계혈손이 아닌 養子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든지 간에 3,000석의 전답과 교동 주택 一棟(민영휘씨 상주하던 가옥) 밖에 돌아간 것이 없다 한다.

수천만 장자의 後繼嗣孫으로 내실은 그 가진 바가 얼마 못되니 外富內貧의 가슴 쓰린 쓸쓸한 웃음을 웃을 밖에 없을 것이다. 씨가 혈손이 아니었던 것이 죄인지? 그렇지 않으면 30만원 낭비사건의 여진이 未息함이든지 조선 구래의 습관으로 보아 너무 분배가 박하였다는 것은 피할 길 없다.

그런데 이제 듣는 바에 의하면 민천식씨의 소지분과 李定宰씨 부인의 분배와 그 他 群小 재산을 합하여 법인을 조직하고 한편으로 永保 「빌딩」

삼천리(三千里)

을 경영하며 기타 諸種 권리기관을 掌理하였다 하니 그 민씨 재산은, 분산 작용을 하며 다시 일부는 집합체로 되어 있는 것이다. 原動脈인 민영휘씨가 사거함에 그 재산은 각각 세포로 흘러가는 수많은 細脈으로 달려갔다. 兩大 靜脈과 극소 부분의 動脈이 횡으로 종으로 흩어져 가는 것이 민영휘씨의 재산이 걷는 「코스」이다.

動脈인 민형식씨의 심장이 細微하고, 민대식, 민규식 양씨의 二大 靜脈의 세력이 縱橫自在한데다가, 大腿脈인 永保 중심의 재벌이 經으로 緯로 휩싸고 도니 과연 이 민씨의 천 수백원의 효능이 如何할까. 금후가 주되는 바이다.

〈뒤에 들은 여담〉

이상 錯綜한 경위를 錯雜히 써서 일반 독자는 그 기대가 어그러졌다 하겠거니와 前項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의 것을 極秘함에 容易히 윤곽이라도 엿보기 어려운 데다가 갈피를 잡기 어려운 민씨 諸族들의 內密한 것을 뜻대로 알 길이 없어 그렇거니와 이제 그 후들은 餘聞이나 또 한 토막 적고 끝을 맺기로 하자….

민영휘씨의 사거 후 장례가 너무 소홀하였다고 일반이 민대식씨의 節約劇에 대하여 총공격의 화살을 던지자, 그로 인하여 그랬던지 京城府에다가 사회사업에 보태어 쓰라고 그 장례비 절약한 것 일금 2만원을 기부하였다 한다. 그랬더니, 이것을 또 가지고 말 좋아하는 세인이, 경성부에 기부한 것 가지고 시시비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하여도 형식씨가 30만원을 낭비하며 신용을 先人에게 잃었던 말았건, 의당히 그 諸弟妹는 宗家요, 嗣孫인 형식씨에게 배당한 재산이 過小하니, 그 이만원을 그에게다 주었으

면 도리어 그 부친의 贖罪나 될 것을 하고 嶮口를 하니까 혹 여기에 간이 좀 찢리든지 민규식, 민천식, 두 누님 합하여 3,000석 지기를 모아 주이라 하고 민대식씨가 명령을 내렸더니,

“민규식씨가 큰 소리를 치며 말하기를, 형님은 一斗落도 아니 내놓고 우리더러만 내놓으라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오”

一矢를 던지자 그만 민대식씨 無色하며 그 말은 그대로 흐지부지 하였다. 내 것은 아깝고, 남의 것만 내놓으란 염치없는 소리를 두 번 씩 하기 어려운 것은 인지상정이거니와 또 그러면 나도 내놓을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할 민대식은 아닌지라, 소문의 소문만 만들어 놓아 세상 사람의 심심풀이 화제를 만들어준 아량에는 감복할지 몰라도, 3,000석지기 더 얻을 뻔한 형식씨의 금후 處世箋方이나 두고 보기로 하자. 그리고 끝으로 민씨 재산의 천통적, 光輝있는 그 위력이 민씨의 누구의 손으로든 지 통제되고 합일되어 그 존재가 어디까지, 또는 어느 때까지 지속될 여부에 대하여 우리는 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기로 하자. (끝)

▷『삼천리』 제8권 제6호, 1936년 6월 1일.

기사제목 : 談話室

〈閔大植씨와 菓子〉

천만장자 故 閔泳徽씨의 제일 총애를 받고 그 재산분배에 있어서 諸子 侄 중에 首位에 參例하여 조선의 감부는 못되어도 일류의 자리를 내놓으라면 노발대발 하실 분, 거기다가 동일은행이라는 금융 국왕의 사장으로

삼천리(三千里)

이름이 삼천리강산에 휘날리는 민대식씨! 더구나 민씨 재벌에서는 히틀러, 못소리니도 당할 수 없을 만한 權의 化身인 민대식씨! 이 분은 평시에 어찌 근검절약을 하시는지 여기에도 一頭角을 내시는 분이다. 그 평생 「못도」¹⁹⁾를 자신의 가정에서도 늘 지켜 나가시는데 근일 듣는 바에 의하면 某 빨에 (以下 三行略-원문) 요즈음 드디어 교외 모처에다가 「스윗홈」을 만들어 놓으시고 每日 每夜 거기서 지내시며 독서와 산보와 사업계획으로 지내시는데 어느 때 來客이 왔다 가셨다.

“여보, 菓子는 왜 세세를 놓아 내보냈소, 나하고 손님 한 분이면 두 개가 마땅한데”

“그래도, 어떻게 꼭 두개만 놓아 내보낸단 말ियो. 「아나다노게찌부리히 도이와」,²⁰⁾ 「곤도다게와시가다나이와요」…²¹⁾ 櫻花美人의 所答如此…, 세상의 모든 호화사치로 일삼는 분들 이 검약과 규모에 이만하면 어떻게? 頂門一針의 좋은 표본이겠지?

▷ 『삼천리』 제8권 제12호, 1936년 12월 1일.

기사제목 : 三千里機密室, 長安甲富 秋收 調査.

구미 각국이나 또는 기타 諸國은 모두 상공업의 발달이 현저하여 대개의 大資本閥을 찾아보려면 상공업계에서 뒤져보아야 하지만 동양, 특히 조

19 [もっと]이며, [더욱더, 더]라는 의미이다.

20 [あなたのケチぶり酷いわ]이며, [당신의 구두쇠 짓은 너무 심하다]라는 의미이다.

21 [今度だけは仕方ないわよ]이며, [이번만은 어쩔 수 없어요]라는 의미이다.

선은 농업이 주가 되었으므로 따라서 갑부 백만장자의 舊稱을 뒤져내자면 불가불 농업가(근래는 모든 업을 겸한 분도 있지만)를 주체로 삼았던 것이다. 그래서 古來로 조선에서는 「農者는 天下之大本」이라고 特稱하였다. 이같이 조선에서는 부자라면 즉시 추수를 많이 하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되었으니 그러면 대체 조선 사람들 중 어떤 분이 추수를 많이 하는가? 지방은 후일로 미루고서 먼저 長安에서도 舊家(옛날부터 부자 소리 듣는 집) 혹은 저명한 인사로 비롯하여 점차로 이에 조사 기록하기로 한다. 물론 근일에 와서는 광업 특히 금광으로 某某씨 같이 수백만의 장자가 된 금광 成金家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 秋收狀에서는 제외하여 뒷날 토지를 많이 산 뒤에 소개하려 하며 또一方이 秋收記는 남의 재산을 비밀히 탐색한 것인지라 秋收官처럼 幾千 幾百 幾十 幾斗式으로 계산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此邊에는 독자 諸位도 아량을 가지고 「近似하구나」 하는 식의 양해를 바란다. 특히 1·2년 내로 더 산 것은 憑籍할 곳이 없어 가산치 않았음도 附記하여 둔다. (단 秋收多少로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먼저 제1작으로 등장되는 분은 장안 갑부일 뿐 아니라 조선 갑부라는 故 민영휘씨의 令胤들이다. 宮家를 빼놓고 어쨌든 舊家로나 어디로나 제1 일인자이던 씨의 상속을 받은 터이라 추수도 쏠 조선 각지에서 모여들어 秋收官만 하여도 수백인을 넘는 형편이라 하니 첫자리를 주어도 손색이 없으리라고 보는 바이다.

민형식씨-상속자(민영휘씨의)인 만큼 추수도 많을 것 같으나 그다지 많지 못하니 그럭저럭 합하여 2천 2·3백석 밖에 次例에 못 간 듯하고 따라서 그것이 씨의 추수 전부요, 민대식씨-형식씨의 令弟로 민영휘씨의 직접 令孫인지라 한때는 만석을 넘을 듯하다더니 다소 실패가 있어 현재는 6·

삼천리(三千里)

7천석 내외일 것이라 하며, 민규식씨-대식씨의 승주씨로서, 이상 諸씨 중에 당연 두각을 들어내어 9천석을 넘을 지경이라 하며, 그의 현금과 가옥이 많아 수백만원의 부라 한다.

韓亮鎬씨-故 참정대신 韓圭高씨의 令胤이니 舊家로도 민씨에게 지지 않는 분이다. 그야말로 오랫동안의 내력이 있는 재산이고 보배 토지로도 상당한 부호이다. 그래서 참정대신이 在世時에 두문불출하는 나머지 理財에 힘을 써 一時는 2만석의 추수가 있으리라는 설까지 있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만석 내외이었다 하므로 지금쯤은 7·8천석의 정도일 것 같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金鐘善씨-씨는 우리사회에서 그다지 이름을 드날린 적이 없어 일반은 모르나 역시 전라도 부자의 舊家로 지금 자기 명의만의 것으로도 4천석은 무난하고 자신이 관리(令伯씨별세로 所生者가 入戶)하는 것까지 합하면 무려 8천여 석이라 하고, 申錫雨씨-누구나 잘 아는 우리사회의 문화사업에 거대한 공헌이 있는 씨는 그간 세간에서 가산을 탕진하였다고 喧籍하였으나 그 실은 그것을 수개 年來에 모두 다 정리하였고 그간 개척사업 기타로 이제는 복구되어 현재 추수로는 3천석 내외나 강원도 抱川 등지의 농장이 완성되는 날이면 1만석은 무난하리라고 소문이 있다.

徐丙學씨-씨亦 大邱에서 1·2위를 다투는 부호이다. 張吉相, 徐丙學은 대구의 쌍벽으로 그야말로 누가 돈을 많이 가졌느냐가 큰 화제가 되었다. 듣는 바에 의하면 張씨보다는 훨씬 상위인 만석 이상의 추수가 있고 또 현금 많기로는 대구에 제1인자이며 대구 재계에서는 牛耳를 잡았다고 한다.

崔益善씨-또한 申錫雨씨 함께 조선 문화사업에 巨功을 끼친 씨는 이로

인하여 다소 추수가 줄었다고 하나 2천 5·6백석 내외라 하며, 金性洙씨-전남의 舊家로 조선사업계와 교육계 문화사업계에 공적이 많아 萬丈氣燄을 토하고 있는 씨는 원래 生養家의 추수가 4만석 운운하였으나 지금은 사업자금에 많이 써서 실수입은 만석 내외라 한다.

金季洙씨-性洙씨의 生身 季씨로 역시 伯씨와 伯仲間이라 하며, 金在洙씨-性洙씨의 令季로 좀 딱 떨어져 2천석 내외. 具昌祖씨-인천에서 富名 들던 舊家로 서울을 나와서 그간 殖利로 많은 토지를 사서 지금은 5천석을 훨씬 넘는다 하며, 張吉相씨-지금은 故人이 되었다. 大邱의 首富라더니 그간 형제에게 分財를 해준 후 京城에서 부인과 동거하다가 작고한 분이니 지금 씨의 추수를 이것저것 쳐보면 6천석 이상은 넘으리라고 한다.

林衡相씨-대금업으로 유명하던 씨는 원래도 富名을 들던 터라 지금은 8천석 내외의 추수가 있다 하며, 林昊相씨-씨는 舊家의 一로 지금도 그 재산이 如一하여 4천석을 稱한다 하며, 禹鐘觀씨-전라도에서 서울 올라온 분으로 숨은 부자로 유명하니 씨 역시 3천석을 不下한다고 하며, 吳正根씨-舊韓國 大官으로 判書에 있었던 舊家로서 씨의 추수는 5천석을 돌파한 것 외에 현금이 수십만원에 달한다고 하며, 윤치호씨-이분은 너무나 유명한 분으로 그의 재산은 씨의 부친 때부터 수천석을 하는 분인데 지금도 5천석을 不下. 金成煥씨-阿峴의 元住者로 부친 이래 鎡器로 치부한 분인데 지금은 8천석을 무난히 받는다 고 한다.

여기쯤 하고 근래 돌연 금광으로써 수년래에 수천석을 하게 된 2·3분을 적어보면 아래의 數씨일 것이다.

최창학씨-금광으로 3·4백만원의 치부를 한 분인데 씨는 그간 토지를 장만한 것이 3천석은 되리라는 평이요, 方應謨씨-또한 금광으로 成家하여

삼천리(三千里)

지금은 문화사업에 활약하는 분으로 買收 혹은 간척사업으로 2천 수백석의 추수를 하는 터이며, 元胤洙씨-선대로부터 남대문 시장에서 과물상을 하여 成家한 분으로 그후 백년 금광을 얻어 더욱 치부하였다.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의 수익은 1천 5·6백석 내외나 鑛의 수익으로 토지를 산다면 만석 이상은 돌파하리라고 한다. 尹希重씨-이분은 룡산의 舊家로 서울 온 이래 조선 문화사업에 공헌이 많은 분인데 이력저력 문화사업에 쓰고 추수는 1천 2백석 내외라고 한다.

이번은 이만한 정도에 그치고 다시 後期에 상세한 것을 발표하기로 한다. 더욱 금년 가을은 벼 한 섬에 14원 정도이니 가령 천석 추수라면 年收 1만 4천원인 셈이 된다.

▷『삼천리』 제10권 제10호, 1938년 10월 1일.

기사제목 : 機密室(우리社會의 諸內幕).

閔家 千萬圓 訴訟에

費用만도 數萬圓 豫定

子爵 故 민영휘가의 유산 1천만원의 신탁해제 소송에는 이 인지 값만 3천15원이 들었고 그밖에 유산조사 기타 제비용으로 3천원 합 6천원이 벌써 들었는데 이 소송은 화해가 되지 않는 한 금후 몇 해 걸릴지 추측할 수 없다 한다. 민형식씨는 訴狀을 제출하고 난 뒤 그날 곧 白川은천에 이르러 정양 중이라 한다.

▷ 『삼천리』 제10권 제10호, 1938년 10월 1일.

기사제목 : 閔씨家 悲劇, 一千萬圓 骨肉訴, 沒后 二년 閔泳徽家에 슬픔의 싸움은 열려 九月二十日 第一回裁判이 서울서 열린다.(돈이나? 骨肉이나?).

「子爵」이요, 「조선 갑부」요, 「천만장자」요, 예전 「大匡輔國崇錄大夫」인 민영휘씨가 2년 전인 昭和 11년(1936)에 세상을 떠나자 壽, 富, 貴多 男子하고 그 위에 臥席終身한 그의 일대의 영화는 자못 세상 사람의 이야기 거리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 뒤로는 천만원 고개를 넘는 이 큰 재산을 분배하여 가진 여러 자손들이, 모두 다 화목하게 오복을 누리고 잘 사는가 했더니 의외로 오늘, 즉 민 자작 작고 후 2년을 넘지 못한 오늘에 재산 분배를 정당하게 하자 하여 돈을 싸고 형제끼리 법정에서 싸우는 人世 最克의 골육상쟁전이 개막되었다. 그것은 중가를 지키는, 장자 민형식이 차자인 민대석과 삼자인 민규식을 걸고 경성 지방법원에 「유산」 전부의 신탁을 해제하고 분배 정리를 하게 하여 달라는 제소이다. 이리하여 민씨 일족의 비극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면 대체 민씨 재산은 얼마나 되며 그 3형제의 혈연관계는 어떻게 되었으며 유산은 어떻게 분배되었기에 여기에 또 말쟁 되고 있었는가, 그를 차례차례로 따져 보기로 하리라.

〈臨終時 財産 1,200만원〉

민영휘씨의 총 재산은 얼마나 되었던고, 三菱, 三井이 몇 억원대라 하고 미국의 카네기나 로스차일드가 수십억, 수백억이라 하니 조선 갑부일 적에

삼천리(三千里)

는 그와 어깨를 겨룰 수 있었을꼬. 그러나 누구나 짐작하기에 그렇지는 못했을 터이다. 그러면 근년에 금광을 팔아 부자가 된 이가 많아서 말하기를 최창학이 어찌니, 李鍾萬이 어찌느니 하여 여러 백만원의 부자가 수두룩하게 배출하는 판에 민씨는 그러면 이 새 부자들보다 못한 재산가였던가 하리라. 그러나 그 또한 그렇지 않았던 모양으로 뭐라 해도 조선서는 고금 몇 백년 내에 처음 보는 큰 부자였든 듯 하여 그의 임종시의 총재산이 혹은 3천만원 혹은 2천만원이라고 호가하는 터인데 확실한 측의 조사에 의하면 1천 2백만원 정도가 과히 과부족이 없을 액수였다고 한다.

그야 上海 무슨 외국 은행에 저금한 돈이 있느니 內地 무슨 회사에 비밀히 투자한 돈이 있느니 하고 있는 풍설, 없는 풍설 자자하였으나 그를 어찌 다 귀담아 들으랴.

씨의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 즉 토지였다. 토지에서만 나는 추수 8만 석이라니 그 8만석이란 것도 13도를 돌아다니며 고르고 골라서 차지한 沃土良田에서 나는 쌀이라 토지만 약 일천만원을 본다.

그밖에

동일은행 기타 株券 약 일백만원

慶雲町의 궁궐같은 大家와 嘉會町의 아방궁 같은 별장과 그밖에 무엇 무엇이 약 1백만원, 이리하여 1천 2백만원을 쳤던 것이다. 토지는 팔도에 널려있는 것 외에도 서울 종로 부근에도 많았다. 그 일례를 들어볼까.

鐘路 2 丁目 13垓 93 평

종로 13 정목 2대 34 평

典農町 970 평

典農町 973 평

花洞町 37 평

花洞町 47 평

花洞町 39 평

花洞町 57 평

花洞町 48 평

토지라 함은 팔도강산 해 뜨고 흙 있는데 치고 없는 곳 없어, 그 중 몇
고을 것을 헤아리면 忠南 唐津, 黃海 平山, 京城 廣州, 忠南, 扶餘, 忠北
靑陽, 洪川, 江原 春川, 報恩, 舒川 등등.

〈血屬派閥이 複雜無比〉

그 다음 고소한 민형식은 어떤 사람이고 고소 받은 민대식은 어떤 사람
들인고. 도대체 그 집 혈통관계는 어떻게 족보는 어떻게 되었는고.

그 집 가정의 내용은 보통 우리네와 달라 大房마마의 직계 혈손이 없고
愛妾마마가 그야말로 여러분이 됴에 따라 그 혈속이 많은 만큼 여기에도
한 가지 흥미와 주시와 분포 여하를 疑視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씨 재산의 거취 여하를 말하자면 먼저 민영휘씨 가정의 혈속
군상의 列傳을 대개라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민씨 재
산과 같이 복잡다단하여 문외한으로서는 능히 그 체계를 正視할 수 없고
비록 그 집에 2·3년의 문객 노릇을 하였다 하여도 알 길이 없고 譜學의
권위라도 無可奈何의 난사이니 그야말로 重重疊疊한 그 집 대문과도 같이
비장된 사건이라고나 할까? 민영휘씨는 여성이 많았던 만큼 대방마마를
수위로 平壤마마, 海州마마를 차석으로 淵堂마마, 무슨 마마하여 5·6인

삼천리(三千里)

의 첩실이 각각 주둔소를 설치하여 가지고 열좌하여 계시다. 그러므로 씨의 그로 인한 인과이든지 대방마마께서는 혈속이 불행히 없고 平壤마마도 남자로는 없고 오직 列中에 대복을 가진 海州마마가 3형제의 아들 대식, 천식, 규식을 두어 삼위일체의 아기자기한 장면을 만들었는데 이 공에는 海州마마가 大勳位를 가져야 한다. 그뿐 아니라 지금이나 그때나 어느 때를 물론하고 민영휘씨 집의 권세와 지배권은 海州마마가 장악하였으니 그것도 생남한 덕분이다. 대방마마는 七去之惡에 無後 第一이라는 동양 독특의 죄로 상위에는 존재하였으나 세력은 海州마마에게 비길 바 못되었다.

민형식씨는 嫡孫으로 양자가 되어 들어왔을 뿐이요, 더구나 온후하고 장자의 風이 있어 躡財淡泊함으로 궁한 사람을 구하고 없는 친척을 돕는, 말하자면 민씨의 전통을 깨트린 반역아(?)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저 유명한 30만원 소비사건의 발단이 되고 그로부터 형식씨는 완전히 거세를 당하고 명목만 장자로 있게 되어 그의 생활은 궁핍한 정도에 있었다. 즉 말하자면 민씨의 당당 적손으로 그 일권을 장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민영휘씨에게 신용을 받지 못하여 거세를 당한 것이니 씨의 생각에는 혈속이 더 애중하고 정이 더 가는 것임에 그렇지 않아도 양자에 대한 관념이 그리 두텁지 못한 터에 「돈」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배격함도 씨로서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민영휘씨의 令子 令嬪이 都舍幾人인지는 구태여 알 것이 없으나 양자되는 형식씨를 머리로 대식, 천식, 규식 등 3씨와 李定宰씨 부인, 寡居한 兩位 따님이 있는데 (그 외는 재산 관계에 깊은 관계가 없어 제외) 민영휘씨 재산은 이 6位를 싸고돌며 늘 쟁패전이 있었고 그 가족별로 각축이 있었던 것이다.

〈主權은 민대식씨〉

혈속으로는 장자요, 사람으로 가장 신용하고 수호하기에는 제일 節儉하고 아끼기는 누구보다 애뜻하고 총명으로는 諸子 중 일인자라고 지목하는 대식씨는 민영휘씨의 사실상 2세로 자타가 공인하여 모든 권리와 지배 및 처리를 동씨에게 일임하다 시피 하였다.

그러므로 동씨는 모든 주권을 掌中에 움켜쥐고 쥐었다 폈다 하였던 것이다. 민영휘씨 재산을 지키고 늘리고 활용하고 좌우하기는 「대식에게 있다」고 까지 되었으니 씨 동일은행(전 한일은행)의 사장인 동시 민씨 계통에 모든 중요한 자리를 점령하고 그 재산을 수호하고자 八陣圖를 布設하고 있었다.

이 수호신은 민씨 왕국에 없어서는 안될 인물ियो, 엄연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씨는 늘 일부에서 인색한, 걱정이 안달뱅이 소리를 들어가며 그 재산을 맡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인사동에 아방궁을 짓고 교외에 「스윗홈」을 건설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한 自身之策이니까 此限에 不在이다. 어쨌든 일상생활에 節用節儉은 실로 철두철미하여 그 류를 보지 못하겠다는 만큼 세평이 높지만, 어쨌든 가혹한 양반이었던다. 그런 까닭에 민씨 왕국에서는 독재관ियो, 전지전능하고 폭군이며 주재자이었던다. 누가 씨의 位를 넘겨다보며 누가 씨의 명을 거스릴 것인가? 하나부터 千百까지 씨가 모르고는 되는 것이 없고 一粒一絲라도 씨의 허락이 없고서는 밖으로 나아갈 수 없다. 비록 父敎일지라도 씨가 반대할 수 있고 씨가 허락한 거면 父命도 철회할 수 있다. 可謂 能當ियो, 전권이다. 그 집안에서야 실로 최고 독재관인 것만은 사실이다.

〈一部는 法人으로 大部分은 私有〉

민영휘씨가 세상의 懷譽褒貶을 등지고, 榮爵, 華位, 極貴, 愛子, 寵妾을 다 버리고 一去歸不歸를 한 후 閔씨의 그 거대한 재산이 과연 어디로 갔나, 또 어떠한 분포 상태를 보이고 있는가. 그러면 민영휘 一去 後에 재산을 참말로 어디로 갔나. 이제 그 측근자의 말과 향간의 전파되는 諸說을 종합하여 소개하면 이러한 것 같다.

씨가 생존할 시에 대체의 분배는 정하여 있었다 한다. 즉 대체 윤곽을 보면 민대식씨가 제일 거대한 분배를 받고 그 다음이 민규식, 또 그 다음이 민천식(사망). 다음으로는 李定宰씨 부인 장녀, 또 다음이 출가하였다가 還元한 따님, 끝으로 嗣子 衡植씨의 순위라고 볼 수 있다 한다. 대식씨로 논하면 혈속으로 장자요, 또 海州마마는 생남한 유복한 부인이라, 총비의 장자요, 주권자요, 총아이었던 만큼 閔씨의 재산 중에서 대부분이 그에게로 갔다하여도 의심할 것도 없고 변괴될 것도 없다. 말하자면 의례 그런 일이다.

사람이란 비범한 사람이 아닌 이상 혈속에 후하고 명목만의 형식을 꾸미는 양자에게 박할 것도 인정에 斯然한 바이라 유독 민영휘씨에게만 그 범주 밖에 있으라는 것은 무리한 일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대식씨로 논하면 생전이나 사후가 문제가 되지 않고 아조 천답도 「노른자」와 같은 것 4만석, 현금으로 수백만원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천식(비망인이 관리)씨가 4만석의 토지와 수만원의 현금을 가졌고 규식씨가 3만석, 현금 1만원, 李定宰씨 부인의 수만석, 出還令嬢이 수천석 씩을 각각 소지케 되고, 남은 수백 가솔은 殘飯식으로 각 수백석, 내지 수석 斗落식을 분배하여 가졌다

한다. 그래서 거대하기로 유명한 민영휘씨의 집단적 재산이 씨 一去 後에는 분산 분포 상태로 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영자 영손까지에는 민가 재벌의 영역을 떠나지 않겠거니와 그렇다고 해도 금후로 一令之下에 좌우되고 통제되는 단일 재벌의 권능은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면 그 당시 그의 嗣孫이오, 嗣씨 누대 조상을 떠받들 중가요, 繼者인 형식씨에게는 얼마나 한 분배가 돌아갔는가. 그에게는 표면으로는 종손이오, 종가이지만 직손 혈손이 아닌 양자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던 지 간에 3천석의 전답과 교동 주택 1동(민영휘씨 상주하던 가옥) 밖에 돌아간 것이 없다 한다. 수천만 장자의 후계 사손으로 내실은 그 가진 바가 얼마 못 되니 外富內貧의 가슴 쓰린 쓸쓸한 웃음을 웃을 밖에 없을 것이다. 씨가 혈손이 아니었던 것이 죄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선 구래의 습관으로 보아 너무 분배가 박하였다는 것은 세인이 다 하던 말이다.

〈閔泳徽씨의 蓄財史〉

- 訴狀에 나타난 고소 이유 -

원고는 故 민영휘 자작의 양자로 피고 등은 자작의 서자남(庶子男)이다. 민영휘 자작은 이조 역대의 명문으로 이태왕(李太王)의 중신인 민두호(閔斗鎬) 장남으로 태어나 명치 11년 당년 일곱 살에 문과에 급제, 동 15년에 통정대부(通政大夫), 동 20년에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어서 가의대부(嘉義大夫), 동 23년에 자헌대부(慈憲大夫), 이어서 승정대부(崇政大夫), 동 27년에 승록대부(崇祿大夫) 동 28년에 보국(補國)에 누진하고 그 해에 중추원 의장, 동 32년에 장례원경(掌禮院卿), 동 35년에 육군부장,

삼천리(三千里)

동년에 헌병대사령관, 동 39년에 시종원경 겸 내대신, 동 40년에 내대신을 역임하고 일한합병의 공에 의하여 자작이 되었는데 본처인 신씨(申씨)와 사이에는 자녀가 없어 명치 14년 3월 15일 원고를 양자로 하고 곧 입적시킨 후, 그후 소실 안씨(安씨)와 간에 명치 15년 7월 9일 피고 대식을 낳고 동 21년 9월 30일 피고 규식을 낳았다.

그런데 민 자작은 원고로 하여금 관계에 나서게 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실업에 종사하도록 명령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의사에 따라 한학을 공부한 결과 명치 25년 문과에 급제하고 동 30년에 통정대부, 동32년에 가선대부에 승진하고 동 35년에 평안북도 관찰사, 동 36년에 경상남도 관찰사, 동 37년에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 동 38년에 법무협판(法部協判), 동39년에 학부협판(學部協判), 대정 13년에 중추원 참의를 역임, 소화 10년 12월 31일 고 민영휘 자작의 사망으로 가독(家督)을 상속하였다.

민영휘 자작은 생전에 중요한 관직을 역임하는 한편, 또 축재(蓄財)에 비상한 노력을 다하여 일한합병 당시에 벌써 년 수입 소작료 벼 5만여 석이나 되는 전답 외에 경성부 내에 있는 토지가 가옥으로서 시가 1백만원 이상에 달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또 자본금 1백만원의 한일은행(韓一銀行)을 설립한 외에 일한합병의 공에 의하여 은사금 수십만원을 받았는데 일찍이 통감부 재판소(統監府裁判所)가 설치되자 민씨의 재산은 관권을 이용하여 불법한 축재를 한 것이라고 세평이 험악할 뿐 아니라 재산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는 사람까지 다수 있으므로 민영휘는 일체의 재산을 자기의 소유 명의로 함을 피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원래 관직에 있으면서도 청렴을 뜻으로 하고 전혀 서도(書道)와 문학을 수학하였고 이에 반하여 피고들은 당초부터 은행의 업무 기타 재계에 중사를 하고 있었던 관

계상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신고를 할 때 부동산에 대하여는 거의 다 피고들에게 신탁하고 동인 명의로 신고를 하여 사정(査定)을 받았으며 은행의 주식도 피고들의 명의로 신탁하고 또 선대 자신이 총재산을 관리하고 수익한 금액으로서 이후 매수한 부동산도 전부 피고 등과 피고 대식의 장남 병수(丙壽), 이남 병도(丙燾) 등에게 신탁하고 동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소화 6년 3월 중 당년 80세의 노령으로 동맥경화증에 걸려 점점 신체가 쇠약하며 정신이 몽롱하여 소화 7년 3월 중부터 언어불능, 정신혼명 상태에 빠졌으므로 당시에 총재산인 연수입 소자료 벼 8만여석이나 되는 토지와 경성부내에 소재한 부동산 시가 2백만원 이상에 달하는 것과 기타 1백만원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피고 기타 친족에 대한 분재도 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선대 2주년의 상기를 치른 후 재산관리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총재산의 관리를 일임하기로 작성하고 장남 병주(丙疇)로 하여금 피고들로부터 수시로 수익금 중에서 일부 반환을 받아가지고 가계(家計)의 지출을 하도록 하였더니 피고 등은 병주에게 수익금의 일부 반환을 줄 때마다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날인(捺印)하기를 강요하였다.

이야기를 들은 원고는 이상하게 생각은 하여왔으나 은인자중하여 선친의 상기(喪期)가 끝나기를 기다려 소화 13년 3월에 이르러 피고들에게 대해서 선친의 유산인 전기 부동산 및 동산의 신탁을 해제하고 적당히 분배 정리할 것을 표시하였더니 피고 등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지금까지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익(收益)의 반환조차 거절하므로 부득이 위선 피고 민대식에 대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와 피고 민규식에 대하여도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각각 신탁해제로 인(因)한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의 이행을 구하

삼천리(三千里)

고자 본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餘錄片片〉

오늘은 骨肉相爭을 법정에 보이고 있지만은 그 자손들도 선대의 힘으로 소시적 人世의 榮榮도 잘 누렸으니 맞아들 민형식씨는 27에 평안감을 하였고, 둘째아들 민대식씨는 17세 小童 때에 이미 승지 벼슬을 하였다.

慶雲町 천도교당 뒤에 있는 민영희씨 집은 옛날 육군참령 李甲씨가, 夜半에 뛰어 들어가 위협하여 돈을 내어다가 五星學校를 지었다 하여 유명한 집터이다. 더구나 그 집터로 말하면 예전은 영의정으로 그 세도가 飛鳥走獸라도 쫓쫓매게 하던 金炳基가 살던 집으로 진실로 이 집은 역사의 어느 일면을 이야기하던 터전이다.

고 민 자작은 합병 당시 일시 賜金 10만원을 받았었다 한다. 이 재판의 원고 측 변호사는 辛泰獄, 金炳魯, 李仁 등 4씨로 피고 측은 아마 李升雨씨 몇 분이 될 듯하다는데, 公判은 9월 20일 개정하리라 한다. 화해가 아니 되고 끝끝내 법정에서 흑백을 가리게 된다면 복잡다단한 사건이니 만치 상당히 세월을 끌 것이라고 한다.

▷『별건곤』 제3호, 1927년 1월 1일.

필 자 : YYY,

기사제목 : 朝鮮에서 活動하는 海外에서 돌아온 人物評判記, 어느 나라가 제일 잘 가르쳐 보냈는가?

별건곤(別乾坤)

그러저럭 새해가 가까워오니 묶은 해는 간다는 말이지. “흥!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것도 너무 진부한 한탄이고 그래 무엇 뒤적일 것이 있어야지. 모든 것에 자유도 없지만 사회도 하도 적막하니 이려고서야 사람 사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나? 에라 연말의 시가 광경이나 한 번 돌아보자 하고 툭툭 털고 일어서서 모자를 둘러쓰려는 판에 말썽쟁이 B君이 와락 달려들며 눈 물은 구뚝발을 탁탁 털며 문을 열며 한바탕 야단이다. “이것 어디서 한 잔 얻어 걸친 것이로군! 신이 나는 것을 보니까…” 하고 있노라니까 B君은 쑥 들어서며

“자네 어디 가려는가? 가만히 있게, 이야기 할 것이 있네. 좀 기다리게”

하고 달라붙는다. 나도 한참 무미하기 짝이 없는 판이다 말동무라도 어디냐 라는 계제에 말썽쟁이 B君을 맞난 것이야말로 주린 범에게 고기 한 덩이 폭은 넉넉하였다. 나도 역시 괜찮다는 듯이 픽 웃으며

“할 말은 네가 무슨 할 말이여. 어디서 年末이라고 原稿料뿐이나 생긴 짬에 「タチノミ」²²⁾ 집을 방문한 모양이로구나.”

B君은 별안간에 의외로 엄격하고도 진실한 태도가 얼굴빛에 나타나며

“사실로 술은 몇 잔 했네만은 그렇게 나를 술부대 모주꾼으로 아나? 그런데…”

하며 손을 뉘뉘 내두른다. “취중에 진담한다고, 애 여보게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왜 무슨 일을 하나 끝이 없나. 그저 龍頭蛇尾여 龍頭蛇尾! 우선, 해외에서 돌아온 소위 류학생들을 보게. 무엇하나 하는 것이 있던가? 처음에 돌아올 때는 아주 그럴 듯이 신문에 글줄이나 무엇 소개도 하고 한다고 떠들다가는 그저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종적이 묘연하게 되네 그

22 [立ち飲み]이며, 간단하게 [서서 마시는 술(집)]을 의미한다.

삼천리(三千里)

려. 그러니 무엇 해외 류학생이라고 다른 것이 있던가?” 하고는 의외로 외국 류학생 이야기를 꺼낸다. “그러면 좋다” 하고 B君을 붙잡고 해외에서 돌아온 인물의 總評을 한 번 들어보기로 內定하였다. 그리하여 일일이 細評까지는 못하였지만 하여간 개괄적이거나 해외에서 돌아온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Y : 그야 그 사람들만 나무랄 수도 없지. 사회 현상이 전체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들 별수가 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자기네들 있던 곳만 대중하고 무엇을 해보다가 실지로 해 보면 처음 생각하던 바와는 틀리니까, 자연 끝에 가서는 落望이 되어서 흐지부지 그만 두는 것이지. 그 사람들인들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나? 그리고 사실 말이 지 외국 류학생은 그만 두고 본국에서 성장해 가지고 여기 사정을 잘 알고 여기서 智識을 얻은 이들은 더구나 무엇 하나 하는 것이 있나? 결국은 마찬가지니.

B : 아따 이 사람! 류학생에게 무던히 好感을 갖고 있네 그려! 자네도 耶蘇教 篤信者나 되어 가지고 교회 의 주선으로 미국 류학이나 가보게 그려! 그리고 자네 집부터도 재산 푼이나 있으니까 미국 류학 가기는 제일 좋지.

Y : 왜? 자네는 미국 류학하고 무슨 척진 일이 있나? 그야 교회 의 주선이고 자력의 辦費고 할 수만 있다면 미국 아니라 어디는 가서 공부 못할라고….

B : 여보게 다하여도 미국 류학일랑 말게. 못처럼 가서 그까짓 놈의 남 잘 사는 것만 보고 자유천지니 세계낙원이니 하면 무엇 하나 소용이 있나? 그리고 조출이나 좀 하였으면 좋겠구면, 외국 류학이니

전문학교 교수이니 하고 떠들면서 여자문제 같은 것을 다 일으켜서 한참 세상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떠들어대던 것이 다 미국유학생 아니었나?

Y : 허! 그거야 하필 미국유학생이라고 그렇고 전문학교 교수라고 그렇겠나? 마침 그 사람들이 그런 지위에 있으니까 세상에서 말거리가 좋아서 그렇지, 왜 다른 데는 그런 일이 없다던가? 일본에 東北大學 교수로 있던 石原純 박사 같은 이도 原阿佐緒 女史하고 연애문제가 일어나서 교직까지 내놓게 안되었었나? 그것만 보아도 그 만한 문제는 인간 도처에 다 있는 것인가 보대. 자네가 그렇게 색안경을 보니까 그렇지 미국유학생으로도 申興雨씨 같은 이는 우리 청년계에도 상당한 신망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자네도 말을 하니 말일세 마는 수효로는 미국유학생이 제일 많을 터인데 돌아오면 모두 무엇을 하는지 소식이 감감하대나 그러?

B : 그래 그러. 그래도 申興雨씨가 미국유학생으로는 하여간 대표적 인물이니 종교계에 종사하고 마는 것은 다 각기 主見과 처지대로 할 것이니까 부득이 그걸 시비할 것은 아니고 아무려나 지성인으로서 철두철미 무엇에나 노력해보려는 눈치가 보이대. 그외에야 말할 것 무엇 있나. 종교학교에 가 고개를 수그리고 앉아서 세상과 나는 무관이라고 본승만승, 천당의 노래나 부르며 糊口之策이나 안전하면 그만으로 알고 있지 무엇 할 것 있나?

Y : 왜 의사 개업한 이들도 더러 있나보대 그러. 글 쓰는 이들도 약간 있고.

B : 의사야 약간 있지. 그렇지만 그도 교회 부속병원 같은데 가서 붙어

삼천리(三千里)

있지 자유 개업하는 이도 썩 드무니. 그리고 글일랑 말도 말게. 그 까짓 글은 미국 유학 아니 가도 다 쓸 줄 안다네.

Y : 여보게 자네 그런 소리 하다가 그분들 앞에 못 발길 채이고 싶은가?

B : 흥! 그야 힘이 모자라고 腕力이 부족하고 衆寡가 不敵해서 얻어맞는 것이야 할 수 없지. 그렇지만 하여간 미국유학생이 이렇게만 나가면 얼마 안가서 沒落이니. 무슨 명색이 있겠나? 지금도 실상은 수효적은 다른 유학생들만치도 사회적으로는 그만 두고 개인적으로도 활동하는 것이 없으니, 그러고서야 미국유학생의 前途가 悲觀치 아니할 수 있겠나?

Y : 그렇지만 다른 유학생이라니 어디 무엇 있던가, 독일유학생이 몇 분 돌아왔지. 그외에야 뭐?

B : 독일유학생! 말도 말게. 수효로도 그렇게 적지는 않지만 누구 하나 쏠자가 없대. 자기네 할 일은 꼭꼭 다 해놓고 있대. 실상 독일유학생이 조선에 돌아오기야 역사로 해도 얼마 되었겠는가마는 명성이 높아졌다느니 보다도 하여간 세상 사람이 이름이라도 다 알만큼 된 것을 보면 그들의 활동력이 얼마나 풍부한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은가. 崔斗善씨가 맨 먼저 돌아와서 교육계의 중진이 되자 李灌鎔 박사만 해도 언론계로, 사상계로, 학술계로 상당한 평판이 있었고 金俊淵씨도 오던 차. 언론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혁혁한 이름은 없지만 언제 보아도 그 색시 같은 암전한 태도를 보면 무슨 病敗낼 것 같지는 않대. 그리고 尹治衡씨도 거기서 돌아와서 일본의 博士號를 얻고 李星鎔 박사는 서양 부인까지 데리고 와서 의원개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이고 鄭錫泰 박사야말로 개인적이지만 그 활동하는 모양이란 여간 민첩한 것이 아닐세. 첫째 돌아오던 머리에 서울에 서도 이름 있는 다방골 골목에다 내과성병의원을 신축해 가지고 개업을 한 후 각 방면으로 활동하는 것만 보게, 고 조그만 몸이 나를 듯이 날뛰는 품이야 어느 유학생이 당하겠나? 아니 李甲秀라던가 하는 박사가 또 역시 壽松洞 보성고등보통학교 앞에다 굉장한 신축 의원을 가지고 개업을 한 모양인데 엇그제도 신문에 끼워 돌리는 광고를 보니까 여간 선전하는 것이 아닐세. 하여간 나는 독일유학생들에게 동감이며! 동감, 사람이 그래도 죽은 물건이 아닌 이상 좀 활동하는 맛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가?

Y : 그는 그래. 나도 동감일세만은 자네는 너무 극구 칭송일세 그려. 왜 병나면 그네들 병원에 가 무료 치료를 한 번이나 받아 볼 줄 알고 그러나?

B : 예끼 순 내가 돈은 없지만 그네들에게 가서 무료 치료를 받을 냐? 그렇지만 어디라고 어림 반푼의 가치나 있다. 그래도 독일기 풍인데, 어쨌거나 걸적걸적 하니 덤벼본다는 맛이 좋아. 그래야 활기가 좀 있어 보이니까. 개인이 작고 그렇게 하면 사회가 따라서 자연히 그렇게 활기가 있어 보이느니.

Y : 그야 그렇지. 활기 없는 사회처럼 보잘 것 없는 사회는 없느니. 그러나 대관절 독일은 학술이 발달되어서 박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데 조선에 돌아오는 이는 개개인이 박사 칭호를 거의 다 얻어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才分들이 다 초월한 모양이네 그려.

B : 글썄 그야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박사부터도 사람이 하

는 것이니까. 才分 좀 있고 게다가 힘 좀 더 써서 연구하면 그만큼은 될 수 있겠지?

Y : 그러면 해외 유학생으로는 자네 말대로 독일이 양호한 성적일세 그려. 그러나 그 외에도 또 있을 터인데?

B : 응! 불란서유학생이 아마 몇 분 있지. 우선 문학사 李晶燮씨가 갖 돌아오지 아니하였나. 그리고 동아일보 附錄에 심심할 만치 기행문을 쓰시는 金在殷씨도 아마 불란서서 돌아왔나 보네.

Y : 그분들은 무얼 하는고?

B : 모르지. 아직 갖 돌아온 모양인데 불란서면 아마 예술방면으로 활동하겠지.

Y : 그 이외에는 또 없는가? 불란서 유학생이 꽤 많다는 말을 들었는데 별로 소식이 없지 않은가?

B : 글썄? 그는 나도 들으니까 독일은 전란 후, 경제적 곤란이 심하여서 마르크 값이 떨어지고 물가는 비싸서 학비가 많이 드는 까닭으로 불란서로 많이 옮겨 간다는데 아직 돌아온 사람은 나 역시 별로 듣지 못하여서...

Y : 여보게 영국서 돌아온 분이 왜 누구인가 있지 않은가?

B : 무엇 무를 것 있나? 민영희 대감의 자제 규식씨가 캠브릿지 대학 鑛山科인가 무슨 科를 마치고 돌아온 지가 벌써 오래이지만 그런 이야 무엇 할 것 있나. 어느 은행의 무슨 직무인가 가지고 있으며 三清洞 건너편 北岳山 등 밑에다 새 벽돌집을 짓고 따뜻한 생활을 한다네. 그리고 朴勝喆군이 실은 독일에 많이 있었다지만 영국에서 돌아왔다 하여도 좋겠지. 그런데 중앙학교에서 지리, 역사하고 또

별건곤(別乾坤)

어느 전문학교에 가서 몇 시간 교수를 담임하고 있다네. 생각하면
가없는 일이지. 외국 유학생이라고 본국에 돌아오면 중학교 교원,
신문기자, 전도사, 통역인, 한심하지!

Y : 이 사람아! 그래도 자꾸 배워야지 별 수 있다. 일본유학생, 중국유
학생은 대개 어떻다고 말할꼬?

B : 에이 미친 녀석 辛酸스런 소리도 다 묻고 있다. 소위 기자라는 녀
석들은 본색이 다 저렇더라.

나도 여기에 와서는 우물적하고 말을 끊어버렸다. 아무렴 B君에게 이만
한 재료를 공급해 준 것을 多謝多謝한다.<끝>

▷『별건곤』 제3호, 1930년 3월 1일.

필 자 : 金起田,

기사제목 : 春季特輯附錄, 朝鮮最近十三史講座.

〈第六講 동학당의 궤기와 일청전쟁〉

고종 등극 이후로 일시 대원군의 내정혁신의 시험이 있고 또 甲戌이후
開化와 守舊 獨立과 事大의 정당이 있어 갑신개혁과 같은 정변을 일으켰
으나 그것은 모두 경성 내지 지방의 宮界에 대한 일시의 파동을 일으켰을
뿐이요, 일반 인민의 실생활에는 별반의 反響이 없었다.

더욱 갑신이후 개화신진의 徒가 박해되고 淸國 내지 러국의 세력을 배
경으로 한 閥族 一流를 중심한 정부의 전권은 一層下層 인민의 痛苦를 더
하였다.

삼천리(三千里)

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李朝의 말기에는 처음에는 일종의 發作的이고 단적인 인민운동이 일기 시작하다가 철종 연간에는 당시의 變運에 응하는 새로운 진리와 목적을 갖추고 나타난 동학이 생겨 많은 百姓의 不期而同을 얻은 바, 고종 등극 초에 그 지도자 崔水雲을 죽이고 나서 그것의 활동을 금하였으나 運을 응하여 나타난 그것은 인력으로 禁過할 바가 못 되고 이후 30여 년간의 형세는 그의 발전을 조장하여 고종 28·9년 즉 壬辰 癸巳間의 동학은 경상, 전라, 충청, 경기, 강원, 황해 일대에 遍滿하여 그 潑刺한 신흥세력은 당시의 양반, 土豪, 관료의 一隊威脅이 되었다.

이에 지방에서는 이 신흥세력이 互相對峙 알력이 되어 공주, 전주의 군중운동이 있고나서 경성에서는 광화문 앞에서 수만명의 伏閣示威가 있었으나 오직 世道の 쟁탈이 있고 외국병의 鼻息을 엿봄이 있는 외에 다시 다른 것이 있는 줄을 모르는 당시의 민영준, 즉 민영휘 일파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單히 전라감사 金文鉉, 경상감사 李容直에게 전령하여 慰諭解散을 명하고 후에 魚允中으로 兩湖宣撫使를 삼아 宣諭를 행하는 이외에는 하등의 考慰가 없었다.

고종 31년 甲午(1894년) 3월(陰 2월 하순)에 全瑋準, 金開南을 수령으로 한 동학의 一群이 古阜郡守 趙秉甲을 죽이고 保國安民(除暴救民)의 烽火를 들자 우선 전라, 경상의 일대가 響應하여 金海府使 趙駿九는 그 지방 백성에게 境外逐出이 되고 列邑守宰가 다같이 항복 혹은 희생되어 形勢大振하였다. 정부에서는 5월에 前 전라병사이던 洪啓薰으로 兩湖討捕使를 삼고 兵 8백을 주어 群山을 向케 하였으나 동학의 軍이 그 달 하순에 全州를 進占하여 監司 金文鉉은 일찍이 달아나고 소위 관군은 전의가 없이 도처에 敗走하였다.

이를 본 洪啓薰은 곧 정부에 上書하여 淸國의 大兵을 請할 不得已를 訴하며 정부(민영준)는 곧 이를 원세개에게 통하고 원세개는 이홍장에게 訴하여 葉志超 葉士成을 領將으로 한 1,500여명의 청병은 6월6일 牙山에 도착하였다.

청국은 이와 같이 조선에 출병하는 동시에 그 旨를 同月 7일 附公文으로 일본에 知照한 바, 일본에서는 청국이 天津條約에 豫先知照라는 약속에 위반한 것을 責하는 동시에 거류민 보호의 名으로 역시 출병을 決하여 그때 귀국했던 大島公使는 水兵 4백을 이끌고 10일 경성에 歸任하고 후 13일에는 일본육군 약 3,000人이 入京하였다.

이와 같이 兩國兵이 출동하여 동학난은 討滅시키게 되었으나 그 토벌이 끝나자마자 日淸의 충돌은 시작되어 8월1일로 日淸 양국은 서로 宣戰布告를 하고 말았다.

동학당은 그후 洪啓薰과 西湖巡邊使 李元會의 合攻을 입어 全州를 失하였으나 다시 北接의 孫義菴軍과 합하여 공주를 占하는 등의 일승일패가 있던 중 三國軍兵의 合攻을 입어 이 해 연말까지 완전히 敗散되었다. 이 동학난에서 생각할 것은,

- (1) 그 운동자체에 있어 甲申의 개화당 운동과 같이 동일한 집권계급 안에서 개신파가 수구파에 대한 政見上의 충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이중압박에서 呻吟하는 常民級이 정치와 사회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試한 民중운동인 점.
- (2) 그 결과는 조선재래사회의 陣壘를 흔들고 개혁정부의 출현을 재촉하여 상하가 한가지로 변혁의 新氣運을 吟味케 한 것.
- (3) 일청전쟁의 近因을 지어 東洋大勢를 변동케 한 것 등이겠다.

▷ 『별건곤』 제39호, 1931년 4월 1일.

필 자 : 徐椿

기사제목 : 萬人 必讀할 今日的 經濟常識 第二課 今日的 問題 朝鮮 사람은 왜 가난해지나.

몇몇 부자 사람을 제하고 나면 조선 사람은 똥가래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야말로 가랭이가 찢어지려 해도 힘줄이 걸려서 못 찢어진다.

털난 짐승이래야 쥐 밖에 없고 곡식이래야 「콩팥」밖에 없고 밭이래야 공주 한 발 밖에 없다. 이 말은 이 근년의 조선 사람을 그대로 그려 놓은 말이다.

장사를 하려니 미친 한 푼 없고 농사를 지려니 송곳 하나 낫을 자리가 없다.

동쪽과 서쪽은 바다가 막혀 못 나가고 남쪽으로 가자니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고 북쪽으로 가자니 호인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다.

어디로 갈꼬? 어떻게 살꼬?

대관절 조선 사람은 어째서 가난한가?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고 요전번에 약속한 일도 있으니 다시 동아일보사로 徐椿씨를 찾아가 보자.

記者 : 조선 사람은 왜 자꾸 가난만 해 가는지 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오.

별건곤(別乾坤)

徐椿 : 이번 문제는 좀 빠근한 걸요.

記 : 가난해 가는 중에도 특별히 토지문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徐 : 네. 원인을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리어 가지고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이 적은 것=그 때문에

1.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공업을 하든지 크게 하지를 못하고 그러므로 물건을 헐하게 만든다든지 판다든지 못하는 것.
2. 정치와 결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설명은 자세히 하지 못합니다.)

(2) 지식이 부족한 것=그 중에도

1.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남에게 속기가 쉬운 것.
2. 경제지식이 부족해서 경제계의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알지 못하는 것.

(3) 위에 말한 자본이 적고 지식이 부족하여 공업이나 상업 같은 것을 크게 하지 못하는데다가 가진 것이라고는 논밭 밖에 없고 또한 농자는 「친하지대본」이라는 사상이 박혀 있기 때문에.

1. 농사 밖에는 짓지 아니하고 그 때문에 자기네가 만드는 농산물과 공업품의 원료는 가장 헐하게 팔고 자기네가 사는 물건은 가장 비싼 값으로 사게 되는 것.
2. 다만 한가지인 농산물을 가공(加工)을 하거나 장소를 옮겨서 팔거나 시기를 잘 살펴서 팔거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것.

(4) 전통적으로 인색한 것.

1. 상점의 장식을 잘 하려 아니하는 것.

삼천리(三千里)

2. 진열품을 잘 내놓지 아니하는 것.
3. 광고를 잘 내려 아니하는 것.
- (5) 벌어들이는 것은 없고 쓰는 것은 많은 것=전에 세월이 좋을 때에 한 벌이 오륙십 원씩 하던 양복을 지금도 그 값으로 입고 한 잔에 일 원씩이나 하는 양주를 지금도 그대로 먹기 때문에 주머니가 자꾸만 가벼워지는 것.
- (6) 토지를 잡히는 것.
 1. 토지를 잡혀놓고 이자를 무는 것.
 2. 찾을 수가 없는 것을 변연히 알면서도 팔았으면 조금이라도 값을 더 받을 터인데 잡히기 때문에 제값을 다 얻어 쓰지 못하고 땅은 땅대로 떠내려 보내는 것.

이상의 여섯 가지가 조선 사람이 점점 가난해 가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記 : 어렵פות이는 짐작은 하겠지만 그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徐 : 그거야 그렇겠지요. 좀더 자세한 것은 「혜성」 4월호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記 :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토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徐 : 네. 토지문제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즈음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가(地價)문제입니다. 이 지가문제는 위에 말한 「조선 사람이 가난해 가는 여섯 가지 원인」의 원인이 되게 하는 문제입니다.

記 : 네? 그러면 그것이 꼭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려?

별건곤(別乾坤)

徐 : 그렇고말고요.

記 : 그러면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徐 :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내가 논을 3천 평을 가졌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값을 한 평에 십 원씩이라고 하면 내 재산이 얼마입니까?

記 : 삼백 원이지요.

徐 : 삼백 원이지요? 그런데 나는 다른 모든 조선 사람들과 한가지로
달리 돈을 가진 것은 없고 그 땅에서 나는 벼만 가지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記 : 벼만 가지고?

徐 : 네. 그 땅에서 나는 벼를 가지고 양식도 하지만 세미도 받쳐야지
요. 옷도 해 입어야지요. 그외에 돈 쓸데가 있으면 벼를 팔아야
아니하겠습니까?

記 : 그렇지요.

徐 : 그런데 벼를 팔아 가지고도 그것이 모자란다고 하면?

記 : 빚을 지거나.

徐 : 또.

記 : 땅을 팔거나.

徐 : 그렇지요. 빚을 지거나 땅을 팔거나. 그렇지만 빚을 빚을 갹자면
결국 가서 땅을 팔아야 아니하겠습니까?

記 : 그렇지요.

徐 : 그래서... 그래서 말입니다. 내가 20년 전부터 해마다 모자라는
것을 메우느라고 해마다 삼천 평의 논을 조금씩 조금씩 팔아먹었

삼천리(三千里)

습니다. 가령 일년에 백 평씩 팔아먹었다고 하더라도 20년 동안이면 이천 평을 팔아먹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통 삼천 평 가졌던 것을 이천 평을 팔아먹었으니 일천 평 밖에 아니 남았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해졌을 밖에요.

記 : 그거 참 그럴듯합니다.

徐 : 그런데 이것은 비단 나뿐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 다 그랬거든요. 그동안 조선 사람치고 가진 땅을 아니 팔아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記 : 없지요. 우리 집에서든 해마다 빚을 저오다가 필경 팔아먹은 걸요.

徐 : 거 보십시오.

記 : 그러나... 가만 계십시오... 선생이 삼천 평을 가졌던 중에서 이천 평을 팔아 버렸다면 전보다 가난해졌을 것이 아닙니까.

徐 : 그렇지요.

記 :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데요. 그전 옛날에는 조선 사람의 주머니 속에 돈이 1원이나 2원이 들어 있기가 어렵든 것이 지금은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들어 있고 옷도 몇 십 원 짜리 양복을 해 입고서 양술을 먹고 모던 걸, 모던 보이가 되고 이층양옥을 짓고 서양구경을 가고... 굉장하지 않아요?

徐 : 네네. 거깁니다. 옳게 물으셨습니다. 자 그걸 이야기할 테니 들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내가 가졌던 그 땅이 한 평에 십전씩 밖에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 도통 3백원이었지요.

記 : 그렇지요.

徐 : 그런데 그동안 조선 안의 땅값이 늘 올라가지 안했습니까?

별건곤(別乾坤)

記 : 네네.

徐 : 그러니까 내가 삼천 평 가졌던 중에서 이천 평을 팔아먹었다고 하더라도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 1천 평은 한 평에 오십전 씩이라 하더라도 오백원이 아닙니까?

記 : 그렇지요.

徐 : 거 보십시오. 땅이 2천평이 줄기는 했으나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내 재산은 3백원에서 5백원으로 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가진 양은 줄었다고 하지만 내용으로는 더 부자가 된 셈이지요.

記 : 그거 참 그렇습니다.

徐 : 그거 보십시오. 요즘 유명한 백선행 여사가 부자가 된 것도 김성수, 민영휘가 부자가 된 것도 모두 땅값이 오른 덕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큰 공업이나 상업을 해서 그리 된 것이 아닙니다.

記 :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선 사람도 아직 그다지 낙망지경은 아니겠습니까 그러?

徐 :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새까지는 조선의 땅이 일본의 땅과 값이 같아지느라고 늘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간 팔아먹어도 도리어 전 보다는 돈으로 따지면 만한 셈이 되었는데 제작년 즉 1929년까지에 땅값은 더 올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올라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유명한 세계공황의 영향 때문에 도리어 땅값이 근 절반이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記 : 네... 그거 참 그렇군요.

徐 : 그래서 아까 말한 내가 다 팔아먹고 남은 일천 평의 땅도 제작년

삼천리(三千里)

까지는 오백 원 가격이나 되었든 것이요, 지금 와서는 삼백 원 값 밖에 아니 되었으니 어떻습니까?

記 : 그러면 앞으로는 어찌 될까요?

徐 : 나는 그 나머지 천 평에서 더 예여 팔아먹어야 하겠는데 땅값은 전과 달리 오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떨어지니 그거나마 동등 떠나 가고 말지요.

記 : ...!

徐 : ...!

▷『별건곤』 제46호, 1931년 12월 1일.

필 자 : 鄭泰哲,

기사제목 : 私設檢事局大探查錄, 新幹京支會館은 어찌 되었나.

「돈」이란 도대체 어떻게 생긴 妖物이나? 새삼스럽게 큼직한 문제를 내 걸고 싶으리만큼 알미운 것은 돈이다.

돈! 돈! 돈봐라 한다면 興夫傳의 돈타령 같아서 좀 거북하나 1진짜리한 푼(마침 이것 밖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을 손바닥 위에 모셔놓고 줄음이 오도록 뜯어본대야 별것이 없는 돈이다. 아이들이 반찬가게로 줄다름질 친다면 눈깔사탕 한 개와 바꿀 수 있는 그것뿐이다. 이것으로 돈이 무슨 요물이 될 것인가.

그러나 모지라진 빗자루가 도깨비가 되고 백년 묵은 여우가 사람을 호령다하는 목노방의 이야기 거리와 같이, 돈도 역시 해가 묵고 덩치가 커지

별건곤(別乾坤)

면 사람의 속을 뻔히 아는지라 가진 요사를 다 부리게 된다. 이상에 조금이라도 돈에 홀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멸절한 거짓말이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강도, 절도, 횡령 등의 아름답지 못한 죄명으로 검사국 일거리만 장만하게 된다.

이 돈이라는 요물로 인하여 이제 사실검사국에는 한 가지 서류가 와있으니 그것은 신간경지회관 비거석양풍사건(新幹京支會館 飛去夕陽風事件)이라는 사건 이름부터 기괴한 그 사건이다. 필자는 이제 이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자 하노니 독자 제위는 긴장하고 들으라.

조선에 신간운동이 생기기 시작하지 얼마 안되어 신간회 본부와 신간회 경성지회에서는 회관을 장만하려고 백방으로 맹렬한 운동을 한 일이 있었다.

그때의 신간회본부 회장인 權東鎭씨와 경성지회장인 兪鎭泰씨는 회관건축 자금을 기부 받고자 오백만장자인 고 韓圭高씨를 무시로 경쟁적으로 방문하게 되었었다. 때마침 한규설씨로 말하면 자녀들에게 재산 분배할 것과 기타의 모든 일로 재산정리에 바쁜 때였다. 기회가 기회이니만치 양(兩)씨의 활약이 한층 더 백렬화 하였을 것은 제삼자가 추측하기에도 용이할 것이다.

드디어 한씨는 일금 3천원을 내기로 하였다. 평소에 교분이 있는 관계로 이 돈은 유진태씨에게 전하기로 하고 유씨는 李時琮씨를 보내어 그 돈 3천 원을 찾아오게 되었다.

회관문제로 말이 많은 판에 유진태씨가 3천원을 얻어내어 놓고 보니 경성지회에서는 회관걱정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웬걸! 신간회 본부에서 이 돈 때문에 들고 일어났다. 그 이유는 "한씨가 3천원을 기부하기는 신간회

삼천리(三千里)

를 위하여 낸 것이지 신간회 경성지회를 위하여 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돈 3천원은 당연히 신간회 본부로 들어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씨로 말하면 자기의 유력한 교섭으로 된 것을 자궁하며 또한 자기는 신간경성지회를 대표하여 활동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부의 요구를 박차버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본부와 지회 간에는 3천원 돈을 가운데 두고 한참동안 으르렁거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본부는 지회에 이러한 타협을 구하였다.

"우리 그럴 것 있느냐. 다같이 시내에 있는 바에는 회관을 나눌 것이 없이 한 집에서 일을 보되 회의를 나누어 보면 그만이지! 따라서 이 어려운 중에 회의 사무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도리를 하자."

그러나 최후의 이 타협안도 파열되고 본부는 할 수 없이 섭섭히 물러서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말썽 많은 중에 경성지회는 회관을 장만하였다. 건축하거나 산 것이 아니고 3천원에 전셋집을 청진동에 얻었다.

여기까지에는 별문제 없다. 그러나 그후의 경성지회에는 회관이 요술쟁이의 검은 보자기 속에 들고 말았다. 보자기를 뒤집고 아따 보십시오! 하는데 3천 원짜리 회관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요술도 요술이러니와 좋다고 손뼉을 칠 일도 아니요, 어안이 병병할 노릇이다. 계란 한 개나 능금 한 개가 없어졌다가 또 생겨났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3천원짜리 집 한 채가 감쪽같이 없어지는데, 더구나 영구히 없어지는데 상당히 규모의 트릭과 교묘한 장치가 없을 수 없다. 이 사실검사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탐사하는 점이 이점이며 트릭에 대한 공개가 즉 필자의 보고하고자 하는 바이다.

별건곤(別乾坤)

먼저 유진태씨가 경성지회장으로 있을 때 씨의 제안으로 李時琬씨를 총무 간사로 제무까지 맡아보게 하였다. 그때에 간부 간에는 상당한 물의가 일어나고 반대까지 있었다. 그러나 회관이 생긴다는 어떠한 텔리게이트 한 관계와 조건하에서 간부 일동은 유씨의 뜻을 들여 이시완씨를 보선하게 되었고 한씨로부터 3천 원이 나올 때는 유씨는 이씨로 하여금 찾아오게까지 하였다.

그리고 회관집을 전세에 들 때 그 명의를 許憲씨와 閔丙疇씨 양인의 이름으로 하였다. 허헌씨로 말하면 유씨 다음으로 경성지회장이 되었던 때이라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민병주씨로 말하면 일개의 통상회원이요 조부가 조선의 갑부 민영휘라는 「カタカキ」²³⁾이외에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허헌씨 이외에 민병주씨를 명의자의한 사람으로 넣었느냐? 이 점이 문제가 되어 말썽이 생겼었다. 그러나 민영휘라는 커다란 배경을 생각하고는 이 말썽도 결국 무마가 되었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夕ネ」²⁴⁾로 하고 트릭을 분석하기로 하자.

그후 경성지회는 회관만 가지고는 복잡한 사무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매월 전화비용, 인건비, 그외 잡비 등을 합하여 평균 5·60원의 사무비가 필요하였었다. 이 비용의 나올 길이 망연하고 또 그날까지 꾸러 내려오는 회의 부채관계로 재정이 꼭 곤란한 경우에 처하였을 때이다.

유씨는 李源赫씨의 힘을 빌려 민병주씨에게 기부를 청하였다. 그러나 민씨는 복잡한 씨의 사생활 관계로 조금치도 실력이 없었던 때였다. 그리하여 유씨는 민씨가 장래에 값을 것을 전제로 하고 회관을 민씨 이름으로

23 [肩書축]이며, [이력, 경력, 지위, 신분] 등을 의미한다.

24 사건이 발생하는 근원·원인, 또는 문학·신문기사 등의 재료를 의미한다.

삼천리(三千里)

잡히고 돈을 얻기로 하여 이 돈으로 경성지회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게 하였다. 이 점에 관계되어 역할을 다한 이는 유씨를 비롯하여 리시완 리원혁씨 등이었다.

간부 간에는 부채와 사무비를 위하여 회관을 천원에 잡히되 장래 민씨가 찾아놓는다는 점을 양해하고 별 이의는 없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회관을 천원에 잡혔으며 그후 민씨가 이 돈을 갖고 회관을 찾아내었느냐? 회관을 얼마에 잡혔거나 결국 민씨가 찾아내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잡히고 얻은 돈은 돈대로 간 곳이 없고 회관은 회관대로 채권자의 손에 영영 떠나려가고 만 것이다.

경성지회 장부에는 천원이란 돈이 온전히 들어와 있지도 못하였다. 회관을 잡힐 때는 간부들도 모르게 이천오백원에 잡혔다. 그러면 회에 응당 들어와야 할 천원 중의 잔액 수와 일천오백원 돈이 어디를 갔는가? 이 사건의 장본인인 유씨의 말에 의하면 천원은 회에 내어 놓고 일천오백원은 민씨가 조선교육협회에 기부하였다 하며 민씨의 말은 이천오백 원에 잡힌 것은 사실이다. 그 중에 일천오백 원을 교육협회에 기부한 일도 없고 그 돈의 거처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양편의 말이 부합되지는 못하나마 그 중의 일천오백 원의 돈이 유씨의 손으로 들어가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만은 사실이다. 혹설에 의하면 교육협회 장부에 기입된 흔적이 없다하나 진가는 차차 알아질 것으로 믿고….

그러면 그후에 민씨는 회관을 왜 아니 찾았는가? 물론 실력이 없는 탓이다. 잡힐 때에 자기 이름으로 잡힐 것을 승인한 이상 다시 모면할 도리는 조금치도 없다. 할 수 없이 어음을 써내어 놓아 일시 거북한 처지를 면하였으나 그 어음이 역시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회원들 중에

별건곤(別乾坤)

는 가끔 민씨를 찾아다니며 「회관을 찾아내라」하고 괴롭게 굴었다. 그럴 때마다 민씨는 그 시간을 모면하려고 백합원으로 어디로 모셔다 대접하면서 이달 내달하고 미루기만 하고 내려왔다.

그러다가 신간회가 해소되었다. 다 틀렸다 하는 듯이 책임자들은 사면하고 헤어졌다. 이제 와서는 책임을 완전히 벗어난 줄만 알겠지?

그러면 신간경성지회관은 영영 공중에 뜨고 말 것인가? 신간회가 없어져버렸으니 신간회 회관이 소용없겠지. 그러나 해소 이후의 하는 일이 있지 않은가.

누가 돈에 홀려서 이따위 짓을 해서 사복을 채웠지 반듯이 잡아내야 할 일이다.

연말이 되어오니 바쁘다. 어서 일건 서류와 함께 예심으로 넘기기로 하자!

▷『별건곤』제57호, 1932년 11월 1일.

필 자 : 吳壽山

기사제목 : 空手로 一攫千萬金, 벼락 富者傳.

〈朝鮮의 黃金鬼, 崔昌學〉

벼락부자, 벼락부자 하지마는 근래 조선 사람으로 이 최창학군 처럼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군은 본래 평안북도 귀성(平北龜城)군의 한 빈한한 촌에서 성장한 사람이다. 집이 한미하니 만치 무슨 공부도 별로 한 것이 없고 삼십여 세가 되도록 장판(市場) 혹은 금점판으로 돌아다니

삼천리(三千里)

며 삽가 하기로 일을 삼아 금점에서 여간 돈푼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의례히 장판에 가서 직접 투전화투 같은 노름도 하고 혹은 노름판에서 고리대금도 하다가 밑천이 딸리면 또 금광으로 뛰어가서 자기 손으로 벽채, 금삼태를 들고 광부가 되어 금을 캐었다.

그러나 산을 많이 다니면 풍수가 아니라도 핏자리를 잡을 줄 알고 물에를 자주 다니면 어부가 아니라도 고기 다니는 곳을 안다고 그는 여러 해 동안을 금점판으로 돌아다닌 까닭에 금광에 관한 경험과 지식은 상당히 있어서 몇 해 전에 귀성군 관서면 조악동(龜城郡 官西面 造岳洞)에서 금광 하나를 발견하여 자기의 삼촌 崔僉使에게 약간의 자금(2만원이란 말이 있다)을 얻어가지고 채금을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세상에 유명하게 알려진 최창학 금광, 즉三成社란 금광이다. 이 금광은 한참 잘 날 때에는 이십관(20貫) 한 포대 20량 증식이 나서 불과 몇 달에 돈벼락을 맞아 수백만의 장자가 되고 그뒤 山梨 總督시대에 三井會社에서 그것을 또 삼백만원에 사가게 되니 놀라지 마시오. 적수공권으로 있던 최씨는 일조에 약 육백만원의 거금을 가진 벼락부자가 되었다.

민영회를 조선의 토지대왕이라 할 것 같으면 이 최씨는 조선의 황금대왕이라 하겠다. 그 황금 바람에 얼마 전까지 귀성산촌에 한 무명의 광부이던 최씨는 일조에 조선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고 관민간에 상당한 신임을 받으며 장안의 일류갑제에서 명기미첩을 데리고 환락의 호화생활을 한다. 그는 이 앞으로 그 돈을 가지고 다만 개인이 향락생활을 하며 수전노라는 별명을 들으려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에 무슨 공익적 큰 사업을 하려는지 일반은 매우 주목하는 바이다.

〈高義敬과 金基德〉

민영취가 조선의 갑부니, 李恒九가 현금으로 조선에서 제일이니 하는 말도 벌써 옛적 말이다. 현재 현금으로 약 일천만 원을 가진 사람은 전날 한말 당시 度支大臣으로 있던 高泳喜의 장남 高義敬이다. 그는 다년간 李王 殿下를 모시고 있는 틈에 주식소-바(柱式相場)를 하여 일시 벼락부자가 되었다 한다. 그는 아직까지 동경에 있고 그 돈이 역시 동경 모모은행에 비밀예금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돈 모은 경로와 실제 액수가 자세치는 않으나 하여간 약 일천만 원 내외의 현금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 하고 또 최근 이 벼락부자 중에도 아주 큰 벼락부자가 하나 생겼으니, 그것은 咸北의 金基德군이다. 그도 원래에 아무 특별한 재산이 없던 사람으로 이번 羅津港이 〇〇線의 중점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토지 장사를 하여 일조에 일천만원의 큰 부자가 되었다 한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도 최근의 일이 되기 때문에 뒷날에 자세히 소개할 셈치고 이만 줄인다.(끝)

▷『별건곤』 제62호, 1933년 4월 1일.

필 자 : 一鄉暗

기사제목 : 朝鮮高官 盛衰記, 沒落에 悲泣하는 朝鮮三府院君家, 當年世道 於今에 安在.

甲子년 高宗의 등극도 어느 덧 70년이 되었다. 70년이란 세월이 그리 길지 않지만 그동안 조선을 싸고 돈 풍운은 여간 험난하지 않았다. 풍운

삼천리(三千里)

이 그릇 듯 중첩한 동안에 하늘을 흔들 듯한 귀형락을 얻은 인물도 적지 않았다. 水落石出한 금일에도 관 차리든 그네들의 호강은 그저 계속되는가 한 번 찾아보는 것도 흥미 있는 문제일 듯하다.

〈趙府院君家〉

고종을 入承大統하는 시기에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중대한 관건을 잡았던 집은 趙成夏의 집이다. 조성하의 조부 趙萬永의 따님은 곧 조대비시라. 조대비가 비록 翼宗의 왕비가 되셨으나, 익종이 일찍 昇遐하신 까닭으로 조대비의 친정은 세도 맛을 보지 못하고 조대비의 시어머니 純元王后께서 오래 壽하신 덕택으로 純宗, 翼宗, 憲宗, 哲宗, 4대동안 김씨가 독권을 쳤었다. 그러므로 조대비는 항상 앙앙불락하시다가 철종이 승하하시니 그때는 순원왕후가 이미 돌아가신 후이라 조대비와 흥대비와 김대비의 세 과부 어른이 계시나 조대비가 제일 높은 항렬에 있는 까닭으로 궁중 일은 조대비가 관리하게 되었다. 대원군이 이런 눈치를 채고서 자기의 둘째 아들을 조대비의 아들로 들여세우고 외척의 집권을 단호히 중지하던 끝이라 자기가 독권을 차지하고자 하여 조성하로 하여금 안으로 조대비의 의향을 돌리게 하였으니, 그때에 조성하는 그야말로 右投則右勝하는 韓信과 같았다. 조성하의 노력으로 고종이 정통을 이었으니 세도는 의례히 조성하에게로 갈 것이나 당시 조성하는 나이 젊은 청년이요, 대원군은 노활한 鬪將이라 조성하를 꺾임하여 평안감사로 내보내고 그동안에 안팎 세력을 독차지하였으니 조성하는 그야말로 남의 좋은 일만 해주는 헛수고만 들었다. 그러나 세도는 못할망정 벼슬자리야 못할리 있으랴! 조성하도 이조판서요 그 아들 趙東冕도 30전에 이조판서를 하여 趙職 이하 조

별건곤(別乾坤)

동면까지 7대 이조판서가 되었다. 예의, 엄치가 있다는 英宗 때에도 조엄이 貪賊으로 말을 들었거든 더욱이 엄치가 없어진 근년에 그렇듯이 현혹하게 해먹었으니 돈인들 여간 엄청나게 모으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집을 7대 吏判에 7대 만석이라고 남들이 일컬었다. 그야 그뿐인가 세간 집물의 화려와 서화 미술품 등의 보물 많기로는 현금 조선갑부 민영휘로도 못 당한다고 하였다. 조동면의 아들 趙命九가 불행히 조사하여 사속이 없는 후 忠州 먼 일가에서 입후를 하여 놓았으니 그가 20년전 만석군 趙南甌이다. 그 집은 재산은 아직도 여전하나 대대로 조사한 까닭에 조명구의 부인, 조명구의 자친, 소박맞아 와서 있는 조명구의 매씨까지 세 과부가 동대문 밖 새로 지은 백여 칸 큰 집을 지키고 있다. 예전의 그 집은 求仕하는 이의 도회청이더니 지금 그 집은 과부의 도회청이다.

〈洪府院君家〉

조대비 며느리 憲宗 대왕의 제취부인 洪大妃 친정은 어찌되었나. 홍대비의 친정은 지금 洪淳馨 홍판사의 집이 그 집이다. 홍씨는 正宗大王 이후 아주 골아 떨어졌다가 홍대비의 아버지가 咸悅 군수로 홍대비를 낳아 현종왕비가 된 후 다시금 큰 숨을 쉬게 되었다.

그러나 홍대비는 현종대왕이 소박하던 바이라 현종 생시에도 별 세력은 못쓰고 안동김씨에게 아주 납작하게 치여 지냈다. 더욱이 현종이 승하하시고 철종이 등극하시니 위로 시할머니, 시어머니인 김대비 조대비가 생존하였으니 친정을 위하여 꿈쩍도 못하였었다. 철종이 승하하신 후에도 조대비가 장수하시고 민중전이 고종의 정궁으로 친정을 위하여 세력을 불드는 바람에 홍대비 친정은 세도는 고사하고 그의 조카 홍순형이 간신히 판서

삼천리(三千里)

까지 하였다. 오래 적막하다가 판서까지 한 그는 돈에 어찌 무서웠던지 그가 황해감사로 도입한 지 얼마 안되어 황해도 백성이 반반한 옷 한 벌이 남지 않았고 그가 松都留守로 있는 동안에 송도부자들이 다리 뻗고 잠을 자지 못하였다.

그렇듯 지긋지긋하게 모은 돈이 벼 만석이나 하여 소위 양빈의 부자로 민영휘의 대움을 쳤었다. 그러던 부자가 입후한 아들 洪麟杓에게는 담배 한 갑, 한 푼도 주지 않자 평생 고생을 하다 죽게 되고, 8선녀를 구며 형락하던 선물로 얻은 아들 鶴杓에게 사랑을 편벽하게 주다가 미두관 요리 집 도박장으로 다 없애, 지금은 楊州 덕소에서 팔십지년에 내일이 어떨지 모르는 노인이 조밥으로 목을 축이고 남을 잡아다 불기치던 그가 오라를 지고 몇 백리씩 끌려 다녔으니 그것도 무슨 연분이랄까.

▷『별건곤』 제63호, 1933년 5월 1일.

필 자 : 一鄉暗

기사제목 : 朝鮮高官 盛衰記, 半島天地를 흔들던 閔씨三家의 今昔.

민씨가 세도를 차지한 후 이 사람 저 사람이 돌러가며 혹은 2년 혹은 3년 혹은 5년씩 하였으나 제일 좀 오래하고 판을 쳐려본 이는 민태호, 민응식, 민영휘 집인데 그 집들은 과연 어찌되었다.

민태호의 별호는 杓庭이니 저 英宗 壬午년에 思悼世子를 위하여 한 때의 목숨을 버린 3정승의 하나인 민백상의 증손이니 노론, 소론 싸움에 제

별건곤(別乾坤)

일 억세고 제일 애썼다는 丹岩 민진원과 민백상을 조상으로 둘러맨 까닭으로 지벌 좋기는 민씨 문중에 몇째 안간다는 집이다. 그러나 민태호가 별로 顯揚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불행이 조졸한 탓으로 어려서는 호강의 맛을 못보고 편모슬하에서 懸鶉白缺을 면치 못하고 찬방 속에서 손을 호호 불며, 그 아우 奎鎬와 같이 그야말로 喫苦讀書를 문자 그대로 맛보았다.

그의 선생님은 누구인가. 이조 말년 문장으로 비상한 명성을 얻고 제자 차례로 유명한 봉서 兪莘煥이다. 金永壽, 韓章錫, 尹秉鼎, 徐應順 등 1대 문사와 다년 동고하였다. 유신환은 老洲 吳熙常의 제자인 고로, 여간 학자의 범절도 들었다. 그가 과거에 오르고 문학에 이름이 있으므로 민씨 문중에는 명망이 그때에 제일이었었다. 민성호가 대원군이 보낸 폭발약에 죽고, 민태호의 아들 영익이 그리로 繼後하였으니, 호랑이가 날개 돋친 듯이 어렵지 않게 세도를 차지하였다. 세도를 차지하고는 자기 동문들의 문학있는 사람을 많이 등용하였으니 다소 淸名(貧權樂勢하는 중에도)이 있었다. 그러나 민태호의 인재등용도 그리 되었고 앞에서 말한 김영수, 윤병정 등의 계책이 득중한 것이다. 민태호가 세도를 잡음에 그 동문 친구들 입을 모으고 相贊禱라는 것을 비밀이 조직하였으니 윤병정은 김영수를 칭찬하고, 서로 민태호의 귀를 돌리는데서 벼슬을 남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등용한 인물이 글줄을 적는 이는 많았으며 글과 같이 정치를 담당하여 우국애민을 赤誠으로 한 이는 없었다. 민태호가 秉政한 지 몇 해 못 되어 갑신정변이 일며, 민태호가 검두고혼이 되고 적자로 하나인 민영익을 민성호에게 바친 까닭에 아들이 없어 민영린을 公州, 遠族의 집에서 다시 입후하여 磚洞 큰 집(지금 中東學校基地)에서 세도는 계속하지 못하였으나 그대

삼천리(三千里)

로 대가의 체면을 유지하고 살았었다. 한양의 강산은 옛 빛을 잃은 지 오래고 민영린의 타락은 극도로 심하여 몇 천석 추수를 다 털었다.

민태호는 세도는 하였으며 청렴을 표방하였던 까닭으로 누구처럼 그리 큰 부자는 되지 못하였다. 민영린의 폐가는 어찌되었나. 부귀자제의 의례히 좋아하는 호색은 물론이고 호색 끝에 마약 중독이 극도로 심하여 奪爵까지 당하고 도박을 일삼다가 전답은 물론 위토선영까지 다 없애버렸다. 다행히 純宗의 처남인 덕택으로 동대문 밖 정자 하나는 이왕직에서 보관하여 살게 하였고 매월 5백원씩 내어서 민영린이 죽을 때까지 밥 굶을 걱정은 없었다. 민영린이 죽은 후에 그 정자를 팔아 추수 몇 백석을 장만하고 그 아들 민효식이 개동으로 들어와서 裕陵 참봉으로 월급도 있고 이왕직에서 나오는 구휼비도 그대로 있어 한참동안은 민정식의 신세를 지던 그 집이 지금은 민정식과는 天壤之別이 있는 생활을 한다.

閔應植은 어떤 이인가. 그의 생가는 충주의 사촌 殘班, 太宗 國舅 閔齊의 후손이다. 丹岩 閔鑑遠의 종손이 3형제였는데 맏째는 閔丙奭의 조부 閔泳緯이고, 둘째는 민응식의 양아버지요. 맏이는 또 있었다.(逸名) 민영위만 오래 살고 그 위로 형제는 일찍이 죽고 과부만 있었다. 맏 과부의 아들을 입후하였더니 맏 과부의 실절로 그 집은 아주 없어지고 아들까지 파악하고 민용식은 둘째 과부의 몫으로 입후하였다. 민응식이 시골 성장인 만큼 문학의 소양이 없고, 또 성격이 난봉 비슷한 점이 있어, 소년에 그 삼촌 민영위의 눈에 아주 들지 못하여 과거도 민병석의 당숙이 되면서 민병석 보다 나중에 하였다.

민영위가 시골집에 살 때 金佐根이 대신으로 성묘하러 여주로 왔다가

민영위에게 심방하였는데 민영위는 자기 족하인 민응식을 불러 보였더니 그 수작 행동이 양반의 행세에 맞지 않아 「시골자식이라 할 수 없다」는 꾸지람을 그 삼촌에게 듣고 그때부터 눈밖에 나서 민영위가 輔國까지 하였으며 그 조카는 齋郎 참봉 하나 안시키고 그대로 끝났다. 민응식은 落拓不遇하여 충주, 죽산 등지로 돌아다니며 막걸리 신세만 지었고, 그 삼촌 민영위가 평안감사 때에 다니러 갔다가 여간 박대를 받지 않았다.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을 다하고 분이 나서 민응식은 민태호의 집에 가서 종손 팔세한다고 한바탕 야단을 쳤더니 민태호가 능참봉 하나 시키자고 明星皇后에게 아뢰는 즉, 명성황후는 다만 자손을 능참봉이 무엇이냐고 그보다 淸宦인 洗馬를 시켰다. 세마한 지 몇 달 안되어 입오군란이 일어났다. 그때 서울서 오래 벼슬하든 민씨는 군총의 눈에 익어 닥치면 헤버리는 판이라 죽은 이 이외에도 쥐구멍을 찾고 도망하는 판인데 민응식은 무명씨였고 또 생소한 까닭으로 화를 면하였다. 명성황후가 도망하는 바람에 민응식이 앞잡이를 서서 長湖院 자기 시골집으로 護從하여 여러 달 지성으로 섬기고 명성황후의 등창을 입으로 빨아 치료하였다. 그리자 명성황후가 도로 妃位로 復位하며 민응식은 호종공신에 첫자리를 차지하여 그 해 바로 과거하고 한 몫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甲申년 정변으로 민영익이 도망하고 보니 그때부터는 아주 민응식이 독판을 차렸다. 다른 민가의 별입시군들이 있어도 민응식의 세력을 당할 이 없었다. 민응식은 무식하되 좀 후한 편이어서 간혹하지 않고 貪權樂勢는 일반이나 그리 다른 사람 같이 악착같지 않았다. 선비를 등용한다는 생각으로 여간 문학조행 있는 인물을 썼으나 역시 불만한 인물이 없고 오직 평생에 술 많이 먹은 것이 드러났었다. 그러므로 8년 집정에 역시

삼천리(三千里)

누구처럼 몇 만석은 못하고 벼만 가까이 하였으며 감역 참봉께나 팔았으
되 드러내놓고 흥정하여 보지 못하였다.

甲午, 乙未 이후로 여주로 내려가서 서울 일을 상관하지 않고 술만 먹
다가 세상을 버렸다. 그 아들 민병승의 문학은 그 아버지 보다 나으나 위
인은 暗弱하고 귀가 여러며 남의 말을 잘 듣고도 있지 않으며 세상이 변
한 후 시골로 돌아다니며 處義를 내세우고 讀書를 하였으나 부귀가 자제
의 驕奢한 맛은 누구보다 심하여 처사가 朝變夕改에 종잡을 수 없고 화복
을 백골에 구하는 까닭으로 풍수꾼에 속아 緬禮로 없앤 돈이 얼마지 모르
며 서울로 다시 올라온 후로는 부자가 서로 침언기에 전력을 하다 많은
재산이 그럭저럭 얼마 남지 않았다.

아들이 3형제인데 서자형제는 말할 것이 없고 적자는 어린 까닭으로 권
정을 예탁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잘 정리하였으면 고생은 안할 듯 하지만
는 과연 어찌될는지?

민영휘 집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인지라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그는 민
가 중에 지벌도 제일 시원치 않고 또 그가 명성황후와 춘수가 먼 까닭으
로 세도를 할 인연이 없다. 그만큼 그의 秉權한 것이 얼마나 고심이었고
얼마나 재간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의 아버지 민두호가 소시
에 곤란하여 水原서 자리 장사한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민영휘가
鎭川, 申씨의 부호집으로 장가들어서 초년은 그 처가의 힘이 많았으니 그
훈인은 지벌을 본 것이 아니라 재산을 주장으로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처
가에 와 있을 때 권장한 자리를 그 장인에게 분재로 달라다가 거절을 당
하고 평생 잃지 못하여 그 처조카들을 대하면 그때 이야기를 항상하고, 지

별건곤(別乾坤)

금 그 권장을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것만 보아도 소년 때 궁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씨가 한참 잘 되어 상투만을 올리면 과거시키던 때에 그도 과거를 얻어 하였다. 과거를 얻어 한 후 영민한 것으로 명성황후의 눈에 들어 민영익의 뒤거지꾼으로 바짝 가까워졌다. 그가 어려서 궁곤으로 고생한 까닭에 돈에 범연치 않음이 누구보다 심하였으니 그것으로 秉權까지 하게 된 것이요. 누구보다 잔재주가 있고 간능한 까닭으로 정치세력 싸움판에 남을 잘 골랐다. 돈에 들어서는 민영휘 보다도 그의 아버지 민두호가 더 심하여 뒷방에 들어앉아 모은 것이 훨씬 그 아들보다 많다한다. 趙弼永을 밖에 놓고 민영휘는 안에 앉아 돈 굵기에 전력한 것이 갑오사변에 한 원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응식이 세도하다가 명성황후에게 「굿 좋아하시지 맙시다」하고 바른말을 하다가 눈 밖에 난 것을 기회로 민응식을 먹어대기 시작하고 민응식이 대원군의 청에 의하여 쌀 3백석 준 것을 일러바쳐 壬辰년에 아주 세력을 차지하고 자기 재종 민영달까지 구수로 끌려 한 2년 간 독판을 보다가 갑오년을 당하여 중국으로 숨 가쁜 걸음을 걸으며 생사 선상에서 2개월간을 방황하였으니 그도 그때에는 양심의 맹동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외 모든 행사는 들어 말하려 하지 않으나 큰아들 부자는 도선이 무용으로 돈 안버리고 성취가 없으며, 둘째 아들은 지금 재계 거두로 활약하다 녀가 부족하고 너무 소극적이어서 이미 실패된 것이 많은 모양이며, 셋째 아들은 아무 짓도 안하고 들어앉아 모으기만 하니 재산은 지킬 듯하나 그도 미지수이다. 지금 수북하게 다 남으로 보아 누구에게 그 팔자가 지지 않으나 휘문학교 하나로는 돈 모은 죄를 속할 수 없고 아직까지는 갑오년

삼천리(三千里)

전의 대가생활의 모양을 유지하여 이 아들집도 수백 칸 저 아들집도 수백 칸으로 버티니 그는 백수잔년에 여일이 많지 않을지라 그 호강으로 끝을 막을는지 모르지마는 그 자손이 장차 어떨는지는 누구나 의문이다.

▷『별건곤』 제64호, 1933년 6월 1일.

필 자 : 一鄉暗

기사제목 : 朝鮮高官 盛衰期, 半島天地를 흔들던 閔씨後裔의 今日,
當年勢道=於今安在.

민씨 중에서 이조 말년에 제일 잘 해먹은 이로 민태호, 민응식, 민영휘의 세 집은 이미 전월 호에 기록하였거니와 그외에는 누구누구가 그 다음 자리로 진지할 것인가. 민영소, 민병석, 민영달, 민영규, 민영철 등을 칠 것인데 그 집들은 과연 어찌 되었나.

민영소는 민호규의 아들로 입후한 사람이니 민규호가 그의 백씨 민태호와 같이 세도를 하다가 모든 잔재주를 부려 그의 백씨로 도리어 득담하게 한 것도 많았고 제일로 이조 말년에 유명한 書下法을 만들어 逢君之心하기에 누구보다 민첩한 까닭으로 한참 서슬이 푸르게 드날렸었다. 그리자 갑신년 정변에 자기 백씨가 무참히 그만두고 자기도 그럭저럭 하다 이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없으므로 공주 동승의 집(寸數는 不知其幾寸)에서 민영소를 아들로 입후하였는데 시골생장인 민영소도 인군의 비위 맞추는데 누구보다 범연치 않아 과거한지 얼마 안되서부터 別入侍承爲는 물론이고

별건근(別乾坤)

아주 한 자리를 차지하여 한참 당시에는 금내(琴內-泳韶의 別號)하면 장안이 떨어지고 一駿二達三煥四韶로 민영휘, 민영달, 민영환들과 서로 세력을 짓고 틀었다. 그는 교양함이 누구보다 심하여 세력은 그 보다 나은 이가 있었으나 교로는 그가 제일이었으니 閔驕라고 이름이 난 것도 그의 까닭이라 한다. 그가 교가 있던 만큼 외아들 민충식을 여간 귀둥이로 기르지 않고 여간 무엄하게 가르치지 않아 민충식의 교도 초년에는 상당하였다 한다. 지금은 다된 판이라 그 교도 못 부릴 티이지마는 제일 창피한 것은 민충식의 부인이던 李容植의 딸과 금실이 좋지 못하여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몰라도 품행이 방정치 못한 문제로 이혼소송이 일어나 한참 각 신문지에 오르내리다가 결국 이혼을 하였으니 이것이 무엇보다 대가체면에 큰 수치고 사오천 석의 재산은 처음 龍山勸業會社의 실패로 넘어지기 시작하고 요리점에서 더욱 판을 들다시피 되어 부여조 삼대의 구거이던 수송동 집까지 민규식에게 팔아먹고 궁정동으로 다시 송현동으로 이사를 하여 지금은 마나님과 창복회 돈으로 생활을 계속한다는데 민충식의 외아들이 역시 그 자친의 일이 생긴 이후 공부도 잘 하지 않고 아주 세상에 뜻이 없는 모양이란 즉 그 집 전정도 그리 부러울 것은 없는 모양이다.

민병석 집은 어찌 되었나 민병석은 민영위의 손자로 들어와서 역시 세도 한판을 보던 이다. 당초에 민병석의 생아버지가 민영위의 큰집 조카로 공주 「새오」란 곳에서 들어왔다가 민영위 형수의 失行으로 무죄하게 억울한 파양을 당하고 시골집으로 도로 가서 재미없는 생활을 하였다. 민영위의 외아들이 아들도 두지 못하고 일찍이 죽으니 민영위가 자기 조카로 왔다. 무죄로 파양한 그의 정경을 억울히 생각하고 그의 아들을 데려다 손자

삼천리(三千里)

로 삼았으니 그가 즉 민병석이다.

입후로 오자 바로 과거에 오른 것은 물론이고 입오군란에 자기네의 집안이 공이 있었던 만큼 명성황후에게 여간 사랑을 받지 않아 일찍이 淸宦高官을 헤먹은 것은 물론이고 과거와 남행을 자기 손으로 내인 것도 적지 않았다. 위인이 박하지는 않으나 좀 흐린 것이 병통이고 여편네에게 빠지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자기 조상에 丹峯을 계적한다고 스스로 기약하여 田良齋라는 학자에게 執擘도 하였고 평안감사로 가서 날마다 宣化堂에서 논어맹자만 읽고 큰 소매에 매방석만한 것을 쓴 학자들이 齋門에 때로 지어 들락거렸다. 그러는 동안에 자기는 청렴을 표방하였으나 아전들과 부하 협잡군들이 함부로 갈키질을 하여 백성에게는 혜택이 비쳐보지 못하였다. 여간 생긴 것은 애첩 山月이가 보따리 싸는 바람에 다 없어지고 甲午난리에 印을 잃어버리고 도망한 죄로 원주로 귀양살이로 가서 치악산 밑에서 쓸쓸한 세월도 보내다가 乙未년 俄館播遷에 유일한 신인 이완용이 자기와 내외종 남매가 되는 덕택으로 다시 등용되며 이 벼슬 저 벼슬로 끝까지 官不離身으로 호강을 하여 자작 겸 제일대 이왕직장관을 함병후에도 차지하였다.

그 조부 때부터 내려오던 재산과 자기가 좀 모은 돈을 합하여 만여 석을 하고 꾸준히 누구보다 호강을 하였으나 먼저 윤고리의 울개미에 얽혀 불소한 손해를 입었고 지금은 원골마마에게 빠져, 전 재산이 다 병든 후에도 별 정신을 못 차리는 모양이다. 현대 경제가 어떤지 모르고 모회사 사장이니 모회사 고문이니 하는 첩지에 누거만의 손해를 입어 현금 형편으로는 토지문서가 자기 집 문갑 속에 있지 않고, 식산은행의 중리신세를 지는 모양이니 아직까지 작은 집 큰 집이 으실으실하게 버티나 그 역시

삼천리(三千里)

민영달 집은 어떤가. 민영달이 제일 과거로 여러泳자 항렬 중에 늦게 하여 소시에는 그야말로 기구한 팔자로 느꼈었다. 그러나 위인이 녹녹치 않고 근력도 약하지 않아 갑신년 郵正局 앞에서 민영익을 업어온 공로로 민영익 어머니에게 귀엽게 보이고 명성황후에게 사랑을 받아 갑신년으로부터 갑오년까지 10년 동안은 어느 바람이 불라 듯이 드날리어 민영휘와 백중을 다투게 되었고 민영익이 上海로 도망간 후에 크나큰 죽동궁이 외무주장이 되고 죽동 대방마님과 종숙질이 되는 까닭으로 그 집 안팎일을 도맡아 보아 그 까닭으로 불륜의 누명까지 들었다. 감사하나 못지냈으나 그리 누구처럼 심한 말을 듣지 않고 수친석의 치부를 하였다.

갑오년 이후로 들어 앉아 坡州로 낙향하여 10여 년 동안 野農山客으로 소일하며 세상일의 하염없음을 한탄하였다. 서강으로 올라온 후에도 술을 마시어 울분한 회포를 풀고 세상사업에 뜻이 없는 바 아니나 수하의 출입한 인물들이 그리 시원치 않아 벼슬 내놓고 규모있게 저축한 돈만 수십만원 없어지고 이렇다 할 표적이 드러나지 못하였다. 돈으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감옥에 보낸 것은 점잖은 이 체면에 큰 누가 아니할 수 없고 사후에 양아들과 조카들이 아직 굶고 벗는 걱정이 없이 지내나 운수는 그리 번창하다 못할 것이다.

민영규 집은 어찌 되었다. 민영규는 원래 재주와 수단이 여러 민가 중 제일 없던 인물이다. 나이가 영자 항렬 중에 제일 높고 졸한 탓으로 위태한 일을 하지 않고 무능한 까닭으로 남에게 미움을 그리 심하게 받지 않았다. 이렇므로 다른 이와 같이 세도도 못하여 보고 돌아오는 벼슬만 하여 의정대신까지 하였으니 그는 그리 세상에 대단한 득담이 없었고 추수도

별건곤(別乾坤)

천 석을 넘기지 못하여 청렴으로는 여러 민씨 중에 제일일 것이다. 작란 돈까지 합하여 천여 석 하던 재산이 그가 돌아간 후 양손자 병삼이가 1년도 못되어 다 없애고 次養 중식도 수백 석 가졌다가 불기년에 소사하여 지금으로 보면 그의 재산으로 남은 것이 어린 서자의 것뿐이다. 병삼이가 어찌 알뜰하게 없앴는지 그의 位土까지 다 팔아먹고 한참은 집도 없어 그 사당의 갈 곳이 막연하더니 창목회가 설립된 덕택으로 170원을 받아 그날 그날의 생활을 계속한다.

민영철 집은 어찌 되었나. 민영철이 영자 함렬 중 제일 나이 어린 까닭으로 그의 출세도 아주 늦었다. 더운 바람이 불든 갑오 전에는 벼슬도 참판 이상에 못지내고 다른 영자가 해먹는 바람에 그는 판을 차릴 생각도 못하였다. 갑오 후에 등양하기 시작하여 平壤觀察로 서귀짓는 것을 미끼로 하여 어찌나 지독히 굶었는지 지금도 서도사람이 민영철이라면 잊지 못하고 오히려 어느 점으로는 민영휘보다 더 심하게 쳤다. 그러므로 부력이 민씨 중 제일가지는 못하였으나 벼 만석이나 착실히 하였고 그 탓으로 국내에 편히 지나지 못하고 멀리 香港, 상해 등지로 유랑하다가 최후도 비참히 마쳤다. 그 아들 裕植이 사람은 후하나 분개가 적고 호화로운 집 귀공자로 理財를 몰라 무슨 회사 중역이니, 무슨 은행 취체역이니 하다가 이리 속고 저리 속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지금은 始興 궁촌에 가서 무료한 세월을 덧없이 보낸다. 龍山勸業會社의 실패가 없었으면 지금도 민씨 중 상당한 부명이 있을 것이고 安城으로 낙향하지 않았으면 또 어떨는지 모를 것인데 아깝게도 이일 저일이 모두 손해만 있고 이익은 없어 자기 집 문객으로 돈 모은 이의 구제로 그날 그날을 지내니 그의 전정도 볼 것이 없다.

▷ 『별건곤』 제64호, 1933년 6월 1일.

필 자 : 風流郎

기사제목 : 朝鮮兩班의 쫓타령.

첩! 그것은 동양 자래로 있는 큰 폐습이다. 이 폐습이 조선에 와서는 더욱 어느 때 보담 심하여 일로 인하여 집이 잃고 망하기도 하였으며 망신도 발신도 없지 않았으니 남의 첩들의 이야기를 들추는 것도 여간 재미 있지 않을 것이다.

산림학자의 첩으로 栗谷의 첩 김씨와 愼獨齋의 첩 이씨와 河溪의 첩 鄭씨가 다 이름이 있었다. 율곡이 끝까지 아들을 두지 못하고 그 때 국법이 嫡庶俱無子라야 입후를 허락하는 까닭으로 아들을 두기 위하여 여염출신의 김씨를 양첩으로 얻어 아들을 삼형제나 두고 율곡과 같이 시서모 섬기기와 홀로된 맛동서 섬기기에 극진한 성력을 다하여 지금까지 아름다운 칭송이 전하여올 뿐 아니라 그의 혈속이 황해도 해주에서 상당한 번창을 이루고, 신독재의 첩 이씨는 즉 율곡의 서따님이니 위에 말한 김씨의 소생이라 그때 국법은 남의 첩의 딸이 남의 첩으로 시집가는 수도 많았으니 신독재의 아버지 河溪가 율곡의 제일 높은 제자요, 신독재도 그 아버지의 귀를 따라 율곡문하에 출입하던 까닭으로 율곡의 신애를 받았다. 신독재의 부인 兪씨는 松堂 兪泓의 따님인데 위인이 불출이어서 아무 주책이 없으며 버선을 주머니 모양으로 지어도 신독재는 유일무이한 귀물로 알았으니 그만하여도 그의 위인을 알 것이다.

그런 중 사속을 두지 못하니 율곡이 자기의 서딸을 주고 사위를 삼아 사속을 보았으니 지금도 連山, 豆溪 등지에 그 혈속이 여간 변연하지 않다. 신독재 아들이 과거보는 試紙에 單子를 쓰고 본즉 아버지는 신독재, 할아버지는 사계, 증조는 黃岡, 외조는 율곡으로 四祖는 조선 제일이나 서자인 까닭으로 청환을 주지 않아 피를 토하고 대대로 과거를 보지 않았다. 사계는 늦게 상처하고 환갑 지난 후 정씨를 얻어서 아들 6형제를 낳았으니 속칭 율방파라는 것이 그 율형제 자손을 이름이니 그만 보아도 그네들이 품행과 덕성이 점잖은 학자와 살기에 넉넉함이 있어 지금도 자손이 엄연히 대성노름을 한다.

세도군의 첩으로 좋은 대 되는 이가 하나 있으니 世祖 공신 洪允城의 첩과 윤원형의 첩일 것이다. 홍윤성의 첩은 전주 아전의 딸로 권세에 건디지 못하여 홍윤성의 첩으로 비록 들어 왔으나 위인이 덕성이 있고도 총민이 출중하여 홍윤성이 권세를 믿고 폭학을 부리어 당시에 득담이 여간 아니었으나 그가 능히 눈치있게 말리고 비위를 맞추며 간하여 허물을 기운 것이 여간 많지 않다.

그 반면으로 윤원형의 첩 蘭貞은 방자무기탄하고 恃寵自恣하여 乙巳년 대 殺戮에 크나큰 주인공이 되었으니, 이것은 같은 자리에 있어 선악의 차이가 천리일 뿐만 아니라, 명사의 어머니로는 楊蓬萊의 모친이 유명하니 전라도 궁촌 무명씨의 소생으로 양봉래의 부친이 靈光군수로 도임 길에 밥 사먹을 때 눈에 들어 淸扇紅扇으로 10여 세에 서로 껍박을 하고 자란 후, 부모의 시집보내려는 명령을 거역하여 양봉래 아버지에게 副室로 와서 인하여 검부인 노릇을 하고 봉래 형제의 명인을 난하 세상에 이름을 전할 뿐 아니라, 자기 남편 죽어 成服날에 바로 下從하여 아들로 서자의 이름을

삼천리(三千里)

들리고 자기도 남의 첩소리를 전치 않았으니 이야말로 제주와 덕향과 절개가 구비한 숙녀라 아니할 수 없다. 柳進士 緯然의 두 첩은 자기 아내와 동년 동월 동일 동시에 한 동리 아래 웃집에서 태어나 같이 자랄 때 한 남편을 섬기자는 약속으로 얻은 첩이니 그 까닭으로 당시 정승 權大運을 첩장인으로 하고 당시 中人 고관을 첩장인으로 하여 일평생 十指不動하고 호의호식한 것이 쉽지 않은 奇緣이고 李尙彦의 첩 이씨는 꿈 하나 까닭에 백만장자의 무남독녀가 영당이가 씨어질 만큼 가난한 이서방에게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는 일평생의 식의류를 몰랐으니 이것은 황제수의 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李東岳의 첩과 洪忍齋의 첩은 모두 轉禍爲福이 된 것이니 하루 밤 유인과 하루 밤 취한 것으로 虎穴에 들어 갔다가 다행히 지기허심이 되어 생사가 박도한 자리에서 백년가약을 맺은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成世昌의 玉簫仙과 沈喜壽의 一朵紅은 천고 재자가인이 서로 만나게 되는 조화옹의 작란이니 우연한 기회로 지기를 서로 알았고 궁곤한 가운데에도 잡은 뜻을 변치 않아 백년 동락하는 동안에 얽힌 삽화가 서로 한 쌍이 될 만큼 기적이었다. 金守杭의 江界 집과 盧玉溪의 寧邊 집은 환락장에서 정조를 구차히 지키며 한 조각 이름의 비친 곳을 찾다가 현순백결 궁곤에 쌓인 남자를 얻어와 기상에서 지기로 보고 가련한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육신과 물질을 그대로 희생하고 구구한 언약을 맺은 후 권세있는 수령들에게 지키던 정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혹은 지각없는 어머니에게 볶기다 못하여 십산궁곡 중에 들어가 승 노릇도 하였고 白雲寒屋에서 空閨를 지키다가 다행히 영화로이 만나 일생 안락을 한가지 하였으니 이는 웃음과는 창기 중에서 두 번 보지 못할 일이다.

金履陽의 소실 雲樵는 평양기생으로 20이 채 넘어 70 늙은 감사를 쫓아 백년을 의탁하였으니 이것도 여간 기사가 아닌 중에 더욱이 그는 글조가 유명하여 試與文이 당대 女流에 득보하였다. 오백년에 세도를 서슬이 푸르게 한 남의 첩은 羅閣일 것이다. 李書九 이정승이 전라감사로 도임하여 나합을 낳던 날 채사를 보내어 사내거든 즉시 처분하고 여자를 낳거든 그냥 돌아오라고 하며 濁亂朝廷 하겠다고 걱정을 하였다는 전설만 들어도 그의 생김이 조선국운에 관계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김좌근의 첩으로 들어오며 어쩌나 남편의 고임을 엄청나게 차지하였던지 하옥(荷玉-金佐招의 別號)의 세도가 아니라 나합의 세도라는 俗謠까지 있었던 즉, 그의 세력이 얼마나 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옥이 교동집(지금 閔泳徽의 집)을 지을 때 큰 사랑을 높이 지으려 하였더니 나합의 집 대청에서 남산이 막혀 보이지 않는다고 야단을 쳐서 사랑 기둥을 한자씩 잘랐다는 말도 있으며, 趙斗淳이 大拜까지 한 뒤에도 그 집을 가면 하옥을 먼저 찾지 않고 나합에게 먼저 문안하였다는 조롱이 있다. 그만하면 당시 조정에서 문관이나 무번이나 남행이나 누가 그를 무이고 지날 수 있으랴! 참말인지는 몰라도 하옥이 예뻐하려고 관대를 내오라 하였더니 장삼을 내왔다는 험구쟁이의 웃김을 보아 불공을 좋아하던 것은 나합이 누구보다 심하였던 모양이다.

근일로 말하면 민영휘의 큰소실 해주마마가 사주를 잘 타고난 덕택으로 시아버님 春留대감에게 첩머느리로 뽑히어 부귀다남으로 조선귀인의 소실 중에 팔자 좋기로 제일이고 민영휘의 작은 소실 평양마마(이미 작고)가 라합의 세도하던 그 집 자리에서 팔자는 해주마마만 못하여도 세력 쓰기는 그 보다 더 하였으며 근일에 와서는 세월이 바뀌고 세도가 없어진지라

삼천리(三千里)

수령방백을 내지는 못하였으나 사슴떼고 내는데 그의 청이 많이 시행되어 그것으로 나합에게 지지 않게 권리를 썼고 재산이 만석이나 넘어 빚 거간꾼의 출입이 병판문전을 활랑 드나들듯 하였으니 그 집터는 남의 소실의 세력 쓰는 곳으로 천정이 있는 듯 하다.

돈먹기와 이 남편 저 남편 갈아 드리기로는, 민병석와도 살고 李允用과도 살던 산월마마가 둘째 가지 않을 것이고, 江石 韓圭嵩의 寧邊마마 형제는 예전 순임군의 두 아내 娥嬭 女英과 똑같다. 그러나 강석이 두 첩을 한꺼번에 얻은 것도 아니오 작은 영변마마는 일찍이 강석의 사돈 沈相薰과 살던 사돈마마를 사돈 죽은 후 자기 소실로 데려 왔으니 영변마마 형제가 영감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뺏기지 않고 두 형제가 차지하려는 계교는 묘하다 할 수 있으나 강석의 체면은 여간 재미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규설의 전체는 정신과 골육과 재산이 모두 그리로 빠져 단 하나 아들까지 모를 지경이 되었으니 남편 총애를 독차지하는 수단은 누구에게나 지날 것이다.

근래 기생으로는 李豐漢의 소실 유색이가 먼저는 尹德榮의 사랑을 도맡고 지금은 양반부자로 제일 포실한 이풍한 남작의 겸부인이 되어 새로 지은 가회동 큰집 속에서 부귀형락을 남 유달리 누리고 모은 사천도 근일 남의 첩 중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워 올만하다.

근일 명사 모신문 사장의 애첩 유산홍 마마도 다른 부자나 귀인의 첩만 못지 않게 지낼 뿐 아니라 그 남편이 현대 명사인 만큼 더 산뜻한 사랑을 꿈꾸는 모양이고 한말 흥망에 제일 관계가 깊은 裴貞子是 유명한 수단도 있고, 유명한 변태성욕자로 먼저는 玄英軍을 흥하게 했다 망쳤고, 지금 모은행 은행장 朴榮喆을 발신시키고, 또 나이 어린 남편을 찾아 혹은 손자벌

별건곤(別乾坤)

하고도 혹은 아들별 하고도 사랑을 속삭인다.

더럽게 모은 돈을 다 없애고 지금은 어느 구석에 기었는지도 모르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애첩에게 소비하고 유리걸식하는 남자와 好一對가 된다. 하여간 조선 오백년 풍운녀야 중의 제일이요 여류 오입쟁이의 거갑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별건곤』제69호, 1934년 1월 1일.

필 자 : 多言生

기사제목 : 秘中秘話, 百人百話集.

〈李甲〉

그의 본명은 李徽善이다 甲戌科에 나이를 속이고 進士한 까닭으로 민영휘가 평안감사 때에 그 죄를 구실 삼아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 뒤 중국으로 또는 일본으로 방랑하다가 일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러일전쟁 때에 귀국하여 일약 參領이 되어 민씨에게 그 재산을 다 찾게 된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그가 외국에 가기 이전에도 민씨에게 재산을 찾으려고 어찌 애를 썼던지 민씨 春川 留守 시대에 그의 고향인 평안도 肅川에서 춘천까지 도보로 걸어갔었는데 발병이 나서 춘천에 있는 그의 外族 車씨의 집에 누어있으면서 그 돈을 찾으려고 민씨에게 여러 번 교섭하다가 그만 실패를 하고 그 길로 외국으로 갔었다고 한다.

삼천리(三千里)

〈閔大植父子와 風情〉

절약가라 할지 인색가라 할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돈 잘 쓰지 않기로 유명한 민대식씨는 얼마 전에는 孫子를 보았는데 친구들이 한턱내라고 암만 졸라도 듣지를 않으니까 최후에 그를 끌고 어떤 설렁탕 집으로 들어갔었다. 그러나 그것도 회계를 하고 나올 때에 자기 먹은 것만 내고 나오니 다른 사람들이 모두 혀를 두르며 지독한 이라고 소리만하고 다시 말도 건너 보지 못하였었다.

그런지 얼마 후에 그 소문이 민영휘씨 귀에 들어감에 그 역시 미안하게 생각하였던지 민병수(閔丙壽-大植씨子)군을 슬며시 불러가지고 애야, 네 아버지가 여차 여차 하였다니 체면이 어찌 되었겠니. 돈이야 얼마 들던지 아버 대신으로 내가 한턱을 내라 하였더니 의례 놀기 좋아하는 병수군은 예-라 좋다구나 하고 은행사람 기타 여러 친구들을 청하여 수 삼백원을 드려 한턱을 잘 냈다고 한다. 그 집 풍정은 말하자면 장구통 풍정이라 할까.

▷『별건곤』 제73호, 1934년 6월 1일.

기사제목 : 萬華鏡.

〈閔씨家畜犬熱〉

근래 조선사람 중에는 축견열이 상당히 있어서 웬만한 집에는 행세거리로 舶來種(수입종:역자주)의 개를 한 두 마리씩을 기르는데 그중에도 삼청동에 사는 민규식군(奎植=민영휘의 次子)은 축견열이 특히 많아서 현

별건곤(別乾坤)

재 약 150수를 기르는데 그 개들은 모모 군용으로 사용할 만한 종류인 까
닭에 당국에서 군용견으로 동축까지 하였다 한다.

우리 하남시는 역사와 민족의 숨결이
배어 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河南省 史料集 4 (人物篇)

2001년 12월 20일 인쇄

2001년 12월 31일 발행

편집자 : 김세민(金世民) · 신동규(申東珪)

발행인 : 이용우(李容宇)

발행처 : 하남문화원(河南文化院)

경기도 하남시 덕풍1동 426-10(구 시청 2층)

(전화 031-795-1020)

(팩스 031-791-1522)

인쇄처 : 영진기획문화(02-2268-8517)

이 책은 국비 및 하남시 지원금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비매품)